

博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珍 源

# 濟 州 島 俗 談 研 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國 語 國 文 學 科  
國 文 學 專 攻  
高 在 奐

博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珍 源

# 濟 州 島 俗 談 研 究

A STUDY ON CHEJU-DO PROVERBS

위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1986年 9 月 日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高 在 奐

이 論文을 高在奐의 文學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1986年 11月 日

審査委員長 李 明 九   
審査委員 朴 正 奎   
審査委員 崔 雲 植   
審査委員 金 亨 民   
審査委員 崔 珪 煥 

# 濟州島俗談研究

## 目 次

|                        |    |
|------------------------|----|
| I. 序 論 .....           | 1  |
| 1. 研究 目的 .....         | 1  |
| 2. 俗談의 屬性 .....        | 2  |
| 3. 濟州島俗談의 背景 .....     | 7  |
| 4. 研究의 範圍 .....        | 11 |
| II. 濟州島俗談의 形態 .....    | 14 |
| 1. 形態의 檢討 .....        | 15 |
| (1) 意味構造의 領域 .....     | 16 |
| (2) 外形構造의 領域 .....     | 18 |
| 2. 形態의 分類 .....        | 22 |
| (1) 一般型 .....          | 23 |
| (2) 特殊型 .....          | 30 |
| III. 濟州島俗談의 表現 .....   | 40 |
| 1. 修 辭 .....           | 41 |
| 2. 律 格 .....           | 51 |
| 3. 滑 稽 .....           | 60 |
| IV. 濟州島俗談의 素材・職能 ..... | 69 |
| 1. 素 材 .....           | 69 |
| 2. 職 能 .....           | 80 |

|                       |     |
|-----------------------|-----|
| V. 濟州島俗談의 主題 .....    | 101 |
| 1. 警世觀 .....          | 102 |
| 2. 生計觀 .....          | 109 |
| 3. 運命觀 .....          | 123 |
| VI. 濟州島俗談의 性向 .....   | 130 |
| 1. 言語의 特性 .....       | 130 |
| 2. 謠詞와의 交流 .....      | 135 |
| 3. 女人의 自尊性 .....      | 139 |
| 4. 島民의 意識 .....       | 147 |
| VII. 結        論 ..... | 152 |
| 參考文獻 .....            | 156 |
| 英文抄錄 .....            | 160 |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濟州島(이하 本島)를 일컬어 〈三寶〉의 고장이라고 한다. 사방이 바다로 휘감겨 해산자원이 풍요롭고, 한라산에는 1,700여 이상의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方言·民謠·說話·巫歌·俗談 등 고유한 향토문화 자원이 다양하게 전래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本島가 韓本土와 다른 특수문화권으로서의 독자적인 民俗과 口碑文學의 寶庫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고유한 향토문화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되살려내지 않으면 보전은커녕 그 명맥마저 끊기게 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俗談인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속담학이 밝혀 온 바로는 기존 속담사전에 따른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다른 구비문학에 비해 연구결과가 뒤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면에서 본연구는 비록 향토학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보면 鄉土俗談의 採錄과 연구의 활성화는 한국속담학의 기존연구에서 못다 밝힌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本島俗談은 環海天險의 立地성과 내우외환의 불우한 역사적 현실을 극복해낸 선인들의 강인한 인생관과 근검한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풍자와 해학, 아이러니와 위트 등의 익살감각을 통해 생활의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짜릿한 생활훈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보전하기 위한 집중적인 채록과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지 않으므로 해서 소멸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方言과 民謠, 說話와 巫歌 분야는 1950년대에 연구가 진척되어 자료집을 비롯한 저서와 논물들이 나왔지만, 유독 俗

## 2. 1. 序 論

談분야만은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秦聖麒의 「濟州島俗談」<sup>1)</sup>, 제1·2집(프린트版, 1959)과 金榮敦의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sup>2)</sup>, 玄容駿의 「濟州島民謠의 俗談의 表現」<sup>3)</sup> 등이 그 전부이다.

이와 같이 부진한 것은 연구의 절실성을 느끼지 못한 데다가, 문헌자료의 빈곤과 장르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지속적 연구과제로서 그 성과가 돋보일 수 없다는 선입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의 효용가치는 다른 구비문학보다 앞선다. 대화가 있는 곳이면 누구나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話術의 묘미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俗談은 村老들의 專用物도 아니고 古色蒼然한 골동품일 수도 없는 말의 보배인 것이다. 선인들의 운치와 지혜, 역경을 극복해낸 생활철학의 단면을 대화현장에 되살려낼 때, 머리만 치레하고 가슴이 없는 세대에게 훈훈한 인간성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것아. 첨단산업사회에 대응한 지식과 기능연마에 못지않게 전통의식의 수용을 위한 俗談의 연구는 소중하다.

본연구는 이런 관점에 초점을 두고 속담연구의 불모지를 일구고, 점차 한국속담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학문적 이론체계를 정립시킴과 동시에 향토문화의 맥락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해 봄으로써 옛 것이라고 다 낡은 것일 수만은 없는, 살아 움직이는 덩어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통의식의 기틀을 다지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 2. 俗談의 屬性

俗談의 속성은 일차적으로 그 명칭과 語義의 파악에서 비롯된다. 중

---

1) 編者가 채록한 400여편의 속담을 해설한 향토속담집으로는 최초의 것이다. 발간에 앞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담일 수 없거나 전국통용의 속담도 방언으로 된 것이면 그대로 수록해 놓고 있어서 본도 속담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리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金榮敦,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제주대학논문집」 제10집, 제주대학, 1978.

국의 영향에 의한 〈諺·諺語·俚諺·俚語·俚言·俗諺·鄙諺·方言·常言·상말·상소리〉등 명칭도 다양하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俗談이란 명칭은 光海君 13년(1621) 柳夢寅의 「於于野談」에 ‘俗談 朝鮮工事三日’이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英祖 24년(1748)의 「同文類解」와 正祖元年(1777) 「明義錄諺解」에 한글로 ‘속담’이라고 표기된 것을 토대로 할 때, 17·8세기 무렵부터 점차적으로 통용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4)</sup> 이보다 앞서 崔世珍은 「朴道事」의 ‘常言’을 ‘상내말씀’으로 번역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두루 쓰이는 常用談이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鄙俗諺으로 취급했던 〈상소리·상말·결말·덧말〉을 포괄하는 해석으로 추정된다.

이들 명칭과 관계된 어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卑俗性和 自尊性이 양립되고 있다. 〈俚諺〉의 字解와 어원은 康熙字典에 俚는 ‘野人歌曰俚’라 하고 鄙俗이란 풀이가 달렸으며, 司馬遷의 贊에 ‘質而不俚’란 문구에 대해 司馬貞은 ‘俚即鄙也’라고 했고, 禮志의 ‘詞旨俚淺’은 俚를 鄙(더럽고)와 賤(낮은 것)이란 의미로 쓰였다고 했다. 또 諺은 廣韻에서 ‘俗言也’, 傳에는 ‘俚語曰諺’이라 하여 경멸의 의미로 삼았다. 반면에 說文의 ‘諺傳言也’라던가, 文心雕龍에 ‘諺者直語也’, 左傳의 ‘諺所謂老將至而耄及之’, 王彥章傳의 ‘彥章當爲俚語’, 蘇軾의 詩에 ‘不惜陽春和俚歌’ 등은 좋은 의미로서 古賢들도 俚諺을 존중했다는 것이다.<sup>5)</sup>

〈方言·常言〉인 경우도 方은 陋巷을, 常은 상스러움을 나타내는 外延性과는 달리 예사롭고 밋밋한 것이라는 字義도 지니고 있다. 그러니, 方言과 常言의 기반은 通俗性이 내재되고 있다. 따라서, 〈상말·

3) 玄容駿, ‘濟州島民謡의 俗談的 表現,’ 「詩作業」第二輯, 濟州友生出版社, 1960.

2), 3) 은 속담이 민요에 전용되는 사례를 언급하고 민요와 속담과의 관계가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를 제시해 놓았다.

4) 李基文, 「俗談辭典」, 民衆書館, 1962. p. iv.

金文昌, 「俗談論序說」, 「研究論文」第13輯, 江原大學校, 1979. p. 99.

5) 李殷相, 「俚諺의 意義와 및 그 形式에 關하여」, 東光 第十号, 東光社, 1927. p. 232.

#### 4. 1. 序 論

상소리〉는 품위가 없는 저속한 말로 풀이되지만, 일부 속담 중에 그 소재나 내용이 음란하거나 비속한 것이 겨 있는 데 비롯된 것일 뿐, 그 기저에는 웃음이 있고 叱責이 있어 快味를 자아냈다.

그 한 예로, 洪萬宗의 「旬五誌」에 權鞵이 비를 만나 어느 座首宅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한 詩客이 잔을 따르면서 너는 글을 짓지 못한다 하니 俗諺 비슷하게 말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술자리를 즐겁게 해보라고 한 대목이 있다. 여기서 俗諺이라 함은 유식자의 詩句는 못 되지만, 의미있는 해학적인 言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당시 巷間에는 꽤 俗談이 널리 유포되어 일반대중들이 즐겨 쓰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대체로 俗諺의 유래는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曾氏傳에 보면 ‘人莫如其子之惡 莫如其笛之頑’이라 하였고…… 이런 등등의 말은 모두 옛 鄙諺에서 나온 말로서, 이것은 성현도 취해서 이용하고 辯士들도 빌어서 비유하는 데 이용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비록 옛 사람들의 비루한 데서 나왔지만 그 뜻만은 통하기 때문이다.”<sup>6)</sup>

이것은 당시의 俗談의 정채와 실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낸 것인데, 대체로 俗談을 비루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리에 합당한 진리가 스며 있기 때문에 성현도 이용했고, 辯士들도 화술적 기교를 위해 비유로 활용하였으니, 이것은 俗談의 효험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高談峻論을 이상으로 하는 상류식자층에서는 비루한 것으로 보고 경멸했다. 그러나, 사회의 기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민대중에게는 통속적 보편성을 띤 공감대로서의 활력이 넘치는 通俗語였다.

서양의 경우를 보면, 영어의 Proverb는 라틴어 Pro(前·公)와 Verbum(詞)의 합성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하는 말(前行言詞, 公

6) 洪萬宗, 「旬五誌」 下卷, 「洪萬宗全集」, p. 111.

“夫俗諺之來古矣 曾氏傳曰 人莫如其子之惡 莫如其笛之頑……此等語皆出於鄙諺 而聖賢取而用之 辯士借而爲喻 豈不巨言雖鄙 而義則通也.”

行言詞)’에서 유래된 것이고, 독일어 Sprichwort의 어의도 ‘잘 쓰이는 말’, ‘입에 잘 오르는 말’, ‘常用語’, ‘常套語’란 뜻으로 쓰였다.<sup>7)</sup>

이렇듯 俗談에 대한 여러 명칭과 어의를 통해서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 대충 그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卑俗性, 通俗性, 共感性이다. 이 중에서 통속성과 공감성은 俗談의 속성을 밝히는데 핵심골격을 이룬다. 한국속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검토해 보더라도 그 초점은 형태와 기능에 입각한 簡明性, 比喻性, 敎訓性, 通俗性, 共感性 등에 귀착되고 있다.

李殷相<sup>8)</sup>은 俗談의 4요소로 1) 短形(shortness) 2) 意義(sense) 3) 鹹味(salt) 4) 通俗性(popularity)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17세기 영국의 문학가이자 속담수집가인 Howell의 제시한 3요소를 그대로 導用하고 거기에 통속성을 하나 더 첨가시켜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短形이라 함은 簡勁한 표현의 묘를 뜻하는 것으로서 간결해야 기억과 사용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意義라 함은 아무리 簡勁한 短形式 표현이지만 내포된 辭意가 민중의 입에 회자할 만큼 가치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을 뜻한다. 또 鹹味인 경우 短形의 묘와 辭意의 意義가 살아 있다 해도 풍자미와 같은 짜릿한 맛이 없으면 애용하기 어렵고 傳來性도 희박해져 쉬 인멸되고 만다. 이처럼 Howell의 3요소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들만으로는 俗談의 속성을 다 드러냈다고 볼 수 없으므로 通俗性이 더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俚諺 그 自身이 民衆의 產物이요, 民衆間에서 膾炙되어야만 그 存在 意義가 成立되고 效果가 發生되는 이상이면 必然的으로 이 通俗性을 附帶하여야만 할 것이다.”<sup>9)</sup>

7) 李殷相, 前掲書, pp. 232~233.

徐石濱, ‘俗談學研究’, 「朴仁守博士華甲紀念論叢」, 同刊行會, 1974, pp. 325~326.

金文昌, 前掲書, pp. 99~100.

曹喜雄, ‘俗談’, 「國文學新講」, 國文學新講編纂委員會 편, 새문사, 1985, p. 229.

8) 李殷相, 前掲書, pp. 233~234.

9) 李殷相, 前掲書, p. 2433, .

## 6. I. 序 論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논급이다. 俗談에 통속성이 없을 때면 口傳性的 상실, 곧 비전문적 구비문학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고 마는 결과가 된다.

독일의 Friedrich Seiler는 俗談을 “교훈적 요소와 인상적인 표현형식을 가지고 衆人의 입전에 오른 고정된 문구”<sup>10)</sup>라고 규정하고,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1) 교훈적 요소(경향) 2) 통속성 3) 간결한 인상적인 형식 4) 고정된 문장 등 4가지를 들었다. 이것을 李殷相의 4요소와 대비시켜 보면, 〈교훈적 요소: 意義・鹹味〉〈통속성: 通俗性〉〈인상적인 형식: 短形〉은 서로 통한다. 단 고정된 문장이야 한다는 것만 다른데, 이것은 임의로 문장성분을 바꿀 수 없다는 고정불변의 통사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만일 俗談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형태가 허무러질 때 俗談의 意趣가 살아날 수 없거니와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므로 속담의 구실을 못한다. 결국 ‘고정된 문장’이란 속담의 감화력을 드높이기 위한 고유의 磁場으로 해석할 수 있다.

日本人 大島建彦도 俗談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감동력 때문에 민간 문예로서의 技藝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람을 꾸짖는 데, 가르치는 데, 즐겁게 하는 데도 속담의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문예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여러 가지 속담이 민간문예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sup>11)</sup>

---

10) 徐石濱, ‘獨逸俗談管見’, 來醒「朴仁守博士 華甲紀念論叢」, 同刊行會, 1974, pp. 1130~1131. 再引.

“Im Volksmund umlaufende, in sich geschlossene sprüche von lehshafter Tendenz und gehobener Form.”

11) 大島建彦, ‘ことわざ」, 『日本民俗大系10』, 平凡社, 1959, p. 207.

“人を責めるにも, 教えるにも, 楽しませるにも, ことわざの効果は絶大であった. それが人の心を動かすのは文芸と少しも変わりなかった. いわゆることわざが, 民間文芸の一種とされるのも, きわめて当然なことと言ってよい.”

이것은 속담이 감동의 매체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면에서 구송문예로서의 속성과 교육수단으로서의 교시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가와 지방관리가 風謠를 채록하여 정치의 得失을 관찰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는데, 사회의 동요와 역사의 轉變이 있을 때마다 謠諺은 대중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되므로 先知와 예언으로 받아들였다.<sup>12)</sup> 여기서도 속담이 지닌 교훈성, 통속성, 공감성을 그만큼 중요시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比喻性이다. 俗談은 비유를 통해서 직접·간접으로 어떤 사실을 言述해 낸다. 沈在箕는 속담의 정의를 “어떤 事實을 比喻로 敍述하는 데 쓰이는 慣用語句”라 하고, 기본적인 의미기능은 어떤 특정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sup>13)</sup>

이렇게 볼 때 俗談은 형태적 기능요소로서는 簡明性, 의미적 기능요소로서는 敎訓性, 通俗性, 共感性, 比喻性 등 5가지 속성을 주축으로 당대를 살아 온 선인들이 時勢에 대응했던 생태를 표출한 구비문학이라고 하겠다.

### 3. 濟州島俗談의 背景

本島의 生成과 居住人의 등장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근간에 이르러 차츰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耽羅國王世紀」에 나타난 三姓說話의 三神人 중 高씨 시조인 高乙邦王의 帝位年代가 唐堯의 甲辰이고 檀君 戊辰에 해당하는 BC 2356년이라 한 것을 근거로 하면, 古朝鮮에 상응하는 역사를 가졌다고 하겠다.

12) 朱介凡, 「中國風土謠語釋說」, 天一文化社, 民國五十一年, p. 1.

“在中國 更有國家和地方官守採錄風謠 以觀政治得失的傳統作法. 每達社會動盪 歷史轉變的時際 謠諺更是大衆意見的反映 作爲先知與豫言而存在”

13) 沈在箕,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冠嶽語文化研究」 第七輯, 서울大學校國語國文學科 1982, p. 216

## 8. I. 序 論

<sup>14)</sup> 실제 고고학적 측면에서도 제3기의 지각변동을 거쳐 제4기인 구석기 시대에 이르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北濟州郡 涯月邑 於音里에 있는 〈빌레못굴〉에서 출토된 황곰뼈와 석기류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sup>15)</sup> 그보다 더욱 신빙성 있는 유물자료가 1986년 6~7월 제주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北濟州郡 朝天邑 北村里에 있는 〈고두기언덕〉에서, 신석기→청동기→철기→삼국시대로 이어진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선사시대의 토기, 석기, 골각기 등 다양한 생활용구 500여 점이 발굴된 사실이다. 이로써 本島의 인류사는 BC 2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므로 韓半島와 맞먹는 연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本島의 생활여건은 불우했다. 環海天險의 척박성과 악천후의 입지성, 苛歛誅求와 外人의 侵奪에 부대낀 내우외환의 역사적 현실은 수난과 노고의 명예를 덮어 씨웠다. 바로 이와 같은 입지적 풍토성과 역사적 환경여건이 本島俗談의 형성배경을 이루고 있는 바, 이에 관한 史料를引出해 봄으로써 그 윤곽을 살피고자 한다.

### (1) 立地姓

火山灰土의 척박한 지질과 地表水의 不在현상은 食水難과 발농사의 고답움을 가중시켰다.

“한라산과 고을 땅에는 샘물이 매우 적었고, 村民은 5리의 거리에서 물을 길면 가까운 물이며, 종일 한두 번밖에 길어 나르지 못하기도 하고 짠 샘이 많다. 길어나르는 데는 반드시 나무통을 지고 다니는데(여자가 많이 지고 다님) 이는 많이 길어가자는 것이다.”<sup>16)</sup>

14) 「耽羅星主遺事」,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 1979, p. 264.

15) 「濟州道誌(上)」, 濟州道, 1982, p. 25.

16) 金 淨,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 11.

“漢肇山及邑州地 泉井絶少 村民或汲水於五里 則謂之近水 或有終日一汲二汲 而多鹹泉 汲必以木桶負行(凡什物多女負行) 取多汲也.”

“땅에 암석이 많아 흙은 두어 치만 덮이고 가볍고 건조하기 때문에 밭을 개간하고서는 반드시 우마를 몰아서 밟는다. 또 목면과 삼이 생산되지 않으며 衣食이 다 모자라 오직 해산물을 캐어서 생업을 도왔다. …… 평토는 절반도 되지 않아 밭을 가는 자는 고기의 배를 에는 듯한다.”<sup>17)</sup>

惡天候인 三災(風·水·旱)의 피해도 막심했다. 光海君(1608)부터 韓日合邦(1910)까지만 해도 흉년의 회수가 70회에 달했다니,<sup>18)</sup> 4년에 한번 꼴로 흉년을 당한 것이 된다. 특히 風水害는 농작물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자급자족이 여의치 못한 식생활에 결정타를 가했다.

“英祖 40년(1764) 가을 큰물이 저서 인가가 떠내려 가고 백곡이 절종하였다. …… 英祖 41년(1765) 봄에 큰 기근으로 죽은 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는데, 왕이 듣고 크게 놀라 祭文을 스스로 짓고 목사로 하여금 제단을 세워 제를 지내도록 했다.”<sup>19)</sup>

## (2) 歷史性

천연적 여건이 불리한 데다 인위적 여건인 지배층의 피압과 수탈, 異民族의 침탈은 곤욕과辛苦의 산실이였다.

“생복을 잡아다가 소증의 역에 임하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衣食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의 艱苦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물염

17) 金尚憲, 『南嶺錄』, 前掲 耽羅文獻集, pp. 51~52.

“地多岩石 鋪土數寸 土性浮燥 墾田必驅牛馬以踏 又不產木綿麻桑 衣食俱乏惟採海物以伸生業……平土無半畝 耕者如挑剔魚腹”

18) 金宗業,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세미나 主題發表要旨, 濟州道文化財課, 1979, p. 17.

19) 金錫翼, 『耽羅紀年』, 前掲 耽羅文獻集, p. 414.

“英祖四十年 秋大水 漂沒人家 百穀絕種……英祖四十一年 春大飢 死者萬餘人 王聞而大驚 親製祭文以下 令牧使設壇醑之”

## 10. 1. 序 論

치한 관원이 있어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명목을 교묘히 만들어 징색하기를 수없이 하므로 일년의 소업으로는 그 역에 응하기 부족하다. 하물며 官門에 輸納의 고통과 吏胥의 舞弊의 폐가 끝이 없으니 무엇으로써 의식의 資를 바라리요. 이런 까닭에 만일 탐관을 만나면 참너들은 거지가 되어 얻어 먹으러 돌아다닌다.”<sup>20)</sup>

“舊俗에 남자 15세 이상되는 자는 일년에 콩한 섬을 바쳤고, 衙吏 수백인이 각기 1년에 말 한 필을 바쳤다. 부사와 관관은 이것을 나누어 받은 까닭에 守宰는 비록 가난한 자도 치부하였다.”<sup>21)</sup>

대외적으로는 蒙·明·倭寇의 침탈도 民苦를 가중시켰다. 蒙古는 三別抄軍의 정복을 계기로 牧馬場으로 強點한 후 3회에 걸쳐 본국에서도 적과 범죄자 170여 명을 本島에 방치하여 거주케 하였다. 또한 牧胡들은 그들대로의 행패가 심해 島民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작폐를 가했다.<sup>22)</sup> 그 뒤를 이은 明도 耽羅의 好馬 2,000필을 공납토록 강압했으나, 300필만을 헌납한 것도 그 한 예이다.<sup>23)</sup> 倭寇인 경우도 고려 忠惠王 2년(1341) 旌義縣을 시작으로 이조 光海君 6년(1614)까지 20여 회를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침입하여 온갖 약탈과 추행, 살륙을 강행했다.<sup>24)</sup> 이를 막기 위해서 男丁은 軍役과 賦役에 동원되어야만 했고, 여

20) 李 建, 「濟州風土記」, 前掲 耽羅文獻集, p. 198.

“生饅之捉亦之 如是採取 應官家所徵之役 以其所餘典賣衣食其爲 生理之艱苦已不足言 而若有不廉之官 恣生貪污之心 則巧作名目 徵索無等 一年所業不足 以應其役況官門輸納之苦 吏胥舞弊之弊 罔有紀極 又何望其衣食之資乎 由是之故 若值貪官則所謂潛女鬻 未有丐乞者云.”

21) 金錫翼, 前掲書, p. 356

高宗四十六年(1259). “舊俗凡男 年十五以上者 歲貢豆一斛 衙吏數百人亦各歲貢馬一匹 副使判官受而分之 故守宰雖貧皆致富.”

22)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紀文化社, 1982, p. 35.

23) 高昌錫, 「元·明 交替期の 濟州島」, 「耽羅文化」第4号,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 16.

24) 玄平孝外, 「耽羅精神研究」, 「濟州大學論文集」第11輯, 1980, pp. 35~36.

자는 貢布와 軍布를 짜서 공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생계에 위협을 받아 離島현상이 속출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仁祖는 국법으로 정하여 本島民의 出陸을 금지시킨 후 純祖末까지 200년간 해제되지 않았다.<sup>25)</sup>

이런 가운데도 독자적 문화권으로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耽羅國으로 건재하면서 삼국시대까지 다져진 土着性으로 말미암아, 고려시대의 耽羅縣과 李朝시대의 濟州牧으로 연속되고 난 후에도, 계속 풍토성에 알맞은 습속과 생활문화의 창출이 외래문화에 쉬 동화될 수 없는 저력을 가졌던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本島의 환경 여건은 島民들로 하여금 억척같이 생을 개척할 수 있는 자립의지와 克己心을 체득하게 하였고, 그에 걸맞은 향토문화와 함께 俗談을 형성시킨 배경이 되었다.

#### 4. 研究의 範圍

俗談은 간명성, 교훈성, 비유성, 통속성, 공감성 등 5가지 속성을 골격으로 선인들의 생활상이 반영된 구비문학이라고 하지만,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연구에 임할 것인가. 사실상 俗談은 엄격한 개념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양식이 아니라, 하나의 긴 설화적 이야기로부터 경구적 片言雙句에 이르는 포괄적 관용구로 전승되어 온 표현양식이라고<sup>26)</sup> 한 점과, 어떤 사실을 비유로 서술하는 데 쓰이는 관용구라고<sup>27)</sup> 한 二元性을 유념해 볼 때, 그 한계에 따른 영역설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시 말해서 광의적으로 다룰 것이냐 협의적으로 한정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 金泰能, 前掲書, pp. 52~53.

26) 沈在箕, '俗談의 意味機能에 대하여',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1977, p. 146.

27) 沈在箕,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冠嶽語文研究」第七輯, 서울大學校國語國文學科, 1982, p. 218.

## 12. 1. 序 論

광의에서 보면, 故事成語類, 格言類, 俗信語類, 才談類 등을 포괄시킬 수 있고, 협의에서는 광의에 해당하는 것을 俗談의 5가지 속성에 입각하여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俗談이란 당대의 習俗과 세태에 대응해 온 선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慣用談으로서 불문율적인 敎條性을 지니고 있는 생활훈의 하나라는 점이다. 거기에 후인들이 현대적 시각을 가지고 규범을 붙여 어떤 典型性을 부여하는 것은 俗談연구의 한 방법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을 고집할 경우 俗談의 本領을 그릇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대적 의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상황의식을 전제한 현대적 인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俗談으로서의 기능의 생동여부는 현재의 인식을 토대로 한 시각의 차이일 뿐, 아무리 현대에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있어도 당시는 유효적절히 통용되는 民俗語로서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적 안목만 가지고 가치판단을 내릴 때 과거의 현실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옛 사람이 쓰던 관용담이라고 해서 그대로 그 전부를 俗談으로 수용하기에는 너무 무절제하고 벅찬 일이다. 현대적 시각과 과거라는 時空意識과의 조화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그 조화점을 찾는 데 있어 난제는 俗信語類에 있다. 분명 속신어도 俗談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속담과 분리시켜 별개의 민속어로 취급하는 이유는 영속적 보편성이 결여된 습속과 土俗信仰의 관념을 담고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현대적 인식이고 당대에는 교시적이고 효험성을 띤 감화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같은 속신어를 俗談으로 재수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시한 속담의 속성을 적용시켜 다음과 같은 선별과정을 거친다면 禁忌談, 吉凶談, 豫兆談 중에 많은 양의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 ① 뱀 때렸던 막대기는 건드리지 말라.  
 ①a

② 동넛집 초상나면 머리 안 감는다.

① ②는 禁忌談이지만 ①은 俗談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은 더 할 나위 없이 막된 사람을 비유함으로써 간접적인 우회공격의 言述機能이 살아나면서 두루 통할 수 있는 통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속신어 계통의 本島俗談들은 형태면에서 대부분 특수형으로서 향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俗信型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고사성어류, 격언류, 재담류 등은 별문제가 없다. 격언류는 俗談과 구별될 수도 있지만, 전부 속담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재담류도 풍트와 같은 長文이 아닌 한, 단형의 語戲形이나 위트가 담긴 〈쓰니 시어머니〉, 〈소라껍질 까먹어도 한 바구니 안 까먹어도 한 바구니〉와 같은 言述形은 속담이 된다. 고사성어류인 경우도 본도에는 별로 없지만, 이를테면 塞翁之馬를 〈복이 흉이 되고, 흉이 복이 된다〉라고 언술하면 俗談이 되지만, 만약 〈변방에 있는 할아버지의 말〉이라고 하여 내력담을 부연시켜야 할 때에는 속담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俗談의 한계와 영역을 기준으로 속신어의 일부를 수용하고,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채록한 1,200여 편을 李基文 氏 「俗談辭典」(民衆書館, 1962)에 대비시켜 本島俗談일 것으로 추정되는 550편을 선별하여 연구자료로 삼았다.<sup>28)</sup> 이들 자료는 목차에 드러난 표제대로 형태와 표현, 소재와 직능, 경세관·생계관·운명관을 유개념으로 한 15개의 소주제로 분류분석시켜 本島俗談의 배경과 성향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8) 선별기준은 대비용「속담사전」에 ① 수록돼 있지 않은 본도에 통용되고 있는 것.

② 내용은 같더라도 그 표현형태와 소재가 달리 드러난 것 ③ 본도방언으로 병기된 것 등을 대상으로 했다.

## II. 濟州島俗談의 形態

俗談을 일컬어 ‘날개 달린 말(Geflügelte Wort)’이나, ‘주인 없는 재산(Herrenlose Gu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俗談이 그만큼 통속성이 강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화가 있는 곳이면 바늘 가는 데 실 따라 가듯이 부담 없이 활용됨으로써 언어생활의 潤滑油 구실을 한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빈부귀천은 물론 유·무식이나, 전문·비전문이 따로 없이 일상생활에서 두루 쓰인다. 또한 時空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적재적소라고 생각되면 公과 私를 막론하고 즉석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慣用的 통속성과 傳播力에서 그 어느 구비문학보다도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俗談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그 형태와 기능이 복합된 구조적 특성에 있는 것이다. 序論의 〈俗談의 屬性〉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Howell이 내세운 3요소 중 ‘간결(shortness)’이나, Friedrich Seiler가 그의 저서 「獨逸俚諺學 : Deutsche Sprichwörterkunde, 1922」에서 제시해 놓은 4가지 특징 중의 하나인 ‘간결한 인상적 형식’을 비롯한, “교훈적 요소와 인상적인 표현형식을 가지고 衆人의 입에 오른 고정된 문구”라고 한것은 모두가 俗談의 형태가 지니고 있는 독자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李殷相도 Howell의 3요소에 동조하면서 俗談은 음성의 快味로부터 기억의 편의를 얻기 때문에 諺形이 詩形과 같은 배치로 되었다고 했고<sup>29)</sup>, 沈在箕는 통사구조인 외형구조와 의미구조를 분석검토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한 뒤, 형식구조의 특성으로 운율적 조화와 통사적 구조를 중시했다.<sup>30)</sup>

29) 李殷相, 前掲書, pp. 233~234.

30) 沈在箕, 前掲「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pp. 223~226.

이렇듯 俗談은 간편한 형태를 통해서 짜릿한 자극과 인상적인 뉴앙스로 짜여진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속담의 구조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은 속담연구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선학들에 의해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다음 〈形態의 檢討〉에서 논의하겠지만, 분류의 관점과 그 유형의 명칭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여 외형구조면에서라도 보편화시킬 수 있는 유형의 설정과 그에 따른 명칭도 고려되어야 할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비록 제주도 속담의 형태라는 향토성을 띤 한정적 논제이지만, 한국속담으로 확대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유념하면서 550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一般型和 特殊型을 상위형으로 하는 9개의 하위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각 유형별 형태의 命名化를 시도했다.<sup>31)</sup> 다만, 修辭와 律格에 따른 형태는 표현수법인 기교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章을 달리 한 〈Ⅲ. 濟州島俗談의 表現〉에서 다루겠다.

## 1. 形態의 檢討

한국속담학에서 형태분류를 1985년 현재 필자가 입수한 목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二大領域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의미구조와 외형구조가 그것이다. 이들 두 영역에 대한 선학들이 밝힌 論考의 골격을 간추려 본 다음, 종합적으로 구체적 검토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들춰 보겠다.

31) 속담의 유형에 대한 기존명칭들은 전부 구조식에 의한 A형·B형·C형·D형·E형이라고 했거나, A+A형·B+B형·A+B형 등과 같이 명명되고 있어, 이들 명칭만 보고는 어떤 내용의 형태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 명칭을 통용어화함으로써 그 명칭을 보면 어떠한 내용구조로 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명명해 놓았다.

## (1) 意味構造의 領域

李殷相은 속담의 통속성을 고려하여 그 민족의 습속에 의한 것과 인류 전반에 상통하는 것으로 양분하고, 전자를 特殊俚諺, 후자를 共通俚諺으로 다루었는데, 특수이언인 경우 〈지리적 발생의 이언, 전설적 발생의 이언, 인명·물명적 발생의 이언, 습속적 발생의 이언, 史乘·제도적 발생의 이언〉 등 5가지 형태로 분류했다.<sup>32)</sup> 姜在哲은 설화와 연관된 俗談인 경우에 그 근원설화의 발생원리에 입각하여 설화가 먼저 있고 그에 따라 속담이 형성되었으면 先說話後俗談型, 속담이 먼저 있고 설화가 형성되었으면 先俗談後說話型으로 분류시켰다.<sup>33)</sup> 이들은 속담의 발생을 그 형성요인과 배경에 두고 있다.

金思燁은 역사적 구분에 의한 〈上古諺, 中古諺, 近古諺, 近世諺, 現代諺〉으로 그 분류관을 제시하면서도 時空的 한계가 불분명함으로써 그 시행이 어렵고, 실제로는 〈普通諺, 道諺, 郡諺, 鄉諺, 外來諺〉 등 5가지 유형을 예시해 놓고 있다.<sup>34)</sup> 이것은 속담의 의미구조를 共時性에 결부시킨 분류체계인 것이다.

金道煥은 한국속담을 심리적으로 분석하여 〈嘲弄型, 攻擊型, 恨歎型, 教導型, 指示型, 要求型, 慰勞型, 告知型, 語戲型〉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sup>35)</sup>, 이것은 속담에 드러난 심리적 구조에 기반을 둔 것이다.

32) 李殷相, 「特殊俚諺과 共通俚諺」, 『東光』第十三号, 東光社, 1927, pp. 598~607.

33) 姜在哲, 「韓國俗談의 根源說話」, 白鹿出版社, 1970, pp. 24~27.

34) 金思燁, 「俗談論」, 大建出版社, 1953, pp. 26~27.

35) 金道煥, 「한국속담의 심리적 분석연구」, 『師大論文集』第2輯, 釜山大師大, 1975, pp. 223~244.

金宗澤은 5가지 유형을 설정했는데<sup>36)</sup>, 이것은 한국속담을 의미구조별로 구분하여 그 형태를 유형화시킨 것으로는 최초의 구조식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 유형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으니, 외형구조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張德順의 3인도 의미표현구조를 중심으로 5가지 유형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sup>37)</sup>, 金宗澤의 분류체계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金善豐은 외형태, 내형태, 수사태 등 三態로 나뉘 분류하고 있는데, 외형태는 외형구조의 영역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내형태와 수사태를 보면, 내형태는 주제와 통사적 구조를 고려한 5가지 기본유형과 9

36) 金宗澤, '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 研究', 「국어국문학」, 34·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pp. 70~76.

"A型: 意味材a+意味材a'(a와 a'는 언어재료만 다를뿐 지향하는 의미주제는 같은 것이다.)

B型: 意味材a×意味材b(a와 b는 각기다른 성질의 것으로 별개의 의미를 형성한다.)

C型: 材料材a+意味材b(의미제 b는 재료제 a와 결합함으로써 속담의 기능을 발휘한다.)

D型: 材料材a×材料材b(a와 b는 하나만으로는 주제의미가 표시되지 못하고, 둘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E型: 意味材a(단어형태나 단문으로 이루어 진다.)

\* +는 단순결합, ×는 복합결합"

37) 張德順의,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pp. 195~198.

"A型: 간단한 단어나 어구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는 속담이다.

A+A型: 개별적 의미를 중첩함으로써 속담의 기능을 발휘하는 형이다.

A+B型: 전후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뒷부분이 강조된다.

B型: 문면자체의 의미가 그대로 속담의 기능을 발휘한다.

B+B型: 전후 대우관계에서 뒷부분이 강조되는 수가 많으나, 때에 따라서 바뀌어질수도 있다."

가지 변칙형을 설정했다.<sup>38)</sup> 수사태인 경우도 13개의 수사법을 적용하여 분류해 놓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속담의 유형분류를 종합적으로 수용시킨, 포괄적이며 다각적인 분류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내형태에서의 유형이 14개나 되어 혼란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 검토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沈在箕는 외형구조와 의미구조로 이대별하고 의미구조에서의 분류방향을 ① 의미갈등에 의한 의미속성의 상대성과 점층성 ② 표현의미와 기본의미의 구분 ③ 話用論의 함축미 등으로 제시하고<sup>39)</sup>, 이것을 중심으로 화용론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 (2) 外形構造의 領域

李殷相은 조선가요의 기본인 四四調를 중심으로 한 운율면에 주안점을 두고 〈四四調類, 七五調類, 一句成調의 類, 混調의 類〉등 4가지로 분류했다<sup>40)</sup>. 金思燁도 口調에 맞고 傳唱하기 쉬운 것은 기억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빨리 사방으로 유행되는 까닭에 〈四四調, 三三調, 五五調, 三三五調(아리랑調)〉와 같은 古詩類型을 적용시켰다<sup>41)</sup>.

38) 金善豐, '俗談', 『韓國民俗學大觀 6』,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2. pp. 563~578. ※ 변칙형은 揭載書 참조(복잡하므로 생략)

|   |   |   |     |                                                  |   |                                                  |   |                     |
|---|---|---|-----|--------------------------------------------------|---|--------------------------------------------------|---|---------------------|
| 기 | 본 | 형 | A형: | $\begin{array}{c} a \\ \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 | $\begin{array}{c} \text{Zero} \end{array}$       | = | $a + \text{Zero}$ 형 |
|   |   |   | B형: | $\begin{array}{c} a \\ \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 | $\begin{array}{c} b \\ \text{종속의미부} \end{array}$ | = | $a + b$ 형           |
|   |   |   | C형: | $\begin{array}{c} b \\ \text{종속의미부} \end{array}$ | - | $\begin{array}{c} a \\ \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 | $b + a$ 형           |
|   |   |   | D형: | $\begin{array}{c} a \\ \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 | $\begin{array}{c} a \\ \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 | $a + a$ 형           |
|   |   |   | E형: | $\begin{array}{c} a \\ \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 | $\begin{array}{c} a \\ \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 | $a' + a$ 형          |

39) 沈在箕, 前掲『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위하여』, pp. 223~230.

40) 李殷相, 前掲『俚諺의 意義와 其 形成에 關하여』, pp. 236~238.

41) 金思燁, 前掲書, pp. 20~23.



A형과 D형의 구분이 모호하다. 서로 바뀌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A형과 B형을 비교해 볼 때도, A형의 속담은 단일주제의 것이고 B형의 속담은 두 개의 주제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견해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B형과 C형을 놓고 보더라도, ㉔와 ㉕의 語尾의 차이가 있을 뿐 뚜렷한 구분이 안 된다. 또 C형에서 ㉔와 ㉕는 그 위치가 바뀌진 것으로 보고, 정상의 배열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소재인 ㉔가 ㉕의 위치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속담을 사용하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는 ㉔와 ㉕는 그 위치에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후반부인 ㉕의 위치가 반드시 주제부가 있어야 할 자리로 고정시키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속담을 의미기능별로 구조적 형태의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형태연구의 진전이었다.

張德順의 3인에 의한 5가지 유형의 例示를 보면<sup>45)</sup>,

A형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A+A형 :  $\frac{\text{나무에도 못 대고}}{\text{㉠}}, \frac{\text{돌에도 못 대고}}{\text{㉡}}.$

A+B형 : 물이 아니면 건너지 말고 ,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 .  
                     (a)                                         (b)

B형 : 재떨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

B+B형 : 밤잔 원수 없고, 날새 은혜 없다.  
          (a)                         (b)

A형과 B형은 외형구조상 같은 文型으로 볼 수 있으나, A형은 암시적이고 B형은 직서적이다. A+A형, A+B형, B+B형은 對偶관계로

45) 張德順 외, 前掲書, pp. 196~198.

된 외형구조는 같지만, 의미기능의 구조로 볼 때는 A+A형은 ㉠과 ㉡가 겹쳐져야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A+B형은 ㉠과 ㉡의 표면의미가 직접적이고, B+B형은 ㉠과 ㉡의 위치 변화에 따라 의미기능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A+B형과 B+B형은 의미구조나 외형구조에서 별차이를 느끼지 못함으로써 동일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의미구조로 분류하고, 어떤 것을 외형구조로 분류할 것인가의 혼란이 생기게 되므로 이들 유형분류의 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金善豐<sup>46)</sup>에 의한 외형태, 내형태, 수사태의 三態別 분류는 다각적이고 명확한 한계를 그은 것이므로 분류에 혼란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수사태에 의한 분류는 의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교상의 문제이므로 〈Ⅲ. 濟州島俗談의 表現〉에서 다루기로 하고, 외형태와 내형태에 의한 유형분류의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다.

외형태서의 시가형과 민요형은 운율구조로 보아 문제가 안 되지만 설화형인 경우는 문학성과의 연관외에는 외형구조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외형태로 설화형을 설정할 수 있겠으나, 내형태에서는 언어학적인 구조인 통사론과 의미기능의 구조를 배합한 분류로서 모두 14개의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도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것보다는 집약화되고 간명화된 분류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俗談의 언술구성이 단일주제부로 되었거나, 또 두개 이상의 대우관계로 되었으면 短型인 기본형으로 보고, 복·중문의 관계로 되었으면 長型인 변칙형으로 보아 그 유형을 설정하였는데, 이들 기준을 가지고 기본형이니 변칙형이니 구분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14개의 유형으로 복잡화된 것은 주제의미부, 부주제의미부, 종속의미부의 설정에 따른 전후배열에서 오는 결과이다.

이러하면, <자식은 제 자식이 좋고, 곡식은 남의 곡식이 좋다>에서,

㉠

㉡

46) 金善豐, 前掲書, pp. 563~578.

㉔를 주제의미부로, ㉕를 종속의미부로 보고 있는데, 人事가 아닌 농사와 관계된 상황에서 이 속담을 적용하면 ㉕가 주제의미부가 되고 ㉔는 종속의미부이거나 부주제의미부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굳이 ㉔가 주제의미부이고 ㉕는 언제나 종속 내지 부주제의미부라는 고정관념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㉔와 ㉕의 위치문제도 그렇다. 주제의미부인 ㉔가 앞뒤 중 어느 일정위치에 한정시킬 수만도 없다. 위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집약화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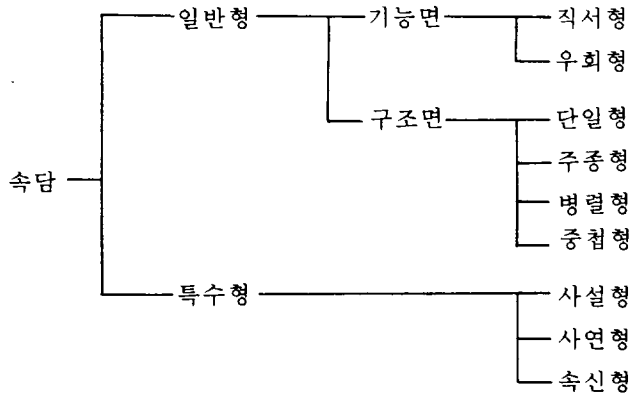
결국 한국속담에서 형태분류에 따른 유형설정의 체계는 의미기능적 구조와 외형구조가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해결과제로 부각된 것은 이들 두 골격을 어떻게 하면 좀더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분류체계를 보완할 것이며, 그에 따른 유형별 명칭도 구조식을 상징하는 기호화가 아닌 통용어로 명명할 것인가에 귀착된다고 본다.

## 2. 形態의 分類

前掲한 선학들의 유형분류를 참고한 다음, 이들 유형을 선별조정하고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시켜야 할 점을 겨냥하여 필자의 管見을 중심으로 유형설정에 임하였다. 아울러 각 유형별 命名도 시도하였다.

분류의 체계적 단계설정을 위하여 우선 550편의 俗談을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二大別했다. 이것은 속담의 통속성에 따른 話用論的 기능을 일차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 二大上位型을 주축으로 다시 하위형을 설정해 나갔는데, 그 분류의 체계와 양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특수형은 그 형태상의 외형구조는 일반형에 포함시켜 분류할 수도 있지만, 本島俗談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 별도로 선별하여 분류시켰다.



## (1) 一般型

일반형이라 함은 그 俗談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의미전달에 장애요인이 없는 俗談群을 총괄한 것이다. 대부분의 속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형성과정이나 요인의 해명 없이도 터득되는 속담이다. 550편 중 499편에 이른다.

① 물 한 디서 물 못 골린다.

(말 많은 데서 말 못 고른다)

② 물 아래 삼년, 물 위 삼년.

(물 아래 삼년, 물 위에 삼년)

①의 俗談은 누구든지 물건이 많은 곳에서는 좋은 물건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활용되는 것임을 알게 되지만, ②의 俗談인 경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속담은 海女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바쳐야 하는 괴로운 삶의 표현임을 모르고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②와 같은 부류의 속담이 아닌 ①의 속담과 같이 의미전달에 장애요인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담일 때,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형

으로 다루었다. 이들 일반형의 俗談群은 또 의미전달의 기능면과 구조면에 따라 하위형들로 구분된다.

#### A. 機能面

俗談은 言衆의 인식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표현방법은 직접 아니면 간접 중 어느 하나의 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시 말하면 속담의 기능적 역할은 그 의미전달에서 직접적인 표현형태와 간접적인 표현형태 중 어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접적인 형태의 것을 直叙型, 간접적인 형태의 것을 迂廻型이라고 했다. 물론 이 두 유형에 수사적 기교가 작용함으로써 여러 修辭態가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현기교상의 형태일 뿐 俗談 본래의 기능적 역할은 오직 직서적이거나 우회적인 것 중 어느 하나일 수밖에 없다.

##### 1) 直叙型

단도직입의 표면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속담이면 어떤 구조나 수사태로 되었던 간에 전부 직서형이 되는데, 550편 중 270편으로 49.09%에 이르고 있다.

##### 〈例示〉

- 깨 장시 물 장시 먹어사 먹었젠 혼다<sup>47)</sup>.  
(깨 장사 말 장사 먹어야 먹었다고 한다)
- 늬이 집광 관장살인 케던 밥도 두엿 간다.  
(남의 집과 벼슬살이는 풀던 밥도 두고 간다)
- 비바리 오장은 지퍼사 조꼭, 총각 오장은 야파사 쏫나.

(처녀 오장은 깊어야 좋고, 총각 오장은 알아야 좋다)

○ 미운놈 보권 질 나는 밧 버실라.

(미운놈 보려거든 길 나는 밧 경작하라)

○ 초신 아홉(읍)베 끄치명 돌아 온 메뉴리 개가죽 혼 장이 안 싸다.

(짚신 아홉 켄레 꿇기면서 데려온 며느리 개가죽 한 장 가치도 없다)

## 2) 迂迴型

직서형과는 정반대로 간접적이면서 완곡하게 비유함으로써 重義的이고 암시적인 기능을 가진 속담들인데, 직서형보다 약간 웃도는 280편으로 50.91%를 차지하고 있다.

〈例示〉

○ 벨 걸음<sup>ㅅ</sup>당 본 걸음 이른다.

(유별난 걸음걸이 하다가 본디 걸음걸이 잃는다)

○ 켄 놔 시 불 얻어먹나.

(빠른 놔 세 번 얻어 먹는다)

○ 새똥에 엮더지민, 개똥에 코 뎀다.

(소똥에 엮어지면, 개똥에 코 뎀다)

○ 가시어멍 장 옷(엇)인 칸에, 사위 국 실픈 칸에.

(장모 장 없는 판에, 사위 국 싫은 판에)

○ 애비아덜이 물 탕 가민, 이녁 물 메여 텡 아방 물 멘다.

(애비와 아들이 말 타고 가면, 자기 말 메에 두고 아버지의 말을 멘다)

## B. 構造面

통사론을 중심으로 한 외형구조에 따른 분류인데, 그 유형의 명칭을 單一型, 主從型, 並列型, 重疊型으로 명명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통사구조에 의한 구문론적 이론에 일치하느냐인데, 각 유형별 분류과정에서 언급하겠다. 구조상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文의 구성을 매개로 한 외형구조에서 논의되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 무난하다고 본다.

### 1) 單一型

단어 또는 句로 되었거나 單文의 형태로 된 통사구조에 기반을 둔 분류이다. 550편 중 319편으로 58%를 차지한다.

(例示)

○ 개 잡.

(개 값)

○ 영장밭디 떡.

(葬地의 떡)

○ 늘근 쉼 욕물 말뚝 꺾라.

(늪은 소는 여물 마다고 할까)

○ 두라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한다.

(매달은 돼지가 기시린 돼지 타령한다)

○ 으지 웃(엇)인 웨삼춘 삼월 보름 물찌에 죽언 강이 보말도 못 잡아 먹게 한다.

(의지 없는 외삼춘 삼월 보름 무수기에 죽어서 게와 고동도 못 잡아 먹게 한다)

### 2) 主從型

主節과 從節에 의한 주종관계의 의미구조가 성립되는 통사구조에 기반을 둔 분류이다. 이 경우 통사론에서처럼 주절인 후반부에 主題意가



니면 두 개 모두 주어가 생략된 것들이다. 550편 중 72편으로 13.09%에 해당한다.

〈例示〉

A) ○ 허벅<sup>47</sup> 진 이 호이<sup>48</sup>난, 꿩 진 이도 호이<sup>49</sup>한다.

(허벅 진 이 호이하니, 병 진 이도 호이한다)

○ 새털이 하덴 해도, 날이 한다.

(소털이 많다고 해도, 날이 많다)

○ 집안 망하젠 <sup>50</sup>한민, 서당공중이 난다.

(집안이 망할려면, 무당이 태어난다)

○ <sup>51</sup>마음이 고와사, 옷앞섭이 아문다.

(마음이 고와야, 옷앞섭이 아문다)

○ 동지 넘으면, 푸새도 새 <sup>52</sup>마음<sup>53</sup>한다.

(동지 넘으면, 풀잎도 새 마음한다)

B) ○ 동네칩 식개 넘어나민, 사흘 불 안 습나.

(동네집 제사 지내고나면, 사흘 불 안 켜다(지핀다))

○ 비바리 늘거가민, <sup>54</sup>레착 지영 산드레 올른다.

(쳐녀 늘어가면, 매돌짜 지고 산으로 오른다)

○ 유월 발창 사흘 지저우민, <sup>55</sup>마니 누영 먹나.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가만히 누워서 먹는다)

○ 노리케기 혼 점 먹젠 <sup>56</sup>한당, 지 케기 열 점 일른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 제 고기 열 점 잃는다)

○ 돼 속영 풀앗당 죽영 가민, 대코쟁이로 눈 찢렁 췌다.

(돼 속에서 팔았다가 죽어서 가면, 대코쟁이로 눈을 찢어서 췌다)

---

47) 모양이 둥글고 배가 볼록하고 위의 주둥이가 좁은 물을 길어나르는 동이.

## 3) 並列型

외형구조가 對句나 對照로 된 대우관계의 형태를 한데 묶은 분류이다. 활용상황에 따라 전후가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어느 한 쪽에만 主題意를 고정시킬 수 없는 대등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550편 중 67편으로 11.18%를 차지한다.

〈例示〉

- 둥그린 독새긴 병애기 되곡, 둥그린 사름은 쓸매 난다.  
(굴린 달같은 병아리 되고, 굴린 사름은 쓸모가 있다)
- 밍 짝튼 무덤은 서도, 설완 죽은 무덤은 웃(엇)나.  
(명 짝튼 무덤은 있어도, 설워서 죽은 무덤은 없다)
- 아덜 못난 건 혼 집 망꺾곡, 딸 못난건 양집 망꺾다.  
(아들 못난 것은 한 집 망하고, 딸 못난 것은 양집 망한다)
- 큰 일 처난 집 저녁꺾심 싯곡, 큰 굿해난 집 저녁꺾심 웃(엇)나.  
(큰 일 치렀던 집 저녁거리 있고, 큰 굿했던 집 저녁거리 없다)
- 혼 놈 논 득리 열 놈은 건곡, 열 놈 논 득리 혼 놈도 못 건나.  
(한 놈 놓은 다리 열 놈은 건고, 열 놈 놓은 다리 한 놈도 못 건는다)

## 4) 重疊型

외형구조는 並列型和 같게 보이지만 전후 대우관계의 것이, 어느 하나만으로는 개별적 의미를 뚜렷이 살릴 수 없으므로 俗談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대우관계가 중첩적으로 열거됨으로써만이 속담의 기능이 살아나게 된다. 또한 그 외형구조가 반복적 요소와 함께 종결어미가 불필요하다. 550편 중 30편으로 전체의 5.45%에 불과하다.

〈例示〉

- 건지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건더기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 놀당 죽은 염송애기나, 기당 죽은 황밧갈새나.  
(놀다가 죽은 염소나, 일하다 죽은 황소나)
- 드라멘 도새기나, 기시린 도새기나.  
(매달린 돼지나, 그시린 돼지나)
- 예기 어멍 콤은 닷 돼, 예기 업개 콤은 혼 말  
(애기 어머니 품삐은 닷 돼, 애기 돌보는 이 품삐은 한 말)
- 잘하여도 혼 구승, 못하여도 혼 구승.  
(잘해도 한 가지 흉, 못해도 한 가지 흉.)

(2) 特殊型

특수형이라 함은 일반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本島俗談의 특이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되는 550편 중 62편이 그 대상이다. 이들 속담도 그 형태상의 유형구조를 따진다면, 일반형으로 한데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격상 일반형에 낄 수 없고, 또 겨냥을 경우 중복분류의 모순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俗談은 특수형으로 분류시켰다.

- ① 간편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실조의 장형의 것.
  - ② 형성과정과 요인이 파악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연을 지닌 것.
  - ③ 독자적 향토성과 결부된 俗信과 습속을 담고 있는 것
- ① 을 辭說型, ② 를 事緣型, ③ 을 俗信型으로 명명하였다. 일찌기 李殷相도 “史乘·地理·制度·傳說·習俗·人物·物名 등으로 生成된 俚諺—— 오직 朝鮮國民만이 가질 수 있고 가지어야 하는 俚諺, 이런

俚諺을 일컬어 特殊俚諺이라 명명하고……”<sup>48)</sup>라 하여 특수형이 있음을 말한 바 있다.

### 1) 辭說型

사설시조가 평시조의 원형을 깨뜨린 과격형인 것처럼 이 사설형의 속담들도 口傳的 간편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조의 장형을 이루고 있다. 어느 정도 분량의 것을 단형으로 하고 장형으로 할 것인가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20음절이 초과될 때는 장황한 느낌이 든다. 특히 30음절이 초과될 때는 과연 俗談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갈 정도이다. 그러나, 분명히 속담으로 쓰였음을 볼 때, 일단 특수형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李乙煥은 〈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업고 가면서 업힌 애기 가깝해 한다 빨리 걸으라 한다〉를 최장형으로 제시하면서 30음절 전후의 것은 장형으로 보고 있다<sup>49)</sup>. 金善豐은 59음절로 된 〈백년이 잠간이요, 萬世도 바쁜 것이요, 伯夷 叔齊와 盜跖가 羊을 잃기는 마찬가지니 당장에 한번 취하여 시비를 도무지 잊어버리니만 못하다〉를 제시하고 있다

<sup>50)</sup>

그러나, 本島俗談에는 63음절로 된 〈다심어멍 죽언 묻은 딴 소왕이가 소왕소왕 놀을 들런 케젠 ㅎ난 웃음 제완 못 케곡, 원어멍 죽언 묻은 딴 반짓 ㄴ돌이 반질반질 고와도 놀을 들런 케젠 ㅎ난 눈물 제완 못 켜다〉<sup>51)</sup>가 있다. 이것은 본도 勞動謠가 그대로 속담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데,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한국의 最長型의 속담인 것이다. 이렇게 장형이면서도 전후 짜여진 대우관계의 구성을 통해 균형미를 유지

48) 李殷相, 前掲『特殊俚諺과 共通俚諺』, pp. 598~607.

49) 李乙煥, 『韓國俗談의 어·귀·절 유형연구』,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1971. pp. 343.

50) 金善豐, 前掲書, p. 566.

51) 譯語는 〈例示〉 마지막 속담참조.

하고 있다. 어쨌든 사설형은 그 분량면에서 길게 표현됨으로써 함축성이 없고 산만하여 덜 정제된 외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23음절 이상의 것을 일단 장형인 사설형으로 보고 분류해 본 결과 550편 중 22편으로 4%가 된다.

〈例示〉

- 갯서른에 여든난 영감을 만나난, 두 불 시 불 물 던 밥도 씹어 달랜 앙얼  
한다(29음절).  
(갯서른에 여든난 영감을 만나니, 두 번 세 번 물을 던 밥도 씹어 달라고  
줄라댄다)
- 돌 명청은 담이나 담곡, 낭 명청은 불이나 습곡, 새 명청은 잡아나 먹나,  
사람 명청 무엇에 쓰리(36음절).  
(돌 명청이는 담이나 쌓고, 나무 명청이는 불이나 때고, 소 명청이는 잡아  
나 먹지만, 사람 명청이는 무엇에 쓰랴)
- 정든 님 이별은 하늘에 외우 일곱 번 칭칭 돌곡, 부모님 이별은 눈물한  
삼시 방울 뚝 떨어진다(37음절).  
(정든 님 이별은 하늘이 왼편으로 일곱 번 뱅뱅돌고, 부모님 이별은 눈물  
만 세 방울 뚝 떨어진다)
- 길삼발 늘그닌 죽언 보난 미녕소중<sup>52</sup> 이가 아옴이고, 좀녀 늘그닌 죽언 보  
난 일곱 애비아덜이 들르는 도곰수견<sup>53</sup> 이 하나인다(48음절).  
(길삼발 늙은이는 죽어서 보니 무명소중이가 아옴이고, 해녀 늙은이는 죽  
어서 보니 七父子가 드는 도곰수견이 하나이다)
- 다심어멍 묻은 딴 소왕이가 소왕소왕 눈을 들린 케젠 ~~한~~ 옷음 재완 못  
케곡, 원어멍 묻은 딴 반짓 ~~노~~물이 반질반질 고와도 눈을 들린 케젠 ~~한~~  
눈물 재완 못 켜다(63음절).

52) 무명으로 만든 여자가 속에 입는 애랫내의(고쟁이)

53) 해녀가 바다에 들 때 입는 움부를 가리는 옷.

(계모 묻은 데는 엉덩위가 꺼끌꺼끌 날을 들고서 캐려고 하니 웃음 겨워 못 캐고, 생모 묻은 데는 나뭇잎이 반질반질 고와도 날을 들고서 캐려고 하니 눈물 겨워 못 캔다)

## 2) 辭緣型

俗談의 형성요인과 배경을 모르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연이 스며 있는 것을 사연형이라 이름했다. 어쩌면 속담의 생명인 통속성과 연관시켜 볼 때,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됨으로써 보편성을 잃은 편협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속담의 형성은 생활습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향토적 배경과 요인이 있기 마련이다. 本島인 경우는 도서의 특수한 문화권에 속함으로써 韓本土와 다른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어쩌면 유별나다기보다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선학들은 앞서 설화형을 설정하고, 설화에서 속담이 형성되었으면 先說話後俗談型, 속담에서 설화가 형성되었으면 先俗談後說話型으로 잡은 것도 결국 사연형의 한 枝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李殷相이 밝혔던 것처럼 설화만이 아니라, 전설·지명·인명·물명·습속·사승·제도 등등이 속담의 형성요인과 배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총괄하고 포용하려고 사연형을 설정하게 되었다. 550편 중 15편으로 2.72%에 해당한다.

### 〈例示〉

○ 둠벚물에 손 떴 메누리.

(두붓물에 손 데인 머느리)

현재도 그렇지만 두부는 혼인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음식으로 私家에서 직접 만드는데, 그 공력은 대단했다. 이웃의 부녀자들이 만사를

물리치고 자기의 일처럼 모여들어 정성껏 만들어 낸다. 이런 노고의 과정을 통해 맞아들인 며느리이고 보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쓰다고 뵈고 달다고 삼킬 수 없듯이 편익위로만 대할 수 없는 槽糠之妻로서 보호해야 할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 두월이 감산이 가오듯(한다).

(두월이 감산에 가오듯(한다).

‘두월’이는 머슴살이 하는 사내 이름이고, ‘감산’은 지명이다. 그러니 두월이라는 머슴이 감산이라는 마을에 갔다가 오듯 한다는 말이다. 이 俗談의 유래는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의 金씨 가문에 두월이라는 우직한 머슴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인이 그에게 감산에 갔다와야 하겠다고 말한 다음, 잠시 여가를 두고 돌아다 보니 두월이는 간 데 온 데 없이 사라졌다. 이윽히 지난 후 혈떡이며 나타났다. 주인이 묻기를, 어디에 갔었느냐고 했더니 감산에 갔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하두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왜 감산에 갔다오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뛰어갔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심부름이며 초점 잃은 행동일까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본래의 의도와 벗어난 어리석은 심부름꾼을 야유할 때면 지금도 이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 강정 아이들은 조밥 주켄 ㅎ민 안 울곡, 곤밥 주켄 ㅎ민 운다.

(강정 아이들은 조밥 주겠다고 하면 안 울고, 쌀밥 주겠다고 하면 운다)

西歸浦市에 있는 江汀이란 마을은 옛날부터 江汀川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논밭이 형성되어 쌀이 생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쌀밥이 귀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조밥이 희귀한 것으로 알았다는 俗談

이다. 현재는 인공적인 관개시설을 통해 논밭이 종전보다는 증가되었지만, 옛날에는 샘물이 흘러내리는 일부지대를 제외하고는 갇마른 밭농사에 생계를 걸고 있었다. 그러니, 쌀밥은 제사 때나 생일 때가 아니면 구경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강정에 사는 아이들은 쌀밥을 흔히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활권 속에서도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생활상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 줍녀 애긴 사흘만에 아귀것 먹인다.

(해녀 애기는 사흘만에 씹은 밥 먹인다)

해녀는 출산해서 사흘만 되면 입으로 밥을 짓게물고 줍을 만들어 젓대신 먹인다는 말이다. 위생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비위생적이다. 하지만 당시의 생활여건으로서는 產母라고 해서 충분한 영양과 영양섭취를 통해 育兒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으로서는 꿈같은 얘기였다. 산후 삼일이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다에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고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달하고 만다. 그러하다가 보니 젓이 풍족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나마 밥이라도 있어서 깨물어 먹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한 마디로 비극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생계관은, 날로 유약해지는 현대여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 국 하영 먹으민, 가시어멍 눈 땀라진다.

(국 많이 먹으면 장모 눈 망가진다)

이 속담은 현대의 문화생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고 말았다. 왜냐면, 옛날에는 가옥구조가 부엌에 무쇠솥을 얹히고 검불이나 짚을 땀감으로 삼아 국을 끓였기 때문이다. 이 때 식생활에서 차림표는 밥과 국이 최우선이다. 밥의 양이 적더라도 국이 많으면 배를 채울

수가 있었으므로 국은 얼마든지 먹어도 식량에 타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가 국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많이 끓여야 하므로 연기의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래서 장모의 눈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풍자와 해학을 담고 있다.

### 3) 俗信型

속신과 습속의 밀접한 관계에서 형성된 俗信語 중 禁忌性和 吉凶性, 豫兆性을 드러낸 것들로서 속담으로 활용되는 것이면 이들을 일컬어 속신형이라 했다.

金聖培는 '禁忌俗信의 現代的 考察'에서 금기는 〈타부(Taboo)〉로 표현된다고 하고, 특정한 인물·사물·현상·언어·행위 등이 신성시되거나, 행동실천하는 것을 금한다든지, 꺼리(忌)는 불문율로 禁制되는 동시에 인간이 생활구조 속에 뿌리 박혀 하나하나의 俗信, 俗說로 정립된다고 했다<sup>54</sup>.

이렇듯 속신어는 민간신앙과 습속에 깊은 유대를 갖고 口傳해 오고 있는데, 현대적 안목으로 보면 비과학적이지만 전통적 생활습속에서 조명해보면 합리적인 생활훈으로서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金宗澤은 俗諺의 유형으로 禁制型, 勸獎型, 判斷型을 설정하고, 그 가치로서 과학성, 윤리성, 심리성을 들고 있다<sup>55</sup>. 崔來沃도 속신어의 긍정적 관점으로서 과학적 합리성, 교육적 윤리성, 주술적 심리성을 들고, 인간의 초인적인 심성에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자연의 신비를 해석하여 개인과 단체의 생활을 이롭게 하려는 욕구에서 발생된다고 보았다<sup>56</sup>. 그리고

54) 金聖培, '禁忌俗信의 現代的 考察', 『清溪金思燁博士頌壽紀念論叢』, 學文社, 1973, p. 83.

55) 金宗澤, '俗諺의 性格과 類型', 『清溪金思燁博士頌壽紀念論叢』, 學文社, 1973, pp. 493~503.

56) 崔來沃, '俗語의 性格研究', 『崔正如博士頌壽紀念民俗語文論叢』, 同刊行委員會, 1983, p. 216.

이들 俗諺 즉 속신어는 속담과는 별개의 민속어로 구분하여 논급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 속신어 중 속담으로 활용되는 것은 간추려서 속신형의 속담으로 다루었다. 俗談이란 言衆의 입에 오르내리는 통속성을 띤 포괄적 受容體로 보기 때문이다. 550편 중 25편으로 4.55%에 해당한다.

〈例示〉

- 배염 ㅼ려난 막대인 거찌지도 말라.  
(뱀 때렸던 막대기는 건드리지도 말라)

오늘날 뱀은 한낱 미물로 격하되고 말았지만, 옛날에는 토속신앙과 연관된 타부의 대상으로 여겼음은 익히 아는 바이다. 근간에도 어느 마을의 처녀는 땀 마을 총각들에게 냉대를 받는다. 그 마을에는 뱀의 신의 조화가 작용한다고 보는 토속신앙관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뱀을 잘 위해야 가정과 마을의 안녕이 보장되고 농사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 巫俗祭札가 행해졌다. 그러니, 뱀은 함부로 다루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으므로 꺼리게 마련이다. 뱀을 때렸던 막대기까지도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정도로 비약되었다. 본속담은 이와 같은 속신에서 유발되어 건드렸다가는 화를 자초할 수 있는 더 볼나위없이 모진 사람을, 뱀을 때렸던 더러운 막대기에 비유하여 경계하는 말로 轉義되어 쓰이고 있다.

- ㅅ 씻을 때 물 하영 쓰민, 죽영 가민 다 먹어사 혼다.  
(냇 씻을 때 물 많이 쓰면, 죽어서 가면 다 먹어야 한다)

甲寅年 흉년에도 먹다가 남은 것이 물이라고 하였지만, 당시의 물 사정은 오늘날처럼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져 내리는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지층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지하로 샘물이 스

며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 봉천수나 냇물을 길어다 먹었거나 썰물 때 해변가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용했다. 그러니, 음료수도 빠듯할 판인데 얼굴 정도 씻을 물이야 세숫그릇 밑바닥을 감출 정도면 족했다. 食水を 낭비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므로 저승에 가서는 벌을 받고 고역을 치뤄야 한다는 사후의 내세관을 적용시킴으로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고 비축하려는 自救策이 마침내는 건실하고 절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신앙심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의 〈먹는 물에 돌 던지면 죽어서 저승가면 눈썹으로 건져야 한다〉를 되새겨 보더라도 물을 소중히 대했음을 알 수 있다. 序論에 제시한 속담의 배경 중 입지성에서 인용된 식순난에 대한 기록으로도 물 문제는 심각한 생계여건이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 죽은 사람 길 쳐사 조은 고단 간다.

(죽은 사람 길 쳐야 좋은 곳에 간다)

인생은 저승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된다고 보고, 내세를 위해 공을 쌓고 명복을 기원한다는 것은 葬禮後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무당을 통해 귀양풀이를 함으로써 亡人의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곳 즉 극락왕생을 누리도록 하는 巫俗行禮를 치렀다. 이 때 무당은 亡人의 영혼을 이어받아 유족들에게 생시에 못다 푼 정과 한을 토로하게 되는 장면에 이르게 되면 최고절정에 다달아 숙연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다. 이런 의식절차를 거쳐 버려야만 그 유족들도 후련한 마음으로 생활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았다.

○ 호충은 상제도 하관 때 못 본다.

(呼冲은 상제도 하관 때 못 본다)

풍수설에 따른 습속으로서 장례 때 呼冲에 해당하면 喪제도 下棺 때

볼 수 없도록 禁制하고 있다. 왜냐하면, 呼冲은 그 날의 일진과 상충된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出柩할 때나 하관시에 보면 빠르면 24시간 늦으면 수일 안으로 죽는다고 해서 철저히 禁制하고 있다. 현재도 재래의 유교식 장례를 대부분 지내고 있는데 이것만은 비교적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 노리도 서난 바닥에 들민 죽나.  
(노루도 있었던 곳에 들면 죽는다)

사냥꾼들은 노루를 잡을 때 그 노루가 보금자리로 정해서 살던 곳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꼭 그 곳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루는 항상 일정한 통로를 이용하며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 자기가 살던 근거지로 되돌아오는 습성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곳만 제대로 잘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도 일단 아무리 정든 곳이지만 그 집을 팔고 떠났으면 재차 그 집으로는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었다. 그래서 지금도 노년층에서는 자주 이런 말을 들려 준다. 되돌아 왔을 때는 신변에 불길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나면 꼭 되돌아가야 할 일이 아니면 굳이 본디 살던 집으로 되돌아 가지 않는 습속이 되고 있다.

### Ⅲ. 濟州島俗談의 表現

俗談은 선인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口碑文藝로서 弄中有意의 짙짙한 비평이 있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寸鐵殺人의 慨가 담겨져 있다. 그만큼 속담은 통속성이 강한 자극적 話素가 되고 있다는 데서 그 표현의 묘가 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속담의 妙諦는 그 표현 방법의 묘미에 의해서 진가여부가 판가름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들 표현법을 형태구성에 예측시켜 형태구성소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형태구성소와는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sup>57)</sup>. 표현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 끝 유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표현을 형태구성의 맥락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형태는 속담의 의미기능적 구조에 입각한 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야 한다고 보았을 때 표현법은 技法과도 결부되고 있으므로 형태구성소와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태는 어디까지나 꼴[型]에 그 바탕을 두고 있고, 표현법은 속담을 표현하는 수법이므로 형태와 표현은 각각 독자성의 것으로 분리시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550편을 분석검토해 보면 표현기교로서의 修辭

57) 李殷相, 前掲 '俚諺의 意義와 및 그 形成에 關하여', pp. 126~238에서 음수율을 외형태의 구성소로 다루고 있다.

金思燁, 前掲書, pp. 20~21에서 시가형으로서의 음수율을 형태구성의 일부로 다뤘다.

沈在箕, 前掲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pp. 223~225에서 율격을 외형구조상의 형태소로 다뤘다.

金善豐, 前掲書, pp. 563~577에서 율격을 외형태, 수사법을 수사태 문법기능과 주제의미를 내형태로 분리하여 다뤘다.

法, 표현형태로서의 律格, 표현미학으로서의 滑稽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 1. 修辭

수사라함은 말이나 문장을 수식하여 보다 妙하고 아름답게 하는 기술이므로 적절한 수사법의 활용은 표현의 멋과 내용을 돋보이게 한다. 원래 속담은 문자에 의한 문장화가 전제된 기록위주의 것이 아니다. 言衆 속에서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는 話用論的 口演이 그 본연이다. 그것이 점차 언어생활의 재치와 구변에 활력을 더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수사적 기법의 묘를 인식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문의 균형과 정제를 위한 조화와 추상이 아닌 명료한 인상을 위한 구상화를 통해서 내용의 풍요와 상상의 여백을 제공하는 비유·강조·변화 등 다양한 기법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속담의 대부분이 짧은 文型에 해당하지만, 수사적 기교가 잘 구사되고 있어 속담을 일컬어 ‘날개 있는 말’, ‘주인 없는 재화’, ‘한약방에 감초’라고 할 정도로 통속성과 공감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한국속담학에서 수사법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13개의 수사법<sup>58)</sup>을 적용시킨 「韓國民俗大觀6」의 ‘俗談’ 부분을 꼽을 수가 있다. 여기서 金善豐은 수사법을 속담의 형태구성소로 보고 형태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형태와 표현을 별개의 분야로 다룰려는 필자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논거는 앞에 제시한 대로 표현은 기법을 동반하고 있는 수법상의 문제이므로 의미기능상의 유형인 형태와는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기준으로는 A) 한 편의 속담에 한 개의 수사법만을 적용시키는

58) 金善豐, 前掲書, pp. 574~577.

① 직유법 ② 은유법 ③ 생략법 ④ 풍유법 ⑤ 점층법 ⑥ 대구법  
⑦ 경구법 ⑧ 과장법 ⑨ 비이법 ⑩ 연쇄법 ⑪ 반복법 ⑫ 대조법  
⑬ 반문법

것을 원칙으로 하되, B) 한 편의 속담에 두 개 이상의 수사법이 혼용될 때는 그 외형구조에 중점을 두었고, C) 한 편의 속담에 두 개 이상의 수사법이 혼용되어 있어 어느 것을 적용해야 좋을지 판별이 모호할 때는 속담의 기능적 효용성을 중시하여 분류했다. 실례를 들면,

① 장황광 어린 아인 실려야 쫓나.

(장독과 어린 아이는 시려야 좋다)

② 허벅<sup>59</sup> 진 이 호이<sup>60</sup>난, 꿩 진 이도 호이<sup>61</sup>한다.

(허벅진 이 호이하니, 병진 이도 호이한다)

③ 하늘 울영 날 존 날 시멍, 바람 불영 절 잘 날 시카.

(하늘 울어서 날씨 좋은 날 있으며, 바람 불어서 결 잔잔할 날 있으랴)

①의 俗談은 어린이의 과잉보호를 경계하는 警句法이 두드러지므로 분류기준 A)에 해당한다. ②의 俗談은 승어 튀면 망둥이도 덩달아 튀는 격으로,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잘난 체하려는 가식된 소행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후대칭의 對句를 중심으로 풍유와 은유까지 공존하고 있으나, 그 외형적 구조미를 중시하여 對句法으로 보고 분류기준 B)를 적용했다. ③의 俗談인 경우 ②의 속담처럼 대구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것일 때는 결코 패적인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경계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이나 경구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구나 은유, 경구보다도 의도적으로 의미기능을 강화시킬려고 의문을 설정함으로써 긍정적 반응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분류기준 C)에 의하여 설의법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실상 俗談은 따지고 보면 어느 하나 경구가 아닌 것이 없고, 강약은 있을지언정 풍유미가 따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굳이 수사분류에 꺼 넣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수사적 기법인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돋보이는 경구

59) 〈註. 47〉 참조.

와 풍유도 일단 분류대상으로 삼았다. 그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10개의 수사법으로 묶어 진다.

### (1) 警句法

경구법이란 기발한 어구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俗談, 格言 같은 것은 경구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속담 전부를 경구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구적 성격이 두드러진 것으로서 다른 수사적 요소와 기능을 압도하는 것은 일단 분류기준 A)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선별했더니, 550편 중 155편으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 〈例示〉

- 놈이 집광 관장살인 퀘던 밥도 두영 간다.  
(남의 집과 벼슬살이는 꿇던 밥도 두고 간다)
- 늘그니 목등인 방구석에 새와 텅 간다.  
(늙은이 지팡이는 방구석에 세워 두고 간다)
- 급할 놈은 배 속에서부터 안다.  
(급할 놈은 배속에서부터 안다)
- 나는 날부터 재우는 건 얘기여.  
(남는 날부터 재우는 것은 얘기다)
- 흠어명 혼다니 말라 씨로 안 난다.  
(흠애비 야단치지 말라 씨앗으로 안 낳는다)

### (2) 諷刺法

풍유는 슬며시 나무라는 뜻을 덧붙여 타이름이다. 따라서 풍유법은

본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써 본뜻을 推察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속담에서 풍유도 경구와 같이 두루 쓰여지고 있는 기법으로서 인간생활의 모순과 애환 등 우여곡절을 미묘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특히 인간의 약점을 직접·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조소하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例示〉

- 어려와 가민 다심어멍 케 푸는 디 간다.  
(궁색해 가면 게모 케 파는 데 간다)
- 멜도 베설 싣나.  
(멀치도 창자 있다)
- 재짜부리<sup>60)</sup> 지 가늌 모르멍 쫄레질 혼다.  
(재짜부리 제 가늌 못하면서 싸움질 한다)
- ㅎ던 광질도 돈 주켄 ㅎ민 안혼다.  
(하던 광질도 돈 주겠다 하면 안한다)
- 구쟁기 똥누레 가불민 게드레기가 차지혼다.  
(소라 똥누러 가버리면 집게가 차지한다)

(3) 隱喩法

은유법이란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방법이 아닌 표면상으로 비유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숨겨진 비유로서 표현하려는 原觀念이 보조관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특성이다.

俗談에서 이들 은유법은 거의 실생활과 밀착된 具象語가 원관념을 드러내는 보조관념어로 쓰이고 있다.

---

60) 뿔이 뒷쪽으로 휘어진 소.

## 〈例示〉

- 왜바농코 툄다지기 쉽다.  
(외바늘귀 쪼개지기 쉽다)
- 메역짐광 애기짐은 베여도 안 내분다.  
(미역짐과 애기짐은 무거워도 안 버린다.)
- 눈 낭에 으름<sup>61</sup> 안 온다.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
- 유월 발창 사흘 지저우민 누엡 먹나.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누어서 먹는다)
- 켜 놈 시 불 얻어 먹나.  
(빠른 놈 세 번 얻어 먹는다)

## (4) 對照法

대조법이란 대우관계로 구성된 것으로서 前節과 後節이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형구조는 대구법과 같지만, 대칭적 쌍을 이루고 있는 전·후절의 내용을 보면 서로가 대립관계이므로 구분이 가능해 진다.

실제 俗談에서 그 기능적 역할은 외형구조와는 관계없이 경구법도 되고 풍유법도 되며 은유법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따로 대조법으로 분류시킨 것은 분류기준 B)에 따라 그 구조적인 형태가 전·후절이 각기 對比되는 표현법을 썼기 때문이다.

---

61) 으름[jɔrɯm], ‘..’는 ‘.’에 ‘ㅣ’모음이 선행된 본도 고유의 음으로서 방언학에서 [jɔ]로 표시한다. 열매(實·果)를 뜻한다.

〈例示〉

- 도둑놈 텐 벗곡, 초식 텐 못 벗어나.  
(도둑놈 티는 벗고, 자식 티는 못 벗어나)
- 집 치레 말고, 밭 치레하라.  
(집 치레 말고, 밭 치레하라)
- 좁쌀만이 간세햇당, 담돌만이 움직인다.  
(좁쌀만큼 게을렀다가, 돌맹이만큼 움직인다)
- 각씨 웃인 건 안 섭섭해도, 남통머리 이른 건 더 섭섭하다.  
(아내 없는 것은 안 섭섭해도, 나무 담배통 잃은 것은 더 섭섭하다)

(5) 對句法

대구법은 대조법과 외형구조는 같게 보이지만 전·후절이 대립관계가 아닌 대등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사적 동류항의 반복과 나열을 함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법 때문에 俗談에는 押韻이 적용되지 않은 데도 압운율을 확대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62)</sup>.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律格〉에서 논의하겠다.

〈例示〉

- 닳을 쉰 눈을 보곡, 찌를 쉰 뺨을 보라.  
(뺨 소는 눈을 보고, 찌를 소는 뺨을 보라)
- 얘기야 얘기야 흥민, 흥악흥악 흥다.  
(얘기야 얘기야 하면, 흥악흥악 한다)
- 굷인 풀 비젠 흥민, 깨운 풀도 비여진다.  
(굷은 풀 베려고 하면, 좋은 풀도 베어진다)

62) 金善豐, 前掲書, pp. 564~565에 頭韻, 末韻, 腰韻, 疊韻法을 적용시켰다.  
沈在箕, 前掲書, p. 224에 두운과 각운의 예를 들고 있다.

- 여잔 오뉴월에 술치곡, 남잔 구시월에 술친다.  
(여자는 오뉴월에 술찌고, 남자는 구시월에 술친다)
- 둥그린 독새긴 병애기 되곡, 둥그린 사름은 쓸매 난다.  
(굴린 달같은 병아리 되고, 굴린 사람은 쓸모 있다)

#### (6) 誇張法

과장법은 사실보다 확대하여 針小棒大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려는 기법이다. 이들 과장 속에는 풍자적 요소도 있게 마련이지만, 실제 표현은 과장을 통한 의미의 강조현상이므로 풍유법과 구분하여 분류했다.

#### 〈例示〉

- 눈썹에 불 붙어도 끝 저를 웃나.  
(눈썹에 불 붙어도 끝 겨를이 없다)
- 물똥을 노아도 손맛인다.  
(말똥을 놓아도 손맛이다)
- 애기 어멍 삼수월엔 돌이라도 니 아니 들엉 못 먹나.  
(애기 어머니 삼가월에는 돌이라도 이빨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 혼 둘에 개역<sup>63)</sup> 시 번, 추배기 시 번 흥민 집안 망한다.  
(한 달에 개역 세 번 수제비 세 번 하면 집안 망한다)
- 생이 혼 마리로 일궈 잔치<sup>63)</sup>곡, 사돈침이 정 들어가도 이문이 걸린다.  
(새 한 마리로 이레 잔치하고, 사돈집에 지고 들어가도 대문에 걸린다)

---

63) 보리를 볶아서 만든 미식가루.

## (7) 直喩法

직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의미를 다른 사물이나 의미를 끌어다가 직접 연결시켜 ‘~처럼, ~같이, ~듯, ~양(마냥), ~같다(닮다)’ 등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 수사법을 사용한 속담의 선별은 매우 신중을 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비유로 된 어구도 잘못 하다가는 전부 속담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sup>64)</sup>. 종래의 속담자료를 수합하여 펴낸 李基文 氏 「俗談辭典」(民衆書館, 1962)에도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돼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를테면, 〈염불 외듯〉 〈암팜같다〉 〈북치듯 한다〉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다음에 예시한 것과 같은 부류의 것들은 비교적 의미전달의 기능적 비유가 살아나는 것이므로 직유법의 속담으로 분류했는데, 다른 수사법의 속담들과 견주어 볼 때 표현기법으로서의 묘미는 뒤지고 있다.

## 〈例示〉

- 두린놈 뺨간 둘러 먹듯(혼다).  
(미친놈 날간 휩쓸어 먹듯(한다))
- 틀<sup>65)</sup> 타먹은 하르방 허대듯(혼다).  
(틀 따먹은 할아버지 수다떨듯(한다))
- 늘근 놈이 절은 첩하민 불 본 나비 낚뜨듯 혼다.  
(늙은 놈이 젊은 첩하면, 불 본 나비 날뛰듯 한다)
- 도둑놈광 셋뭇은 무끄민 담나.  
(도둑놈과 땃뭇은 묶으면 닮다)

64) 張德順의, 前掲書, p. 198.

金宗澤, 前掲書, p. 64.

65) 산말나무의 열매.

- 한 방울 두 바울 떨어지는 빈 다심어멍 죽은 디 눈물 담나.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비는 계모 죽은 데 눈물 닦다)

### (8) 設疑法

설의법은 어떤 단안이나 결론을 의문의 형식을 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수사법이다. 그러니 終結辭에는 의문형어미가 붙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本島方言에 나타나는 의문형어미인 ‘~주, ~카’와 같은 종결어미가 있어 특이한 언어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例示〉

- 개가 똥을 좇주.  
(개가 똥을 참을까)  
○ 나 한 둘은 콩 말텐 ㅎ라.  
(나이 많은 말은 콩 마다 할까)  
○ 담 터진 밧디 ㄹ쉬 안 들라.  
(담 허무러진 밧에 우마 안 들어갈까)  
○ 이녁 집 식께 모르멍, 놈이 집 식께 알카.  
(자기 집 제사 모르면서, 남의 집 제사 알까)  
○ 느 집 재작부리<sup>66)</sup> 아니민, 나 집 축담 무너지카.  
(네 집 재작부리 아니면 내 집 담장이 무너질까)

### (9) 逆說法

역설법은 얼핏보면 사리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

---

66) 註60)과 같음.

에 진리는 먹음고 있는 것으로서 反語的 表現인 아이러니를 함유하고 있는 수사법이다. 어쩌면 풍유법이 범주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풍유와 다른 점은 의도적으로 뒤집어 말하는 모순된 듯한 표현기법을 취하고 있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수필의 형식을 ‘무형식의 형식’이라던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의 詩句가 역설과 아이러니인 것처럼 俗談도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선인들의 생활감정을 골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例示〉

- 여자로 나느니 세로 나주.  
(여자로 낳을 바에 소로 낳지)
- 사위 잘 ㅎ민 집안 망한다.  
(사위 잘하면 집안 망한다)
- 아인 술아 텡 못만 난다.  
(아이는 불살아버리고 태반만 낳는다)
- 제주산은 악산이난 악한 사름 잘 된다.  
(제주산은 악산이니 악한 사람 잘 된다)
- 놈이 간장 배긴 얼굴 넓은 들에 쓴 간절귀여.  
(남의 간장 썩인 얼굴 넓은 들에 쓴 개똥참외다)

(10) 漸層法

점층법은 강조하여 표현하고 싶은 사실을 층계를 올라가듯 점진적으로 의미를 고조 또는 심화시켜 나가는 수사법이다. 따라서 부분이나 개체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국면으로 확대되어 갈수록 심도가 더해짐으로써 錦上添花나 雪上加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기법의 속담은 예시한 정도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다른 수사적 기교보다 사려 깊은 追步의 유추기능과 촌철살인의 고도한 간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다.

〈例示〉

- 좁음 도둑으로 집안 망한다.  
(젓가락 도둑으로 집안 망한다)
- 섶똥에 엮이지민, 개똥에 코 댄다.  
(소똥에 엮어지면, 개똥 코 댄다)
- 집에 승시 들쨌 흥민, 튼은 독도 고기약호곡, 기시린 듯이 독름을 둔곡,  
배긴 개가 웅공공한다.  
(집에 흥사 날려면 튼은 닭이 꼬끼요하고, 그시린 돼지가 뛰어가고, 벗긴  
개가 웅공공 짚는다)
- 갓서른에 으든 난 영감을 만나난 두 불 시 불 물 던 밥도 씹어 달랜 앙얼  
한다.  
(갓서른에 여든 살 난 영감을 만나니 두 번 세 번 물을 던 밥도 씹어 달라  
고 앙달한다)
- 돌 명칭 담이나 답곡, 낭 명칭 불이나 습곡, 섶 명칭 잡아나 먹나, 사름  
명칭 어디다 쓰리.  
(돌 명칭이 담이나 쌓고, 나무 명칭이 불이나 때고, 소 명칭이 잡아나 먹  
지만, 사람 명칭이 어디에 쓰랴)

## 2. 律格

한국문학사에서 詩歌의 율격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音數律, 音步律, 強弱律, 高低律, 長短律, 押韻律 등이 거론되었는데, 이들 중 어느 것도 한국시가의 기층적 운율구조를 확고히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율격론은 일면적 고찰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다가 외래 율격의 불합리한 도용에 불과함으로써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丙昌海이 '韓國詩歌 韻律의 研究에 대한 通時的 考察'(韓國學報, 第11輯, 1978)에서 선학들의 논고를 시대별로 연구사를 검토하여 제시한 결론이다. 과연 이 비관적 재조명의 이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기존 율격론에 대한 맹신도 삼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할 만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한국속담학에서 고찰해 온 율격을 살펴보면, 음수율, 음보율, 압운율이 그 전부이다. 李殷相<sup>70</sup>과 金思燁<sup>71</sup>은 음수율을 다뤘고, 沈在箕<sup>72</sup>와 金善豐<sup>73</sup>은 음수율, 음보율, 압운율을 총괄 적용시켜 논의했다. 문제는 음보율도 그렇지만 漢詩의 絶句의 운율인 압운율을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이다. 한국속담을 漢譯할 때는 漢詩의 압운법을 적용시켰지만, 실제 우리 속담에는 압운법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운문이 지니고 있는 소리의 반복적 양식으로 말미암아 편의상 압운율을 적용시킨 데 불과하다. 어쨌든 속담은 그 표현이 古詩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시가의 율격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겠다.

한국시가의 율격규명 중 압운법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한 “韓國詩歌에서 押韻法의 개념에 맞고 또 押韻으로서의 機能을 보이는 押韻形態가 없다.”<sup>74</sup>는 것도 유념해 볼 때, 압운율이 적용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金思燁<sup>75</sup>도 한국속담에는 압운이 없다고 했듯이 우리의 속담에 압운율을 적용하는 것은 편법일 수밖에 없다. 대구나 대조로 구성된 속담들 중에는 同一語素나 조사, 어미가 반복중첩됨으로써 口演의 효과와 재미를 제공해 주고는 있지만, 그 반복과 중첩에서 오는 재미의 율동적 운율을 압운법으로 끌어들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음보율인 경우도 음보라는 것은 율격이 형성되는 바탕 곧 그릇에 지나지 않을 뿐, 음보 그 자체가 율격을 형성하는 자질일 수는 없

67), 68, 69), 70) : 〈註57〉 해당자 문헌 참조.

71) 丙昌海, '韓國詩歌 韻律研究에 대한 通時的 考察', 『韓國學報』 第11輯, 1978, p. 177에서 金大幸의 〈押韻論〉을 인용하여 압운법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72) 金思燁, 前掲書, p. 21, 23.

다. 어디까지 음보를 형성하는 자질은 오직 음절수에 있으므로 음수율만을 속담의 율격으로 문제 삼기로 한다.

### (1) 音數律

음수율의 연구<sup>73)</sup>는 한국시가의 운율적 기층구조를 구명하려는 의도에서 時調를 대상으로 하여 1920년대부터 1950년도 초반까지 그 독무대를 이뤘다. 속담학에 있어서도 시가의 운율형태와 같은 맥락에서 음수율이 논의되었는데, 李殷相<sup>74)</sup>은 4·4조를 조선가요의 재래식 기본형으로 보고, 이것을 그대로 俗談의 기본율격으로 도입시켜 3·4조, 4·3조, 4·5조, 5·4조, 3·3조, 5·5조 등을 총합하여 4·4조류로 다루고, 그 이외의 음수율의 것은 亂調로 다루었다. 金思燁<sup>75)</sup>도 시가형으로서의 聲律을 중심으로 4·4조, 3·3조, 5·5조, 3·3·5조(아리랑調) 등으로 했고 金善豐<sup>76)</sup> 역시 8음절인 4·4조를 으뜸으로 한 6·5조, 7·5조, 6·6조, 4·3조, 4·5조가 많고, 다음으로 3·3조, 3·4조, 5·5조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本島俗談인 경우 10편 이상 同一音數律群으로 묶을 수 있는 것 13개의 부류를 중심으로 그 분포된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이들 13개 부류에 해당하지 않은 음수율의 것은 混調로 처리하여 例示에서 제외시켰다.

#### ① 5·5조(48편) ② 4·4조(46편)

73) 梁柱東, '詩와 韻律', 「金星」第三号, 1924.

李光洙, '時調와 自然律', 東亞日報, 1928. 11. 2~7.

李秉岐, '律格과 時調', 東亞日報, 1928. 11. 28~12. 1.

趙潤濟, '時調字數考', 「新興」第四号, 1930.

74) 李殷相, 前掲書, pp. 236~238.

75) 金思燁, 前掲書, pp. 20~21.

76) 金善豐, 前掲書, pp. 566~568.

- ③ 7·5조(37편) ④ 6·6조(29편)
- ⑤ 4·5조(27편) ⑥ 3·4조(25편)
- ⑦ 4·3조(15편)
- ⑧ 5·4조, 7·7조(각 14편)
- ⑨ 3·5조, 4·6조(각 12편)
- ⑩ 8·5조, 5·6조(각 10편)

이상 13개의 음수율군을 정리해보면, 5·5조가 으뜸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전통적 율조로 일컬어지는 4·4조와 3·4조가 분포순위 ② ⑥ 위이고, 신문화기에 주조를 이뤘던 7·5조나 8·5조가 ③ ⑩ 위에 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속담은 그 나라의 시가와 운율적 맥락을 부분적이거나 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例示〉

1) 5·5調

- 미운놈 보컨 술자시<sup>ㅎ</sup>라.  
(미운놈 보려면 술장사하라)
- 절은 제와시 막보지 말라.  
(젊은 거지 막보지 말라)
- 나서 화목은 남자가 <sup>ㅎ</sup>곡, 들어 화목은 여자가 <sup>ㅎ</sup>다.  
(나가서 화목은 남자가 하고, 들어서 화목은 여자가 한다)
- 질이 옷이난 <sup>ㅎ</sup>질을 건곡, 물이 옷이난 <sup>ㅎ</sup>물을 먹나.  
(길이 없으니 한길을 건고, 물이 없으니 한물을 먹는다)
- 섯포리 왓다 들어난 <sup>ㅅ</sup>광 지집넌 방에 들어난 <sup>ㅎ</sup>은 <sup>ㅎ</sup>번 가나민 주으<sup>ㅎ</sup>훔다.  
(섯보리 밭에 들었던 소와 계집방에 들었던 <sup>ㅎ</sup>은 한번 가고나면 술<sup>ㅎ</sup>것한다)

2) 4・4調

- 도 막은 밧 작제 웃나.  
(통로 막힌 밧 시세 없다)
- 체 불리는 부재 웃나.  
(겨 날려 버리는 부자 없다)
- 새침떼긴 비곡 꿀곡, 허위대긴 그렁 죽나.  
(새침떼기는 배고 깔고, 허위대는 그러서 죽는다)
- 놈이 집광 관장살인 켜던 밥도 두영 간다.  
(남의 집과 벼슬살이는 끊던 밥도 두고 간다)
- 놈이 간장 썩긴 얼굴 넓은 들에 쓴 간절귀여.  
(남의 간장 썩인 얼굴 넓은 들에 쓴 개똥참외다)

3) 7・5調

- 질엿돌도 연분이 셔사(이서사) 찬다.  
(질엿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 새눈이 크덴 해도 이논이 크다.  
(소눈이 크다 해도 의논의 크다)
- 눈 까진 딸 가정(가지영) 사위 굴린다.  
(눈 상한 딸 가지고 사위 고른다)
- 내 집 가운 놈이 집 처녀에 멘다.  
(내 집 가운 남의 집 처녀에 달렸다)
- 도둑놈광 셋뭇은 무끄민 담나.  
(도둑놈과 뗏뭇은 묶으면 담다)

4) 6・6調

- 삼년 3물아도 홀 일 다 못훈다.

56 Ⅲ. 濟州島俗談의 表現

- (삼년 가물어도 할 일 다 못한다)
- 초정월 우치민 보재기가 운다.  
(초정월 비오면 어부가 운다)
- 양식 싸지 말앙 벼을 멀리 두라.  
(양식 싸지 말고 벼을 멀리 두라)
- 지가 낸 법률에 지가 매맞인다.  
(자기 낸 법률에 자기 매맞는다)
- 봄잠은 자왈에 걸어져도 잔다.  
(봄잠은 덩불에 걸어져도 잔다)

5) 4・5調

- 얼굴 존거 곤거 징이지 말라.  
(얼굴 예쁜 거 탐내지 말라)
- 밥 먹음도 일 출림인다.  
(밥 먹음도 일 차림이다)
- 놈 논 건 췌도 못 좇나.  
(남 논 것은 소도 못 찾는다)
- 입으로만 꺽이여 매여.  
(입으로만 꺽이다 매다)
- 유월 물이 그림덴 해도 어멍보단 더 안 그림나.  
(유월 물이 그림다 해도 어머니보다 더 안 그림다)

6) 3・4調

- 지름 줄 씨앗 웃나.  
(기름 줄 씨앗 없다)
- 막등인 흙세훈다.  
(막등이는 어리광부린다)

- 벤 애길 지드리멍 혼 용실 지드리라.  
(베인 애기를 기다리며 지은 농사를 기다리라)
- 두라멘 도새기나, 기시린 도새기나.  
(달아맨 돼지나, 그시린 돼시나)
- 집안에 든 핍 와 텡, 밧딧핑 잡젠 혼다.  
(집안에 든 핍 와 두고, 밧엿핑 잡으려 한다)

7) 4・3調

- 눔이 우로 내 넘나.  
(남의 위로 내 건넌다)
- 밥도 쉬면 못 먹나.  
(밥도 쉬면 못 먹는다)
- 선술 할망 배분다.  
(술이 선 할머니 배가 분다)
- 좁쌀만이 아꼿당, 담돌만이 해롭다.  
(좁쌀만큼 아꼿다가, 돌맹이만큼 해롭다)
- 건지 먹은 눔이나, 국물 먹은 눔이나.  
(건더기 먹은 눔이나, 국물 먹은 눔이나)

8) 5・4調

- 복재기 사을 일긴 안다.  
(어부 사흘 일기는 안다)
- 딸은 어멍 피 물영 난다.  
(딸은 어머니 피를 물고 난다)
- 갱이 보발도 집은 싣나.  
(계와 고등도 집은 있다)
- 밧이 조아사 씨가 산다.

(발이 좋아야 씨가 잘 자란다)

○ 독도 지 압씩 근어 먹나.

(닭도 제 앞씩 해집어 먹는다)

### 7·7調

○ 벤 짐은 갈랑 저도, 빙은 못 갈랑 진다.

(무거운 짐은 나눠 저도, 병(病)은 못 나눠 진다)

○ 켜 물 성안 감시민, 뜬 물 도그네<sup>77</sup> 간다.

(빠른 말 성내 가고 있으면, 느린 말 도그내 간다)

○ 삼스월에 난 애기 저녁에 인사한다.

(삼사월에 낳은 애기 저녁에 인사한다)

○ 정이<sup>78</sup>서 죽 쑤던 솥 모관<sup>79</sup> 와도 죽쑤다.

(정의서 죽쑤던 솥 모관 와도 죽쑤다)

○ 서방 못 들렁 울곡, 각씨 못 들렁 울곡.

(난편 잘못 만나서 울고, 아내 잘못 만나서 울고)

### 9) 3·5調

○ 막둥이 부모 직한다.

(막둥이 부모 직킨다)

○ 권당은 옷 우잇 브름.

(친족은 옷 위의 바람)

○ 조식은 키울 때 재미.

(자식은 키울 때 재미)

77) 濟州市 서쪽에 있는 外郡洞의 속칭

78) 南濟州郡의 동부지역을 旌義라했는데 현재 表善面 城邑리가 중심지였다.

79) 北濟州郡 일대를 지칭했고 그 중심지는 濟州市였다.

- 눈 낭에 으뜸 안 온다.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
- 시렌 혼 채는 안 시곡, 마개가 더 먼저 신다.  
(시라고 한 초는 안 시고, 마개가 더 먼저 신다)

4·6調

- 검은 독도 흰 독새기 난다.  
(검은 닭도 흰 달걀 난다)
- 삼스월엔 물가죽도 버쩍.  
(삼사월에는 말가죽도 뻗뻗)
- 동세 간에 산 새다리 빈다.  
(동서 간에 산 소다리 벤다)
- 웨바농코 툄다지기 쉽다.  
(외바늘귀 조개지기 쉽다)
- 뽕린 놈은 에염으로 가곡, 맞인 놈은 가운데로 간다.  
(때린 놈은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

10) 8·5調

- 열두 메에 묵찌 전엔 촌말 못 혼다.  
(열두 마디에 묵기 전에는 참말 못 혼다)
- 손엿물은 개안티도 아니 뿌린다.  
(손엿물은 개한테도 아니 뿌린다)
- 흠어멍 혼다니 말라 씨앗으로 안 낳는다.  
(흠애미 야단 말라 씨앗으로 안 낳는다)
- 동지 넘으면 푸새도 새 마음 혼다.  
(동지 넘으면 푸성귀도 새 마음 혼다)

- 헛간에 가도 홀 말은 하여사 한다.  
(헛간에 가도 할 말은 하여야 한다)

### 5・6調

- 고운 사름은 맥을 써도 곱다.  
(고운 사람은 망태를 써도 곱다)
- 준 원순 싯곡, 안 준 원순 웃나.  
(준 원수는 있고, 안 준 원수는 없다)
- 하영 다르곡, 안 하영 다르다.  
(해서 다르고, 안해서 다르다)
- 욱심이 세민 도둑이 반이여.  
(욕심이 세면 도둑이 반이다)
- 큰 일 처난 집 저녁ᄃ심 싯곡, 큰 곳해 난 집 저녁ᄃ심 웃나.  
(큰 일 치뤘던 집 저녁거리 있고, 큰 곳했던 집 저녁거리 없다)

### 3. 滑稽

골계는 익살로서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습게 하는 말이나 짓을 일컫는다. 그래서, 譏弄과 유모어를 잘하는 사람은 익살꾼[滑稽家]으로 통한다. 그토록 골계는 재미백출의 웃음의 도가니로서 문학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골계를 논할 때 그저 웃음을 제공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간심리를 자극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개재되는 다양한 논거를 형성시키고 있다. 즉 골계는 숭고와 상반된 위치에서 대상을 부정적으로 卑小化시켜 小人國에 간 갈리버와 같은 조건 속에서 내려다 본 하잘 것 없는 현실이 한 덩어리의 웃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80)</sup>. 특히

80) 李御寧, “諸諺의 美的範疇,” 『思想界』 第64号, 1958, p. 287.

예술형태 속에 수용된 웃음인 경우는 미의식의 측면과 목적의식의 측면을 갖고 있는데, 전자는 미의식이 수반되고 있으므로 미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웃음이고, 후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된 웃음이기 때문에, 이들 양자간에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들 웃음은 골계(comic), 풍자(satire), 아이러니(irony), 해학(humour)으로 분류된다고 했다<sup>81)</sup>.

俗談에서의 골계도 인간의 善惡, 眞僞, 모순, 불합리를 드러내는 비판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의한 웃음의 유발양상에 따라 풍자로도 나타나고 해학으로도 나타나며, 아이러니와 위트로도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각기 本島俗談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비록 그 형태가 斷片的 단형에 한정되어 있지만, 선인들의 슬기와 운치가 있고 폭소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그 속담에 용해되고 있는 구체적인 골계의 양상을 추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 상호간에는 그들 나름의 독자성 못지 않게 동질성도 교류되고 있으므로 선별상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난점도 없지 않지만, 검토의 편의상 골계를 상위개념으로 하고, 풍자·해학·아이러니·위트를 하위개념으로 분리시켜 그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諷刺

풍자는 쏘는 것으로서 겨울철의 찬 바람처럼 대상의 감정을 해치며 불쾌하게 하는 동시에 제삼자를 즐겁게 한다고 했지만<sup>82)</sup>,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풍자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놓고 있다

<sup>83)</sup>.

첫째로, 〈풍자〉는 인간사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냉엄한 고발이므로, 그

81) 金學成, '燕岩小說의 諷刺性', 『燕巖研究』, 啓明大學出版部, 1984, p. 282.

82) 林語堂, '東西洋의 諧謔', 국제펜클럽한국본부, 1970, p. 225.

83) 金學成, 前掲書, p. 283.

사회적 환경은 밝고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 어떤 악덕이나 모순으로 득실거리는 암담한 사회라는 것.

둘째로, 그러한 암담한 사회의 모순과 폐단을 개선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진 지성, 즉 새로운 가치관에 바탕을 둔 비판적 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로, 그러한 부정적인 면을 날카롭게 고발하여 그 모순을 더욱 뚜렷이 노출시키되, 부정되는 대상은 주체와 무관하며 자기부정을 내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네째로, 〈해학〉이 없는 〈풍자〉는 한낱 악담이나 독설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술적인 향취로 작품에 용해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곧 풍자의 주체는 약자이거나 열세자로서 강자인 우세자를 대상으로 그의 약점인 모순과 비리를 꼬집어 공격함으로써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수법이면서도 무턱대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독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은 풍자의 속성에 비춰볼 때, 本島俗談에서의 풍자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꼬집은 야유도 있지만 대부분 완곡하게 우회적인 측면공격을 통하여 교화의 기능을 살리고 있다.

① 공꺼엔 ㅎ민 눈도 벌겅 코도 벌겅.

(공짜라고 하면 눈도 빨갛고 코도 빨갛다)

② 여잔 동산드레 돌아아장 오줌 싸도 치매각 젖는 중 물른다.

(여자는 동산으로 돌아앉아서 소피해도 치마자락 젖는 줄 모른다)

①의 俗談은 무엇이건 공짜라고 하면 염치불구하고 마구잡이로 가질려고 덤벼드는 탐욕을 풍자한 것이다. 이것은 〈공짜라면 양젓물도 먹는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 공짜를 아무리 좋아한다기로 눈과 코가 빨갛게 달아오를 리가 없지만, 지나치게 공짜를 좋아하는 알국은 심성을 우회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코도 빨갛고 눈도 빨갛다고 표현함으로써 해학적 요소를 첨가시키고

있다. ②의 俗談은 ①의 속담에 비해 훨씬 더 우회적이다. 여자는 아무리 남자의 흉내를 내어 소피할 때 동산 쪽으로 향해도 앉아서 하기 마련이니, 뒷쪽으로 드리워진 치마자락이 땅에 닿아 있으므로 흘러내린 소피에 젖게 된다. 이 말은 남자의 흉내를 내는 데 지나지 않을 뿐 아무리 여자가 남자의 체통을 닮으려 해도 아녀자의 거동이나 소견이 남자를 따를 수 없음을 해학적으로 풍자했다.

이렇게 보면 속담에서의 풍자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찌르거나 험상궂은 야유라기보다 생활의 지혜와 守分을 일깨우는 골계적 箴言의 구실을 해주고 있다.

#### 〈例示〉

- 눈 까진 풀 가정 사위 골린다.  
(눈 상한 딸 가지고 사위 고른다)
- 기시린 도새기 ㄹ라멘 도새기 타령한다.  
(그시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 꼭 건으레 간 놈이 정당벌립<sup>84)</sup> 망 돌른다.  
(취 건으러 간 놈이 정당벌립 테 엮는다)
- 홀아방은 왜문에 왜돌쳐귀, 홀어멍은 청동화리가 아웁.  
(홀애비는 외문에 외돌쳐귀, 홀애비는 청동화로가 아웁)
- 가죽신 시 배 꼬치명 구해온 메뉴리 방귀만 시 번 편다.  
(가죽신 세 켤레 꿇기면서 구해온 머느리 방구만 세 번한다)

#### (2) 諧謔

해학은 자기자신의 약점을 발견하여 자기를 웃는 것이므로 언제나 부정된 현실 속에서 자기가 있는 것이며, 동료·인간에 대해서 선의를

---

84) 땡땡이 덩굴로 엮어 만든 병거지.

가지고 그 약점, 실수, 부족을 같이 즐겁게 시인하는 공감적인 태도이다<sup>85</sup>. 또한 해학은 풍자와 같이 인간 또는 그 사회의 허점과 모순, 부조리와 惡弊 따위를 꼬집어 비꼬움으로써 웃음을 유발시키는데, 그 웃음의 유발은 마치 母情과 같이 따스한 훈기를 감싸주는 鎮靜劑와 같은 것이어서 밝고 여유 있는 웃음으로 처리되는 것이다<sup>86</sup>.

이렇듯 해학은 관조적인 여유를 갖고 대상을 익살맞은 기질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데서 풍자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학은 우월자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결함을 노출시켜 꼬집음으로써 웃음을 터뜨리는 골계작용이다.

그러나, 俗談에서 이들 풍자와 해학은 상호교류되는 동질성 때문에 딱잡아 구분하기 어려운, 그 한계가 모호할 때도 많다. 그것은 소설에서는 사건과 인물의 갈등관계가 작가의 의도적 구성에 의해서 작품화됨으로써 거기에 드러난 인상과 뉴앙스의 톤이 그대로 독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의식으로 感知되는 과정이 있지만, 속담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대로 本島俗談에 드러난 해학상을 추출해 보면, 순박한 土俗的 기질과 언행의 약점을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차원 높은 내면의식의 추구가 아닌, 處方과 實利에 밀착된 익살스런 戲話의 한 토막인 것이다.

① 비바리 늘거가민 ㄱ래착 지영 산드레 올른다.

(처녀 늙어가면 땃돌짝 지고 산으로 오른다)

② 니 아픈 부름씨랑 ㅎ곡, 눈 아픈 부름씨랑 말라.

(이 아픈 심부름은 하고, 눈 아픈 심부름은 말라)

①의 俗談은 婚期를 놓친 노처녀의 비정상적인 행동거지를 譏弄한 것이다. 여기서 땃돌짝은 위·아랫것 중 아랫것인데, 그 한가운데는

85) 鄭炳昱,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0, p. 356.

86) 金學成, 前掲書, pp. 282~283.

남자의 성기와 같은 것이 돌출되고 있다. 그 뱃돌짜를 지고서 남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으스스한 산기슭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노처녀의 官能的 생태를 해학으로 꼬집은 것이다. ②의 俗談도 실리를 앞세운 해학적인 표현이다. 눈 아픈 사람의 시중을 드는 것은 소득이 없고, 이 아픈 사람의 시중을 드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눈 아픈 사람에게서는 그 눈병을 옮겨 받기가 일쑤인데다가 남겨 놓은 음식마저 없게 마련이고, 이 아픈 사람에게서는 전염될 병도 없거니와 이가 아파 먹을 수 없으니, 그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실속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유발되는 웃음은 林語堂의 말대로 우리 모두를 즐겁고 아늑한 우의에 찬 분위기 속에 감싸주는 하늘의 慈養과도 같다는 해학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例示〉

- 부지땡인 데어불기만 ㅎ곡, 얻어먹진 못 ㅎ다.  
(부지깡이는 데어버리기만 하고 얻어먹지는 못한다)
- 못 먹나 못 먹나 ㅎ명 거죽까지 다 먹나.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하면서 껍질까지 다 먹는다)
- 통째 상투이에 꼬자 텡 사을 좇나.  
(담배대 상투에 꼽아 두고 사흘 찾는다)
- 화토장광 조쟁인 문직을수록 커진다.  
(화투장과 자지는 만질수록 커진다)
- 어린 각씨 달래젠 ㅎ민 두리중치에 사슬돈 담앙 생글생글 ㅎ명 달랜다.  
(어린 아내 달래려고 하면 주머니에 쇠돈 담고서 생글생글 흔들면서 달랜다)

## (3) 아이러니

아이러니는 수사에서 역설법과 同軌에 설 수 있다. 이 말은 아이러니와 역설이 같은 것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현대시에서 아이러니는 표면으로는 그럴사 한 표현을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그에 대한 비판의식을 내보이는, 외면의 허구성과 내면의 진실성을 동시에 표출한다. 역설은 표면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양자의 相反性을 결합시키는 표현법인 것이다. 모순과 합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아이러니와 역설은 표리의 관계에 있는 미분화의 것으로 취급하였다.

① 고운년 잡아 들이렌 ㅎ난 술친년 잡아 들인다.

(고운 여자 잡아 들이라 하니 살찐 여자 잡아 들인다)

② 사위 잘ㅎ민 집안 망ㅎ다.

(사위 잘하면 집안 망한다)

①의 俗談은 東問西答과 같이 엉뚱한 짓을 했음을 비유한 것이다. 원래 가축은 살이 찼을 때 곱게 보인다. 외국의 속담에도 <짐승은 살찐을 때 보기 좋고, 승려는 여위었을 때 보기 좋다>고 했다. 짐승이 살찐 것과 사람을 동일시 하여 고운 여자를 살찐 여자로 오인하여 역용시킴으로써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②의 俗談은 사위가 너무 똑똑하여 사리에 밝고 출세하면 그 영향력이 거세어 처가의 재량권이 약화됨을 경계한 것이다. 실제 사위 잘하면 집안이 흥하지 망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궂이 망한다고 역설한 것은 너무 사위감을 고르거나, 또한 칠칠치 못한 사위를 했을 때 그 경황을 합리화시키려는 譏弄인 것이다.

## 〈例示〉

- 행실 배우렌 **ㅎ**난 **홀**어멍 **칩** 강생일 **ㄷ**린다.  
(행실 배우라고 했더니 과붓집 강아지를 때린다)
- 물명훈 **죤**손 **조**상 **직**훈다.  
(미련한 자손이 조상 지킨다)
- 생이다리 **ㅎ**나로 **백** **놈** 잔치해도 다리 **ㅎ**나 **남**나.  
(새다리 하나로 백 놈 잔치하여도 다리 하나 남는다)
- 팔자가 **쌔**민 식전에 **씨**어멍이 아은아웁.  
(팔자가 사나우면 식전에 시어머니가 아흔아홉)
- 국 하영 먹으민 **가**시어멍 **눈** 멜라진다.  
(국 많이 먹으면 장모 눈 망가진다)

## (4) 위트

풍자와 해학이 그렇듯이 해학과 위트 역시 상호대바가 불가피하다. 해학이 성격적이고 기질적인데 비하여, 위트는 지적이며 서로 다른 사물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유사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경구나 격언같은 압축되고 정리된 말로 능숙히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해학에 비하여 빠르고, 날카롭고, 주관적이고, 기술적인 재치가 넘치는 기발한 언어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다<sup>87)</sup>. 이 위트의 속성, 즉 機智는 언어를 무기로 하여 敵對者를 조소하는 데 그 기원을 두고 넌센스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트는 기발한 언어적 표현으로서 才談은 물론 疎隔效果를 제공하는 화법이며 화술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俗談은 위트와의 밀착도가 어느 골계미보다도 가중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속담 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음미해 보면 사리에 적절한 재치덩어리의 명언이 될 수 있기 때문

87) 李商燮, 「文學批評用語辭典」, 民音社, 1976, p p. 290 ~ 291.

이다. 그런데도 속담 전부가 위트일 수 없는 것은 진실을 말할 뿐이지 驚異感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의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위트라고 하는 것은 두뇌회전에 의한 奇特한 표현력의 산물임을 입증해 주는 동시에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이 없이는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本島俗談에서의 위트는 정상의 것을 비정상의 것으로 비정상의 것을 정상의 것으로 言述함으로써 인간사와 자기변호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 보름은 눈 트꼭, 보름은 눈 아둡나.

(보름은 눈 뜨고, 보름은 눈 어둡다)

이 俗談은 文盲인 자신을 호도하는 일종의 靨變이고 넌센스이다. 糊口之策이 급선무인 당대의 실정에서는 일반서민으로서의 文盲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目不識丁은 언어적 인간(Homo loquens)으로는 비정상이다. 그러니, 글눈의 어두움을 교묘히 변명하려는 상식을 넘어선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例示〉

○ 글도 초면, 나도 초면.

(글도 初面, 나도 初面)

○ 가냐귀도 나 상제, 소로기도 나 상제.

(가마귀도 내 상제, 솔개도 내 상제)

○ 여잔 익은 음식.

(여자는 익은 음식)

○ 하룻굿 보젠 코 까끈다.

(하룻굿 보려고 코 까는다)

## Ⅳ. 濟州島俗談의 素材 · 職能

俗談은 실생활이 반영된 民俗語이므로 그를 통해 선인들의 생태와 사고방식, 언어생활의 재치까지 밝혀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속담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소재와 직능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문학작품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유효적절한 소재를 선택하여 작품화했는가에 따라 우열이 가늠되는 것처럼, 속담에 있어서도 소재는 언중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話素로서 통속성의 特長을 살리는 관건이 된다. 그만큼 속담은 체험을 통한 직관적인 진의 세계를 언술한 것이므로, 생활과 밀착된 인물과 동식물, 의식주와 연관된 생활용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능면에서도 그 속담이 형성된 배경을 뒷받침하는 직능과 직결되고 있다. 이를테면, 農耕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潛漁나 行商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그 직능상의 기능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本島俗談인 경우는 생계관과 연관된 生業俗談類가 고유의 향토성과 島民의식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속담의 소재와 직능은 本島俗談研究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 1. 素材

本島俗談의 핵심소재는 人物素材(표. 1에 제시), 生物素材(표. 2에 제시), 衣食住素材(표. 3에 제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식주와 관련된 소재들은 本島 고유의 생활양식과 풍속, 전통문화의 맥락을 엿볼 수 있는 민속자료의 명칭을 밝힌 목록의 구실까지 겸하고 있다.

이제 이들 소재 즉 속담의 話素 중 具象語로 된 名詞를 대상으로 분류해 본 결과 인물과 인체에 대한 소재가 400개로 가장 많고, 의식주의 소재가 265개, 동식물인 생물소재는 199개로 나타났다.

한국속담학에서 소재분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金善豐에 의해 이뤄진 「韓國民俗大觀6」의 〈俗談〉부분이 그것이다<sup>88</sup>. 여기서 方鍾鉉편 「俗談大辭典」에 수록된 4,784어휘의 名詞 소재를 분석하고 그 결과 드러난 양상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本島俗談의 소재양상과 性向을 살피고자 한다.

### (1) 人物素材

〈표·1〉

人 物 素 材

| 上位材 | 中 位 材 | 下 位 材                                                               | 計   | %     |
|-----|-------|---------------------------------------------------------------------|-----|-------|
| 人 物 | 男子    | 親族<br>父·子(각6) 夫·婿(각5) 媳父(3) 祖父·<br>聘父·孫子(각2) 兄·弟·오빠·계부·양자<br>(각1)   | 36  | 12.20 |
|     |       | 一般<br>孝子·男子(각3) 홀애비(2) 총각·고자<br>(각1)                                | 10  | 3.39  |
|     |       | 階層<br>漁夫(4) 村長·地官(각2) 양반·목사·도원<br>수·좌수·목수·머슴·시골놈(각1)                | 15  | 5.08  |
|     |       | 누계                                                                  | 63  | 21.36 |
|     | 女子    | 親族<br>母(15) 妻(12) 딸(8) 며느리(7) 계모(6) 노파(5)<br>媳母(3) 聘母(2) 누이·시누이(각1) | 60  | 20.34 |
|     |       | 一般<br>여자(14) 처녀(7) 과부(4) 새침뚜기·허위<br>대(각1)                           | 27  | 9.15  |
|     |       | 階層<br>妾(7) 海女(15) 선비부인(1)                                           | 13  | 4.41  |
|     |       | 누계                                                                  | 100 | 33.90 |

88) 金善豐, 前掲書, p p. 578 ~ 591.

|        |    |                                                                                        |                                                               |       |       |
|--------|----|----------------------------------------------------------------------------------------|---------------------------------------------------------------|-------|-------|
| 通性     | 親族 | 자식(9) 부모·사돈(각6) 자손·외조카(각3)<br>친족·외삼촌·조상·부부·육촌·칠촌·팔촌(각1)                                | 34                                                            | 11.53 |       |
|        | 一般 | 사람·애기(각20) 아이·명칭이(각5) 원<br>수(3) 막내(2) 손님·주인·벗·임·상돛군·<br>예산장이·채면장이·놀이장이·깍정어·<br>호사가(각1) | 65                                                            | 22.03 |       |
|        | 階層 | 도둑(11) 거지(6) 부자(5) 상인·심부름군<br>(각3) 중·광인·무당·종·갓장이(각1)                                   | 33                                                            | 11.19 |       |
|        | 누계 |                                                                                        | 132                                                           | 44.75 |       |
| 총 계    |    |                                                                                        | 293                                                           | 100   |       |
| 身<br>體 | 部位 | 四肢                                                                                     | 발(10) 손(6)                                                    | 16    | 15.24 |
|        |    | 器官                                                                                     | 음부(18) 눈(14) 입(13) 코(8) 귀(7) 이빨·창<br>자(각4) 목·배(각3) 젖(2) 태반(1) | 77    | 73.33 |
|        |    | 外貌                                                                                     | 얼굴(6) 눈썹(3) 머리(2) 상투(1)                                       | 12    | 11.43 |
|        |    | 누계                                                                                     |                                                               | 105   | 100   |

〈표 1〉에 드러난 295개의 인물소재와 105개의 인체소재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1) 인물소개 중 男女의 구별이 없는 通性이 132개로 많고, 다음으로 여자가 100개, 남자가 63개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倍數 가깝게 더 많다. 이것은 本島 특유의 三多(石多·風多·女多) 중 女多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女多의 내력은 출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環海天險의 입지성에 따른 역사적 현실에 의한 남자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남정네는 賦役과 貢賦에 시달리며 海上漂沒의 화를 당해야 하므로 여자수의 증가는 필연적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古記를 보면,

“제주 사람 孫孝枝가 말하기를 우리 제주는 멀리 大海 가운데 있어 파도가 어느 바다보다도 더욱 심하고, 진상 다니는 배와 상선은 연락부절인데 표류하고 표몰하는 것이 열에 다섯 여섯이 되고, 섬사람들은 표류해서 안

죽으면 반드시 침몰하여 죽기 때문에 제주지경 안에는 남자 무덤은 가장 적고, 마을에서 여자는 많기가 만자의 세 배나 되므로 부모된 자로서는 여자를 낳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우리를 잘 섬길 자라 하고, 남자를 낳으면 다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애가 아니라 고래와 드렁허리의 먹이라 하였다.”<sup>89)</sup>

또, 李元鎮의 「耽羅志」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어서 절간에 중도 절결에 가정을 가지고 처자를 살린다. 비록 절인이라 해도 처첩을 거느리고 있다. 또 공적 사적으로 온 반하고 장사하는 배의 왕래가 빈번한데, 바닷길은 험하고 멀어서 자주 표류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여자 낳기를 중히 여긴다.”<sup>90)</sup>

이와 같은 처지에서 여자는 남자에게만 의존해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했으므로 역동적으로 매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활상을 반영시킨 것이 本島의 女性俗談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拙稿 ‘濟州島의 女性俗談’<sup>91)</sup>에서 밝힌 바 있고 〈VI. 濟州島俗談의 性向〉에서 논급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인물소재 중 친족에 관한 것이 많고, 계층에 관한 것은 적게 나타나고 있다.

89) 金尚憲, 前掲書, p. 54.

“濟州人孫孝枝曰 我州處在大海中 波濤視諸海 尤爲凶暴 貢船商船 經緯不絕 漂流沈沒.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 則必死於後 故境中男墳最少 閭閻之間女多三倍於男 爲父母者生女 則必曰 是善孝我者 生男則皆曰 此不我兒 乃鯨龜之食也云”

90) 李元鎮, 「耽羅志」, 前掲 耽羅文獻集, p. 214.

“女多男少 僧皆作家寺傍以畜妾子 雖行乞者 並畜妻妾 且公私 運販之船 絡繹不絕 海路險遠 屢致漂沒 故州人以生女爲重”

91) 高在奐, “濟州島의 女性俗談”, 「국어국문학」 제86호, 국어국문학회, 1981.

이것은 생활구조가 가정과 혈연관계를 중시한 인간관계와 생활기반을 주축으로 결속된 생활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층에서 드러난 지위는 남자인 경우는 도원수·좌수·촌장·양반이고, 여자인 경우는 선비부인 정도이다. 실제 俗談에서도 별슬과 지위를 탐내거나 연연하는 것은 별로 없다.

3) 人體部位에 대한 소재는 ‘창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可視的 部位이고, 그 가운데도 器官에 해당하는 것이 四肢나 外貌보다 3배에 이르고 있다.

단일부위로 陰部(18)가 많은데, 이것은 陰談悖說이 흥미를 돋구는 것처럼 생리적 심리를 통해 感應을 일으키려는 원초적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韓國民俗大觀6」의 ‘常말’ 부분에도 음부(29)가 55) 다음 두 번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sup>92)</sup>으로 보아 性[sex]의 문제는 본능적인 공동관심사로서의 俗性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고 음란한 행위를 방관조장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없다. 話素로 활용할 뿐이지 本意는 오직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있다.

### (1) 生物素材

다음의 〈표 2〉는 166개의 동물소재와 33개의 식물소재로 구분하여 분류한 것인데, 이들을 검토해보면,

1) 동물소재는 家畜類가 野生類와 魚貝類를 합친 것보다도 2배나 웃돌고 있는데, 개(33), 말(29), 소(25), 돼지(10), 닭(5), 염소(1) 등 가축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韓國民俗大觀6」에는 가축을 동물로 한테 묶어서 처리했는데, 개(86), 소(67), 虎(53), 말(42), 쥐(38), 닭(31), 고양이(25), 돼지(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3)</sup>. 이것을 本島와 비교해보면, 虎·

92) 金善豐, 前掲書, p. 584.

93) 金善豐, 前掲書, p. 579.

〈표·2〉

生物素材

| 上位材 | 中 位 材 | 下 位 材                                                                              | 計   | %     |
|-----|-------|------------------------------------------------------------------------------------|-----|-------|
| 生 物 | 動物    | 家畜 개(33) 말(29) 소(25) 돼지(10) 닭(5) 염소(1)                                             | 103 | 51.76 |
|     |       | 野生 가마귀, 꿩 (각 8) 새(7) 노루, 솔개, 뱀, 쥐, 고양이, 이 (각 2) 지내, 굴병이, 배짱이, 나비, 파리, 매, 오소리 (각 1) | 42  | 21.11 |
|     |       | 魚貝 고등, 게 (각 4) 소라, 성게, 복어, 멸치 (각 2) 전복, 송어, 조기, 뽕바리, 볼락 (각 1)                      | 21  | 10.55 |
|     |       | 누계                                                                                 | 166 | 83.42 |
|     | 植物    | 木 나무(15) 소나무, 죽나무 (각 2)                                                            | 19  | 9.55  |
|     |       | 莖 쉼(2) 덩불, 하늘타리 (각 1)                                                              | 4   | 2.01  |
|     |       | 草 잡초(6) 띠(2) 엉겅퀴, 미역 (각 1)                                                         | 10  | 5.03  |
|     |       | 누계                                                                                 | 33  | 16.58 |
| 총 계 |       | 199                                                                                | 100 |       |

취·고양이를 제외한 가축류는 대동소이하다. 두 쪽 전부 개가 첫째로 등장한 것은 사람과의 친밀감과 실리성 있는 영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는 애완용보다는 집을 지키고 사냥을 시킴으로써 家計에 보탬을 얻어 보자는 데서 많이 길렀다. 반면에 대우를 못 받는 비유의 대상이기도 했다.

## ① 개 값.

(개 값)

## ② 갠 지 발콥만이 먹어도 산다.

(개는 제 발톱만큼 먹어도 산다)

## ③ 개도 비차락으로 안 뜀린다.

(개도 빗자루로 안 때린다)

①의 속담은 혈값을 드러낸 말이다. 옛적에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값을 치루고 사가는 일은 극히 드물다. 먼저 갓다 기르는 것이 임자가

되어버릴 정도로 값을 제대로 못 받았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②는 배가 불도록 먹일 수 있을 만큼 식생활이 유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에게는 그 말뚱만큼만 먹이를 주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식량난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또 ③에서는 아무리 비천한 동물이기로서니 빗자루로 때려서야 되겠느냐는 것인데, 이처럼 개는 대우를 못 받는 존재로 비유되는 동물이었다.

특히 가축 중 牛馬가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소보다 말의 등장이 많은 것은 그만큼 내력이 있다. 역사적으로 本島馬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蒙古가 三別抄軍을 정벌한 후 1278년(忠烈王 三年) 元의 牧馬場으로 예속시켜<sup>94)</sup> 100여년 간을 지배했었다. 그 결과 濟州島(조랑말)의 번식을 가져 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史料는 직능별로 검토한 畜産에서 다루겠다.

2) 동물소재는 전부가 本島에 서식하고 있는 것들 뿐이다.

韓本土의 속담에는 호랑이·사자·토끼·고슴도치·코끼리·여우·원숭이·늑대 등 다양하지만, 本島에는 이들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소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오직 本島의 풍토성과 연관된, 그것도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실생활과 밀착된 속담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식물소재는 나무와 풀(잡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식물의 골격은 역시 나무와 풀이 그 총체라는 점에서 생계관과 직결된다. 풀(잡초)은 농경생활에서 제거되지 않고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天敵이다. 농부는 곡식밭에서 이들 잡초 제거에 한여름 불벌 아래 땀을 흘리면서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했다. 이때 피로감을 덜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노동요인 김매는 노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방의 바다인 데도 해초류는 예상외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애기짐과 미역짐은 무거워도 안 버린다>에 드러나 있는 ‘미역’이 고작이다.

9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濟州牧 建置沿革.

“……忠烈王三年 元爲牧馬場……”

## (3) 衣食住素材

〈표 3〉

衣食住 素材

| 上位材 | 中位材 | 下位材                                                                                                                  | 計   | %     |
|-----|-----|----------------------------------------------------------------------------------------------------------------------|-----|-------|
| 衣食住 | 食生活 | 動物性 고기(8) 달걀(3) 간(1)                                                                                                 | 12  | 4.55  |
|     |     | 植物性 밥(15) 떡(10) 죽(8) 장(7) 술(6) 좁쌀(4) 쌀·콩·보리(각3) 개떡·가지·오이·복숭아·고사리(각2) 두부·식초·매밀·범벅·깨·호박·딸기·고추·모람·마늘·콩잎·김치·나물(각1)       | 83  | 31.44 |
|     |     | 用具 말(4) 칼·술·병(각4) 허벅·항아리(각3) 함박지·방아·바구니·삼태기·담배대(각2) 잔·접시·사발·시루·족박·길마·지개·쇠스랑·망태·자루·명석·흙·마개·비·맷돌·방망이·쟁기·죽젓개·부지쟁이·키(각1) | 53  | 20.08 |
|     |     | 其他 물(14) 음식(7) 기름·국(각4) 약·은단·설탕·반찬·건더기(각1)                                                                           | 34  | 12.88 |
|     |     | 누계                                                                                                                   | 182 | 68.94 |
|     | 住生活 | 집(21) 담(15) 길(9) 불(7) 문(5) 울타리·헛간·방·지붕·변소·돌쩌귀(각1)                                                                    | 64  | 23.86 |
|     | 衣生活 | 신(6) 옷(4) 내의·치마·모자(각2) 삼·명주·바지(각1)                                                                                   | 19  | 7.20  |
| 총   | 계   |                                                                                                                      | 265 | 100   |

위 〈표 3〉은 의식주 생활에 관련된 265개의 소재를 그 多寡順에 따라 배열한 것인데, 식생활의 소재가 182개로서 住·衣생활의 두 소재를 합친 83개보다도 갑절이나 더 웃돌고 있다. 이것은 식생활문제가 생계관의 핵심임을 보여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동물성과 식물성을 비교해 볼때, 동물성은 겨우 12개이지만 식물성은 83개로 7배에 가깝다.

이것은 당시의 식생활상을 그대로 되비춰주는 食單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 植物性の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의 인삼>이라고 했듯이 主食의 제일호는 밥이요, 그 다음으로 떡·국·장·술……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國民俗大觀6」에는 떡이 음식물 가운데는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고<sup>95)</sup>, 나머지는 별로 큰 격차가 없다. 단, 동물성에 해당하는 알·새우젓·선지국이 더 겨 있다.

本島에서의 동물성 특히 고기는 肉類가 아닌 바닷고기(魚類)로서 현재와 같은 山海珍味の 食道樂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곤궁한 삶이었다. 어쩌다 忌祭日이나 잔치, 생일 때나 먹을 수 있었을 뿐 평상시에는 엄두도 못 냈다. 지금도 노인네는 반찬 투정하는 家童들에게 어렵게 살아온 옛날의 식생활상을 자주 회상시키곤 한다.

○ 두린눔 헛간 들러먹듯 한다.

(미친놈 헛간 휩쓸어 먹듯 한다)

이런 속담만 보더라도 얼마나 肉食을 갈망하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2) 식생활과 관련된 用具는 農具와 炊事具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本島의 생활방식과 문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농경사회의 전통민속용구로서 허벅·함박지·길마·쇠스랑·망태·명석·맷돌·방아·시루·쪽박·죽젓개·키·방망이 등은 현대식 대용품의 등장으로 이미 사용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도적으로 보존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韓國民俗大觀6」에는 의식주별로 구분하지 않고 器物과 住居로 한데 묶어서 나열하고 있는데, 간추려 보면 술과 그릇(각4), 도끼·방앗공

95) 金善豐, 前掲書, p. 583.

이 · 자루 · 독 · 바가지 · 명석 · 맷돌 · 절구(각2)…… 등으로” 나타나 농경사회로서의 공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식생활 소재는 土着民의 토속적 생활풍토를 感知할 수 있도록 물증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실제 속담에서도 80여편이 먹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住生活에 관계된 소재들은 집이 많고 그 다음으로 담 · 길 · 불 · 문……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살아가는 데는 우선 식생활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몸을 담고 거처할 집도 중요하다. 집은 안정을 다지는 정착지이자 보금자리인 것이다. 오죽해서야 집이 없는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직감할 수가 있다.

○ 게드레기도 집은 싣나.

(집게도 집은 있다)

○ 강이 보말도 집은 싣나.

(계와 고둥도 집은 있다)

○ 구쟁기 뒤보래 가불민 게드레기가 차지한다.

(소라 뒤보러 가버리면 집게가 차지한다)

이처럼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自立의 척도가 되었다. 지금도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韓國民俗大觀6」에도 집이 첫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sup>96)</sup> 本島의 경우와 같고, 나머지 쇠 · 절 · 굴뚝 · 송곳은 현재 채록된 자료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눈여겨 볼 것은 本島 특유의 三多 중 石多인 ‘담’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미학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종전에는 島民에게 시련과 고충을 안겨 주었다. 그러면서도 단

96) 金善豐, 前掲書, p p. 581 ~ 582.

97) 金善豐, 前掲書, p p. 581 ~ 582.

순한 돌맹이로서의 물체감각이나, 아니면 인식의 차원에서 굴절된 의식의 매체로 다루었느냐에 따라 돌의 이미지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 ① 돌은 차민 지 발뽀만 아프다.  
(돌을 차면 제 발부리만 아프다)
- ② 애기 어멍 삼스월엔 돌이라도 니 아니 들영 못 먹나.  
(애기 어머니 삼사월에는 돌이라도 이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 ③ 담 터진 밧디 ㅁ쉬 안 들라.  
(담 허무러진 밧에 우마 안 들라)
- ④ 승에 튀난 복쟁이도 튀단 원담<sup>98)</sup>에 배 걸령 죽나.  
(승에 튀니 복어도 튀다가 원담에 배 걸려서 죽는다)

① ②의 속담은 돌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물체감각만을 적용시킴으로써 외연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③ ④인 경우는 같은 돌이라도 '담'은 自然石으로서의 돌이 아니라, 그 돌을 轉用시켜 생활에 대한 실용성과 守分意識의 상징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복합적 이미지로 굴절시켜 놓고 있다.

4) 의생활 소재는 食·住생활의 소재에 비해 양적으로 뒤지고 있고 옷이 절대적이다.

옷 치레는 지금도 호사스럽고 사치한 것으로 꼽는 판국이고 보면 식생활과 주생활이 순탄치 못한 실정에서 옷 문제는 그렇게 절실한 것이 아니었다. 옷의 날개라는 말은 의생활이 변변치 못해 돌보일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일 뿐 생계의 절박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의생활에 필요한 재료만 보더라도 島內에서는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島外에 의존해야 했으므로 자급자족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여인네들이 가내부업으로 탕건과 양태를 만들어 공급하는 정도였다.

「韓國民俗大觀6」에는 住居 속에 포함시켜 버렸다. 여기에 나타난 의

98) 썰물 때 고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바다에 둘러싼 돌담.

생활 소재만 선별해 보았더니, 바늘(7)·가죽(2)·물레·빚·안반·반지·베를·홍두깨(각1) 등 15개에 불과했다<sup>99)</sup>. 이것은 本島의 19개보다 밑도는 것으로 실제 속담에서도 의생활에 대한 것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인물, 생물, 의식주별 소재를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는 本島의 풍토성과 생계관에 의한 생활상이 반영된 話素들이 그대로 本島俗談의 속성과 윤곽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島民生活의 전개과정이기도 한 식생활→주생활→의생활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 2. 職能

俗談은 教化를 위한 비평과 叱責을 통하여 감화력을 촉발시키는 기폭제의 구실을 한다. 이 말은 인간생활의 어느 영역을 불문하고 속담의 기능이 적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면서도 그 기능이 미치고 있는 職能別 검토는 아직껏 구체적으로 이뤄진 바 없다. 있다면 사상성에 입각한 重農主義思想<sup>100)</sup>이 거론되었고, 자료집으로 全羅南道에서 발간한 「農事俗談集」<sup>101)</sup>과 「漁村俗談集」<sup>102)</sup>이 있다.

그러나, 本島에는 아직껏 이렇다 할 생업속담집이 출간된 바 없다. 그것은 생업속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채록이 이뤄지지 못한 데 기인한다. 제대로 된 채록이 이뤄질 경우 농경속담은 물론 潛漁業을 중심으로 한 해양속담 특히 海女の 생활상이 담긴 潛嫂俗談은 한국여성속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 놓을 수가 있다. 이런

99) 金善豐, 前掲書, p p. 581~582.

100) 金善豐, 前掲書, pp. 597~598.

“ ”,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韓國民俗學」第5号, 民俗學會, 1972, pp. 17~18.

101) 「農事俗談集」, 全羅南道農村振興院, 1980.

102) 「漁村俗談集」, 全羅南道, 1979.

점을 고려해서라도 각 직종별로 선별하여 그 실상을 살필 때 本島俗談의 속성은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직종별로 그 기능이 살아남는 직능속담을 선별해 보았더니, 550편 가운데 28%인 152편으로 나타났다. 그 중 노동에 관계된 것이 135편이고, 나머지는 行商・工夫・官職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노동이라 함은 직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農事・漁撈・潜水・畜産・狩獵 등과 같은 것도 있지만, 무슨 직종인지 드러나지 않은 그저 노동의 기능만을 가진 것도 상당수 있다. 이를테면,

① 눈썹에 불부터도 끌 저를 웃다.

(눈썹에 불붙어도 끌 겨를 없다)

② 김이 보말도 집은 싣나.

(게와 고둥도 집은 있다)

①의 속담은 분명 노동과 밀착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직능별 직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는 노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②의 속담인 경우도 분명 海洋俗談에 해당하지만 직능과는 거리가 멀다. 소재가 바닷생물일 뿐이지 속담자체의 기능은 직능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 속담에서 소재와 직능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직능별 기능까지 갈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직능별 속담에서는 제외시켰다. 만약 소재의 속성만을 놓고 따진다면 직능속담의 분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소재와는 관계없이 직능구분이 가능한 속담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 (1) 勞動(29편)

노동은 봉건제도의 서민들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였다. 현대의 산업사회와는 달리 모든 생산수단이 육체노동에 의해 이뤄졌다. 또 그 범위도 광범하여 開化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19세기말 이전으로 거슬

러 올라갈수록 그 한계가 불분명했고 노고도 심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노동은 구체적인 직능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勞作을 권장하거나 독려하는 속담들을 한데 묶었다.

○ 줍쌀만이 애겨땅 담돌만이 해롭다.

(줍쌀만큼 아꼈다가 돌맹이만큼 해롭다)

○ 애기 어멍 쿨은 닷 돼, 애기 업개<sup>복</sup> 쿨은 훈 말.

(애기 어머니 품삯은 닷 되, 애기 업개 품삯은 한 말)

이들 두 속담은 농사생활의 단면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으나, 결코 농사의 직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만사에 줍쌀만큼이라도 게을렀다가는 돌덩어리만큼 해를 입게 되니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근면과 성실을 독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량과 고충에 비례했다. 애기를 돌보는 것이 더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애를 데리고 있는 乳母는 자주 애기에게 젖을 줄려고 하면 하던 일이 그만큼 중단된다. 그러니 책임량으로 보면 애기 어머니는 일의 능률이 저할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루 품삯으로 정해져 있는 곡식 한 말을 다 받지 못하고 그 반인 닷 되를 받지만, 애기를 돌보는 아이는 오히려 제대로 된 품삯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의 능률을 해아린 웅분의 노고의 보상임을 알 수 있다.

#### 〈例示〉

○ 편안이 가난.

(편안이 가난)

○ 독도 지 압씩 근어먹나.

(닭도 제 앞만씩 헤집어 먹는다)

○ 올르는 영장에 가지 말앙 지게 송장에 가라.

(요란한 영장에 가지 말고 지게 송장에 가라)

○ 일은 아이 일 머긋은 황밭갈새.

(일은 아이의 일 먹성은 황소)

○ 흠아방은 왜문에 왜돌쳐귀, 흠어멍은 청동화리가 아읍.

(흠애비는 외문에 외돌쳐귀, 흠애미는 청동화로가 아읍)

## (2) 農事(28편)

농업은 제1차 생업이었다. 火山灰土의 척박성과 三災인 물·바람·가뭄의 피해로 해 걸러 흉년이다시피 기근에 허덕일 때마다 조정의 救恤로 생계를 유지했던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의 상황으로 농사에 대한 최대의 수단과 능력의 조건은 농토의 확보와 함께 노동력과 정신력의 합치였다. 이들 셋이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생계의 여유를 다소나마 가질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糊口之策이 난감했다. 왜냐하면, 농토가 많아야 많이 짓게 되어 설령 天災之變을 당해도 거둬드릴 것이 있기 마련이니 경작면적에 비례한 노동력과 그 과정에서 겪는辛苦를 초극할 강인한 정신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농사에 관한 俗談이 많을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28편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직종이 드러난 직능별 속담 중에는 제일 많은 편이며, 〈표 2,3〉의 소재분류에 나타난 植物性和 用具를 종합해 볼 때는 농경사회에 따른 本島 고유의 풍토성이 돋보이고 있다.

① 집 치레 말앙 밧 치레하라.

(집 치레 말고 밧 치레하라)

②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③ 가시아방 바도 조름으로 절한다.

(장인 보아도 뒤로 절한다)

④ 강정 아이들은 조팍 주켄 하민 안 울곡, 곤밥 주켄 하민 운다.

(강정 아이들은 조밥 주겠다면 안 울고, 쌀밥 주겠다면 운다)

①의 속담은 밭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重農主義 사회에서는 생산적인 면에서 밭이 훨씬 앞서기 때문이며, 富의 척도도 농토를 많이 가지고 거기서 걸워드리는 곡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평가되었다. 〈촌 부자 밭 부자〉라고 한 것도 농토에 의한 富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에서는 天災의 피해가 변화난층하여 시기적으로 早期에 播種한 사람이 좋은 결실을 맞을 때가 있는가 하면, 느지막에 파종한 사람이 이득을 볼 때가 있다. 그러니 천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농사꾼을 읽을 수 있다. 또 ③인 경우를 보면 얼마나 농사에 일손이 달렸기에 모처럼 찾아온 장인을 보고도 뒤로 인사를 할 정도이니 노동력이 생계의 득실을 좌우하는 요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④의 속담은 형태의 事緣型에서도 상세히 언급한 바 있지만 같은 島內에서도 지역적 특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마는 지표구조로 인해 논밭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강정천(江汀川) 주변에는 물이 흘러넘쳐 논밭이 형성되어 질이 좋은 벼가 생산되었다. 그래서 이 곳의 어린 아이들은 쌀밥을 자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밥이 더 희귀한 것으로 알았다.

#### 〈例示〉

- 케운 쿨 케우젠 ㅎ민, 미운 쿨도 케와 진다.  
(좋은 종자 아끼려면, 나쁜 종자도 아껴진다)
- 송년에 밭 풀젠 말앙 입 ㅎ나 덜레라.  
(흙년에 밭 팔려 말고 입 하나 덜어라)
- 유월 마당질엔 애기 젓맥이명 숨드리운다.  
(유월 타작질에는 애기 젓 먹이면서 숨 들이신다)
- 도 막은 밭 작제 웃나.  
(길 막힌 밭 살 사람 없다)
- 검질 짓곡 굴 늦인 밭딘 소리로 우경 간다.  
(풀이 우거지고 굵이 긴 밭은 노래로 우기며 간다)

## (3) 潛漁

環海天險의 입지적인 여건은 本島의 선인들로 하여금 바다를 제2의 생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응력과 패기를 길러 주었다. 테우<sup>143)</sup>를 만들어 타고 고기를 잡고 멸치와 자돔을 그물로 떠내거나 바다 깊이 자맥질하여 海物을 채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해변에 있는 촌락은 농사와 潛漁를 병행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낮에는 밭일을 하고도 밤이면 뉘대를 들어야 했고, 멸치떼가 몰려오면 밤 세워 그물질을 해야만 가장 확실한 생계보장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해양생활(잠어생활)을 반영시킨 속담들을 한데 모아 潛漁俗談 또는 海洋俗談이라 명명하고, 바다에 대한 적응력과 활용상을 살피기 위해 潛水와 漁撈를 구분하였다.

## 1) 潛水(19편)

潛水 곧 潛業은 本島 고유의 독자성을 지닌 생업의 하나로서 여인의 자맥질에 의해서 이뤄지는 세계적인 작업이다. 민요연구와 함께 海女の 실태를 추적해 온 金榮敦에 의하면, 해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있고 이 지구상 다른 곳에는 본격적인 직업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sup>105)</sup>. 또 이들 해녀의 활동 무대도 한반도 일대와 일본, 러시아까지 광역화됐었다고<sup>106)</sup> 하니, 그 고충은 형언할 길이 없다.

英祖 때 申光洙는 그의 운집 「石北文集」 耽羅錄에서 해녀의 고된 작

103) 애기 돌보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 주로 노동력이 없는 아이나 노인이 맡는다.

104) 통나무를 엮어 뗏목처럼 만든 배.

105) 金榮敦,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 第5号,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6. p. 227. 1986,

106) 金榮敦, 「濟州島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論叢」, 1971, pp. 309~310

업과 숨비질<sup>107)</sup>의 모습을 목격하고 潛女歌를 읊었는데, 그 首聯에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다.

탐라 여자들 잠수질에 능하니라.  
열 살에 벌써 앞 냇가에서 배운다.  
이곳 풍속에 신부감으로서는 잠녀가 제일이라며,  
부모들은 의식 걱정 않는다고 자랑하네.  
나는 북쪽 사람이라 듣고도 믿지 않았건만,  
왕사로 이제 남쪽 바다에 와 알았나니라<sup>108)</sup>.

이렇듯 해녀는 本島의 특유한 직업여성으로서 바다에 死活을 건 잠수생활의 독보적인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수요가 날로 줄어들어 濟州道農水產統計事務所가 밝힌 바에 따르면 1985년 현재 7,64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970년대의 19,805명에 비하면 무려 12,156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생계여건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시대의 해녀는 천민으로 멸시를 받아야 했고, 애써 채취한 해산물도 관리들에게 빼앗기고 나면 노고의 대가를 못 찾는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특출한 묘안과 생계수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잠수질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바다 밑을 누비는 강인한 여인의 기질을 다졌던 것이다.

① 잠녀는 해녀를 낚는 사흘이면 물에 든다.

(해녀는 해녀를 낚고 사흘이면 바다에 든다)

107) 물 속에서 숨을 멈추고 지내는 것인데, 보통 10세 전후에 해업을 배우는 것이 상례이다. 이 때부터 익힌다. 해녀들이 물 속에 있다 물 위로 나와서 換氣하는 숨소리를 숨비질소리라고 한다.

108) 尹敬洙, '申石北의 「耽羅錄」考', 『石溪李明九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p. 41.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土俗婚姻潛女,  
父母誇無衣食憂. 我是北人聞不信, 奉使今來南海遊.”

② 유름터엔 다음 물찌에도 쏜다.

(으름터에는 다음 무수기에도 있다)

③ 질삼밭 늘그닌 죽언 보난 미녕소중이<sup>109</sup> 가 아홉이곡, 줍녀 늘그닌 죽언 보  
난 일곱 애비 아덜이 들르는 도곰수견<sup>110</sup> 이 하나인다.

(질삼밭 늙은이는 죽고 보니 미녕소중이가 아홉이고, 해녀 늙은이는 죽고  
보니 七父子가 드는 도곰수견이 하나이다)

①의 속담은 해녀의 강인성과 근실성을 나타낸 것이다. 출산 후 3일  
이면 바닷속에 뛰어들어 작업을 할 정도이니 당시의 생활상이 어떤 것  
인지 알고도 남는다. ②의 속담은 잠수생활의 경험을 통해 확보해 놓  
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효험의 비밀 전복 채취소를 일컫는 말이다. 여  
기서의 으름은 전복을 林下夫人으로 은유함으로써 신성성을 복돋우려  
는 심리적 표현인 것이다. ③의 속담은 織婦보다 海女의 노고가 더 많  
았음을 七父子가 들어올리는 고쟁이類의 내의 하나로 과장시켜 표현하  
고 있다. 혹시 島外에도 해녀와 관계된 속담이 있을까 하고 자료집을  
뒤져 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앞으로 속담에 대한 직능별 검토가  
따를 경우 이들 잠수속담은 논의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여성속  
담의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例示〉

○ 줍녀 애긴 일웨만에 젓 맥인다.

(해녀 애기는 이레만에 밥 먹인다)

○ 물 아래 삼년, 물 위이 삼년.

(물 아래 삼년, 물 위에 삼년)

○ 줍녀 애긴 골체에 눅저 텡 물질한다.

(해녀 애기는 삼태기에 눅혀 두고 잠수질 한다)

109) 〈註·52〉 참조.

110) 〈註·53〉 참조.

○ 한물<sup>111</sup> 아래 칼 받앙 든다.

(한물 아래 칼 받치고 들어간다.)

○ 삼월 보름 물찌에 도둑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삼월 보름 무수기에 도둑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 2) 漁撈(12편)

어업은 潛業과 함께 本島水産業의 근간을 이루는 생업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기술과 성능을 갖추고 국외로까지 뻗친 원양어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형태와는 비교할 바 못된다. 원시적인 沿岸漁撈의 영세성과 釣漁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선이라 해도 나룻배와 같은 帆船이거나 통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형태의 ‘테우’가 어선 노릇을 했다. 어로방법만 보더라도 주낙법과 藻魚類의 포획을 위한 投網法을 썼고, 때로는 해변에서 낚대를 드리우거나, 간만의 차를 이용한 방법이 하나로 ‘원담’을 두르고 썰물 때 빠져 나가지 못한 고기를 포획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렇게 해서 잡혀진 어류는 換穀되어 가게소득의 일익을 담당했는데, 이들 어로속담들은 주로 어부의 생활상과 釣魚에 관여된 豫報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① 어제기도 노릴 때 바사 안다.

(어부도 내릴 때 바야 안다.)

② 서물사리<sup>112</sup> 케기 안 묻다.

(서물사리 고기 안 묻다.)

①의 속담은 어획량의 많고 적음은 결과를 안 보고서는 모른다는 것이다. 어부들은 그날의 日辰과 財數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므로 둘이서

111) 음력 매월 10일과 25일간의 무수기.

112) 음력 매월 12일과 27일간의 무수기.

같은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해도 재수가 없으면 어느 한 사람은 찬기리도 못 낚고 올 때가 있다고 한다. ②의 속담처럼 매월 음력 10일과 25일께에 해당하는 무수기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힌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로의 체험을 통한 예보인데, 어부들은 이 주기적인 무수기의 운행을 잘 지켜 바다의 작업에 임했다.

그런데, 全羅南道の「漁村俗談集」을 보면 〈서무셋 날에는 눈 빠진 고기도 문다〉<sup>113)</sup>고 했다. 이것은 本島와는 정반대 현상인데, 본도의 속담이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서물'은 '조금' 후 3, 4일이 지난 무수기이므로 潮水가 완만하여 바다물의 유동이 별로 없게 마련이다. 그러니 고기가 잘 물일 때는 조수의 차가 두드러질 때, 그 중에도 들물(밀물)일 때 고기가 잘 잡이는 것이다.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잠수속담에 〈서물날은 물 아래로도 바람 분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때 고기들은 돌틈에 숨어 지내게 되므로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알수가 있다.

〈例示〉

- 초정월 우치민 ㅂ제기가 운다.  
(초정월 비바람치면 어부가 운다)
- 멜 들어난 뒤 큰 켈기 문다.  
(멸치 들었던 뒤 큰 고기 문다)
- ㅂ제기 사을 일긴 안다.  
(어부 사흘 날씨는 안다)
- 어시 켜 더 새끼 켜다.  
(어미 켜 데 새끼 켜다)
- 하늘 올영 날 존 날 시명, ㅂ름 불영 절 잘 날 시카.  
(하늘 올어서 날씨 좋은 날 있으며, 바람 불어서 물결 잔잔할 날 있을까)

113) 「漁村俗談集」, 全羅南道, 1979, p. 37.

## (4) 畜産(25편)

축산이라 함은 가축 전반에 걸친 飼育業을 뜻하지만 소와 말이 주축을 이뤘다. 牛馬는 농경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과 함께 노동력의 지보적 존재였다.

소의 사육 중 유다른 것이 하나는 黑牛飼育場을 설치했었다는 사실이다. 英祖 26年 加波島<sup>114)</sup>에 黑牛場을 설치하여 50首를 방목하고 進貢에 대비했는데<sup>115)</sup>, 검은 소의 살코기가 一味로 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은 소가 진상 간다〉는 속담을 형성시켰다. 또 말인 경우 〈표 2〉의 생물소재에서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말에 얹힌 내력과 사연은 꽤 많은 편이다. 지금도 本島産 조랑말이라면 토속적 희소가치가 높고 평가되어 행정적인 보호책까지 마련되고 있으나 점차 滅種되어 가고 있다. 古記錄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말의 사육장으로는 最適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의 濟州牧 古跡에 “고려 충렬왕 때에 원나라 塔羅赤이 소, 말, 낙타, 나귀, 양을 싣고 와서 水山坪에 방목하였는데, 말이 번식하였다.”<sup>116)</sup> 라고 했다. 또 李衡祥의 「耽羅巡歷圖序」에도 國馬가 9,372필이고 소가 703두라고 했던 것만으로 보아도 말의 사육이 소의 사육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本島는 말의 천국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마사육의 성행은 노동의 수단인 노동력의 제공에도 큰 몫을 하였다. 밭을 갈고, 밟고, 실어나르고, 연자방아를 돌리고, 없어서는 안 될 살아 움직이는 재산이었다.

114) 南濟州郡 大靜邑에 소속된 섬.

115) 金錫翼, 前掲書, p. 413.

“設黑牛場於加波島 牧牛五十首 以備進貢.”

116) “高麗忠烈王時 元塔羅赤載牛馬駱驢羊來 放于水山坪 馬畜蕃息.”

이밖에도 타지역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走馬之戲〉<sup>117)</sup>가 있어 官妓들이 乘馬놀이를 했었다고 하며, 특히 한라산 기슭에서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노니는 모습은 瀛洲十景의 하나인데, 이를 古藪牧馬라고 하여 外邦人들에게 흥취를 불러 일으켰다. 반면 朝廷에서 國馬의 점검도 엄격하여 亡失할 경우 그 머릿수를 채워놓지 않으면 刑을 받아야 하므로 牧子들의 겪는 고초도 심했다. 그 한 예로 英祖 20년(1744) 牧使 金潤은 곡식 5백석을 준비하고 牧子庫를 설치하여 貢馬의 자금으로 도왔다는<sup>118)</sup> 것도 國馬관리의辛苦를 드러낸 것이다.

또 닭과 돼지도 私家에서 사육했는데, 冠婚喪祭時 희생물로서 肉類의 유일무이한 供給源이었다. 돼지는 本島관계 문헌에 나타난 가축류로는 소와 함께 그 역사가 오랜 것으로 볼 수 있다. 本島의 원주민의 하나로 추정하는 州胡人시대에 관한 기록에 소와 돼지를 기르기 좋아했다고<sup>119)</sup> 한 것이 그것이다. 이미 생물소재에서 언급했지만, 本島의 가축은 개·말·소·돼지·닭인데, 실제 속담에도 이들이 고루 반영돼 나타나고 있다.

#### 〈例示〉

○ ㅌ를 썬 눈을 보곡, ㅈ를 썬 뺨을 보라.

(뿔 소는 눈을 보고, ㅈ를 소는 뺨을 보라)

117)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第三十八章 妓女地方的特色, 五·濟州妓生走馬之技, p. 195.

“蓋濟州 自蒙古時 置牧場而多產馬 故州妓女此技 亦因風土之使然者耳”

118) 金錫翼, 前掲書, p. 410.

“牧使金潤 別備穀五百石 設牧子庫 以助給貢馬之資”

119) 「三國志」, 魏志東夷傳 韓條末尾에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髮頭 始鮮卑 但衣韋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賣中韓”

「後漢書」에도 “馬韓之西海島上 有州胡國 其人短小 髮頭衣韋 衣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 (·)표는 筆者가 붙임.

- 물 한 디서 물 못 끌린다.  
(말 많은 데서 말 못 고른다)
- ㅎ 수룩엿 ㅁ쉬도 가깝게 내먹꼭 멀리 내 먹나.  
(같은 돈의 우마도 가깝게 나가 먹기도 하고 멀리 나가 먹기도 한다)
- 외조께 케느니 독 질왕 잡아 먹으라.  
(외조가 사랑하느니 닭 길러서 잡아 먹어라)
- 귀어나난 도새긴 또 귀어난다.  
(튀어났던 돼지는 또 튀어난다)

(5) 狩獵(6편)

本島에서의 수렵은 생업상 직업이라기보다 여가선용의 糊口之策이었다. 그 대상으로는 노루, 오소리, 꿩이었고, 주로 가을과 겨울에 울가미, 덫, 개를 이용한 사냥법이었다. 사냥개에게는 그 생김새나 색깔을 따서 ‘코서니, 동저니……’<sup>120)</sup> 등의 이름이 붙여졌고, 먹이도 밥덩어리를 얻어먹는 대우를 받았지만, 거저 평범하게 집이나 지키고 짚는 본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개는 부를 때도 ‘어리며머’로 통했다. 또 그 먹이도 겨를 버무린 것이 고작이었다.

사냥꾼은 요행도 따라야 하지만 항상 개가 움직이는 방향을 가늠하여 쫓아다녀야 했다. 날뛰는 들짐승을 포획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도, 어쩌다 애써 잡은 노루 한 마리가 제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 뒷다리 하나에 그치고 말 때가 있다. 왜냐하면, 들짐승은 임자가 없는 것이므로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포획현장을 목격하면 으레 한축에 꺼서 다리 하나쯤 얻을 수 있는 분배의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사람수가 많으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혼자서 사냥길에 나서는 것이 상례였다. 고생은 되지만 제 몫이 많아질 확률을 생각한 처신이다.

120) 코서니 : 코 부분이 회저나 줄이 그어진 개.

동저니 : 목 둘레에 마치 한복의 동전처럼 띠 색깔로 둘러져 있는 개.

○ 노리케기 혼 점 먹젠 혼당 지 케기 열 점 일른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 제 고기 열 점 잃는다)

노루 사냥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므로 노루고기 한 점을 먹으려면 자기의 고기 열 점을 잃을 정도로 노고가 뒤따른다는 뜻이다. 실생활에서도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 자신에게는 더한 고초가 있어야 함을 비유할 때 두루 쓰여진다.

〈例示〉

○ 집안에 든 꿩 놔뒀 밧뒀꿩 잡젠 혼다.

(집안에 든 꿩 노아두고 밧뒀꿩 잡으려 한다)

○ 나드는 개가 꿩을 문다.

(나드는 개가 꿩을 문다)

○ 사냥 들어사 개 가르친다.

(사냥 들어야 개 가르친다)

○ 사냥개 언 똥 들러먹듯 혼다.

(사냥개 언 똥 훔쳐먹듯 한다)

○ 지다리도 들 굴 날 굴 싣나.

(오소리도 들 구멍 날 구멍 있다)

(6) 行商(10편)

本島는 州胡人시대에 중국에 왕래하며 무역을 했다고 한 것으로<sup>121)</sup> 보아 韓本土와의 교역도 서기 2백년대에 이미 이뤄지고 있었음을 헤라려 볼 수 있다. 世宗 때 羅州教授官 陳 遵의 상소에도 농사와 누에 치

121) 〈註119〉 참조

기를 힘쓰지 않고 水陸의 산물로써 장사하여 생계를 삼고 있다고 했다<sup>122</sup>.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商行爲를 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絶海孤島인 점을 감해 볼 때 자급자족에 못 미친 생계보강을 위해서는 교역을 통한 생활필수품인 식량과 의류용 재료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를 정점으로 本島의 특산물인 魚貝類와 굴, 약초, 진주, 말총 등이 그 중요 상품이 되었을 것이다.

島內에서는 자체 생산품을 가지고 行商으로 촌락들을 순회하거나 장날을 중심으로 매매와 물물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장날은 상행위를 위한 市場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만남의 광장이기도 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지에게 소식을 전하고 듣고 정보교환까지 이뤄지는 다목적 집합소로서의 활용가치가 컸다.

당시 行商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속담을 보면,

○ 종달리<sup>123</sup> 소금 시판 암쇄 가름 돌듯 한다.

(종달리 소금 실은 암소 마을 돌듯 한다)

종달리는 염전이 있는 곳이므로 거기서 생산된 소금을 팔기 위하여 그 소금을 소에 싣고 마을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돌아다녔던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또 장날에는 으레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므로 음식장수가 있게 마련인데, 그 중에도 간단한 요거거리로는 떡이 적격이다.

○ 다음 장날 떡이 클지 죽을지 곳 아니 보민 물론다.

(다음 장날 떡이 클지 작을지 끝 아니보면 모른다)

122) 「世宗實錄」, 卷四 張二十三 世宗一年 己亥七月丙辰  
“或謂濟州土 墾民稠 不事農桑 以水陸所產 商販爲生”

123) 北濟州郡 舊左邑에 있는 部落으로 염전이 있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농경지로 전환시켜 현재는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다.

떡은 커야 하나만 먹어도 요기가 되니, 자연 사먹는 입장에서는 커야 좋겠고, 떡장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니 구매자의 선호도에만 부응할 수 없는 商魂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상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던지 결과를 보지 않고 미리 단안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例示〉

- 껌 장시 물 장시 먹어사 먹엇젠 혼다<sup>124</sup>.  
(깨 장사 말 장사 먹어야 먹었다고 한다)
- 어려와 가민 다심어멍 껌 꺾는 데 간다.  
(궁색해 가면 계모 껌 파는 데 간다)
- 말이 고우민 ㄴ진항 사례 가땅 헌항 사온다.  
(말이 고우면 새 항아리 사러 갔다가 헌 항아리 사고 온다)
- 돈은 세영 주곡 세영 받나.  
(돈은 세어서 주고 세어서 받는다)
- 버들 장신 버들 물영 죽나.  
(버들 장수는 버들 물고 죽는다)

(7) 工夫(11편)

학업 자체가 생업일 수는 없지만 직능상 공부로 분류시켰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된 자로서 자식 출세시켜 덕을 보려는 것도 무리는 아니나, 보다 더 간절한 것은 자기가 못다 한 것을 자식을 통해 구현하려

---

124) 껌 농사는 대풍이 예상되었다가도 뜻하지 않은 비바람이 치고나면 사그라지고 만다. 말 역시 시세를 잘 타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행수가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껌 상사와 말 장사는 막판의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이득을 가늠할 수 없음을 뜻한다.

는 욕망이 앞섰다. 그러기 위해서는 學德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므로 서당 강아지 3년이면 풍월 읊는다던가, 차돌도 뚫고 있노라면 구멍이 뚫인다는 이치를 부모나 訓長은 學童들에게 항상 되뇌이면서 독려했다.

그러나, 그런 독려나 소망과는 일치할 수만은 없는 엉뚱한 작태도 연출된다.

○ 글도 초면, 나도 초면.

(글도 초면, 나도 초면)

○ 글 배우렌 ㅎ난 홀어멍 칩 강생일 ㄸ린다.

(글 배우라고 했더니 과붓집 강아지를 때린다)

아무리 깨우치려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 책은 언제 대해도 初面과 같은 生面不知이니, 글공부는 다 글렀다. 그것까지는 좋으나 배우라는 글공부는 앓고 과붓집에 찾아들면 귀찮게 짚어대는 강아지나 때리고 다녔으니 공부는 고사하고 행실마저 빗나가 문제는 심각해 진다. 오늘날과 비할 때 시대적 배경만 다를 뿐 과열된 必要惡의 교육풍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재조명의 해학상이 담겨져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濟州牧, 學校)에 보면,

“鄉校在城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 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鄉校再造成  
……十室之邑尚有忠臣 三姓之地 豈無豪傑處 則教誨子弟 移孝爲忠出則奔走朝廷 揚名後世 以副盛朝漸磨化成之意 豈非州人之大華也耶.”<sup>125</sup>

125) “鄉校는 성안에 있다. 金處禮가 지은 비문에 우리 태조원년 임신에 성균관이 이뤄지고 세종 17년 을묘에 향교가 다시 이어졌다. ……열집이 되는 고을에도 오히려 충신 한 사람이 있거든 三姓이 사는 땅에 어찌 걸출한 이가 없리오, 집에 있어서는 자계를 교훈하여 효도를 옮겨 충성을 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조정에 분주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리고 융성한 조정을 교화시킨 뜻에 부응하면 어찌 고을 사람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州以月溪爲西齋 金寧爲東齋 分鄉校儒生 各以所住附近 讀書于此 擇土人之有學術物望者 以爲學長 城中有鄉學堂.”<sup>126)</sup>

靑雲의 뜻을 품고 학문에 전념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었음도 알 수 있으나,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鄉里書堂에서 글눈만 뜯 수 있어도 다행한 일로 여겼다. 本島民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진전은 이조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賢臣碩學들의 流配地로 부상되매 그들 유배객들에게는 한을 심은 섬이지만, 本島의 선인들에게는 영명한 학문적 기풍을 일깨워 받는 文運을 부추겨 주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濟州市에 있는 五賢壇<sup>127)</sup>을 중심으로 嘉樂泉 일대에 글 읽는 소리를 터뜨린 橋林書院의 설립이다. 옛 선비의 카랑카랑한 肉聲과 고매한 인품에의 감화력은 土着民의 우매한 겹질을 벗게 하는 활력소가 되었다. 그 정신은 부단히 이어져 8·15 해방후 五賢學園이 설립됐고,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本島를 빛내고 있음도 耽羅先人들이 역경을 극복하면서 학문의 길을 걸어온 崇文精神의 발양결과라고 하겠다.

#### 〈例示〉

○ 농이 집 연대를 모르민 큰 소리 못한다.

(남의 집 가승을 모르면 큰 소리 못한다)

○ 공부 하렌 ㅎ난 개 잡는 걸 뵈나.

(공부하라고 했더니 개 잡는 것을 배운다)

126) “州에서 月溪로 西齋를 삼고 金寧으로 東齋를 삼아 향교의 유생을 나누어 각각 사는 데서 가까운 곳에 따라 여기에서 글을 읽게 하고 지방 사람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學長를 삼았다. 성안에는 鄉學堂이 있었다.”

127) 五賢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됐다.

冲庵 金淨(1486~1520), 圭庵 宋麟壽(1843~1547)

桐溪 鄭蘊(1569~1641), 淸陰 金尚憲(1570~1650)

尤庵 宋時烈(1607~1687)

- 돌아 사민 날 잡을 공논 글 공논.  
(돌아 서면 나를 잡을 공론 글 공론)
- 것 구송 호로초식, 글 구송 양반초식.  
(밥 타박 호로자식, 글 타박 양반자식)
- 좇 째른 건 써도, 글 째른 건 못 쓴다.  
(좇 째른 것은 써도, 글 째른 것은 못 쓴다)

#### 8) 官職/6편

立身揚名<sup>128</sup>의 길은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국록을 받는 벼슬길에 오른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쾌거이자 천복으로 알고 당사자의 가문은 물론 遠近宗親의 광영으로 경하에 맞았다.

- 벼슬은 한 가지, 상덕은 백 가지.  
(벼슬은 한 가지, 상덕은 백 가지)
- 명지웃은 육촌까지 따신다.  
(명주웃은 육촌까지 따습다)

벼슬은 한 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그 혜택은 여러가지였다.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원근종친에게까지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韓本土의 속담에는 〈명주웃은 사촌까지 따습다〉고 했지만, 그보다 두촌이 더 늘어난 육촌까지 따습다고 한 것은 도울만한 위치에 있을 때 전종친에게로 확산시켜 베푸는 아량과 친족애의 인정미를 반영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인재배출을 위해서는 학덕을 쌓게 한 후 登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 뜻대로 성공할 때 그 가문은 물론 출신지의 영예를 빛내는 존재로 숭앙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高兆基<sup>128</sup> (1088~1157)를 꼽을 수 있다. 고려 睿宗 2년(1107)

12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濟州牧 人物條.

『耽羅星主遺事』,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 1979, pp. 145~146.

19세에 韓即由의 榜에 문과급제하여 門下侍中平章事를 지냈고 漢詩에도 능하여 山莊夜雨와 六首가 東文選에 전하고 있다. 그의 墓는 현재 보전되고 있는 高씨의 墓로서는 한국에서 最古인데, 文化公報部 지정 濟州道地方文化財紀念物 第38號로 보호되고 있다.

이와같은 人脈과 연관하여 姓氏에 대한 속담도 눈에 띈다.

- 창씨<sup>129</sup> 고씨 공장에 걸어논 씨 아니여.  
(창씨 고씨 벽걸이에 걸어놓은 씨 아니다)
- 고개 고집.  
(고씨 고집)
- 고당장 돈 쓰듯 한다.  
(고당장(高堂長) 돈 쓰듯 한다)

濟州를 本貫으로 하는 姓氏 중 高씨의 위세가 대단했던 것 같다. 아무리 처음 창시되어 번창을 누리고 있는 高씨라고 하지만, 언제나 제일일 수 만은 없다고 다른 姓氏가 터뜨린 항변으로 볼 수 있다. 거기 에다가 고집도 세고 돈도 헤프게 썼던 성벽은 名門 閥族으로서의 과시가 지나쳤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것처럼 門宗에 걸출한 인재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어 관직에 등용되느냐에 따라 그 종문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동량으로 각광을 받았던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 〈例示〉

- 놈도 원 살곡 신 산다.  
(남도 원님 되고 신하된다)
- 몰 타민 구중 생각난다.

---

129) 創始되어 繁昌한 姓氏를 뜻함.

(말 타면 궁궐 생각한다)

○ 놈이 집광 관장살인 퀘던 밥도 두영 간다.

(남의 집과 벼슬살이는 끓던 밥도 두고 간다)

#### (9) 其他

앞에서 검토된 8가지 이외의 직능속담을 한데 모았는데, 자료의 빈곤으로 이렇다 할 특성없이 상식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木工, 冠網業을 위시한 가내수공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채록을 못한 데 있고, 또 실제 이들 직종에 종사했던 토박이 순수 기능보유자도 거의 他界하고 말았거나 소득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자료보강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채록에 임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 〈例示〉

○ 목숫집에 현 문 돈다.

(목숫집에 현 문 단다)

○ 노름은 신 신을 때 바사 안다.

(놀음은 신 신을 때 바야 안다)

○ 갯쟁이 현 갯 쓰국 무당 놈 빌영 굿한다.

(갯장이 현 갯 쓰고 무당 남 빌어서 굿한다)

○ 꼭 걸으려 간 놈이 정당벌립<sup>130)</sup> 망 돌른다.

(침 걸으려 간 놈이 정당벌립 데 뛰는다)

---

130) 〈註·84〉참조.

## V. 濟州島俗談의 主題

俗談의 내용이나 주제 파악을 위해서는 그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속담학에서 내용과 주제분류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주제분류에 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든지 간에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金思燁도 분류의 방법을 이론면과 내용면으로 구분하고, 이론면에서의 역사적 구분에 의한 분류는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고, 오직 내용면에서의 지역적 구분에 의한 예시만 해놓고 있다<sup>131)</sup>. 李乙煥인 경우는 ‘韓國女性俗談에 관한 研究’에서 생활과 경험을 토대로 여성속담을 4가지로 분류하기도 했지만<sup>132)</sup>, 徐石演은 ‘俗談學研究’에서 속담연구의 난점의 하나가 분류에 있음을 지적하고 형식상으로는 내용상으로 복잡다양하여 타당하고 유용한 분류의 기준이라고는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도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sup>133)</sup>. 그 후 李基文은 그가 펴낸 「俗談辭典」(民衆書館, 1962)의 자료를 중심으로 〈言語・人生・家庭・社會・知能・事理・心性・行爲・其他〉등 9개 분야로 大別하고 각 분야별로 다시 103개의 소주제항목을 설정하여 세분한 바도 있다<sup>134)</sup>. 그러면서 ‘머리말’에 주제분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제

131) 〈註・34〉참조.

132) 李乙煥, 「韓國女性俗談에 관한 研究」, 「亞細亞女姓研究」,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4, pp. 117~119.

“A. 생활예지에 관련된 것. B. 처세생활에 대한 경제교훈에 관련된 것. C. 선배 여성에 대한 지식전달, 사실보도. D. 여성에 대한 비난 험담 조소에 관련된 것.”

133) 徐石演, 前掲 ‘俗談學研究’, pp. 461~462.

134) 李基文, 「韓國의 俗談」, 三星美術文化財團, 1976.

분류의 합리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속담을 그 내용과 주제에 따라 분류했을 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띤 典型的인 분류법은 없다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분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분류자의 관점에 따라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필자는 소주제를 수용시킬 수 있는 類概念인 대주제를 먼저 설정한 후 그 대주제별로 종속시킬 수 있는 種概念인 소주제를 설정함으로써 李基文의 분류방식과 同軌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되도록이면 簡明性을 위해 확산분해보다는 집약을 전제로 했는데, 대주제인 경우는 警世觀·生計觀·運命觀 등 삼대분야로 압축시켰고, 또 그 삼대분야에 따른 소주제군 15개 항목만을 설정하여 분류했다.

### 1. 警世觀

경세관 세상사를 일깨우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관점을 총괄하여 경세관이라 명명했다. 여기에는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性情과 언행을 교시하고 올바른 처세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진솔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아무리 각박한 삶일지라도 사람의 도리를 잃거나 분수를 못 지켰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비리와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며, 그 결과 야기될 파국을 경계하는 데 선인들도 최선을 기울였다. 俗談은 바로 이와 같은 선인들의 개인생활이나 공중생활에 있어서 인간 본연의 자세를 다져주는 불문율로 회자돼 왔다. 즉 인간생활의 기틀을 다지려는 생활강령과도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경각심을 고취했다. 이들 관점에 대한 집약들이 바로 本島俗談이 보여주고 있는 경세관에 대한 핵심 소주제인데, 敎示·言行·人情·守分 등이 그것이다. 분량면으로도 생계관의 것 213편과 운명관의 것 35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297편에 이르고 있다.

## (1) 教示(141편)

경세가 세상사를 일깨우는 것인 만큼, 교시는 경세의 한 종개념으로서 인간을 가르쳐 보이는 교훈적 의미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다음에 언급할 言行이나 人情, 守分도 분명 인간생활을 일깨워 주기 위한 생활훈이라는 데서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일깨운다는 공리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해당 용어의 어의가 갖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구분이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교시는 행동·인정·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생활훈으로서의 教條的 구실을 하고 있다.

## 〈例示〉

- 마음이 곧아사 옷 앞섭이 아문다.  
(마음이 곧아야 옷 앞섭이 아문다)
- 딸은 어명 피 물영 난다.  
(딸은 어머니 피를 물고 난다)
- 늘그니 몽둥인 구들 구석에 세와 텅 간다.  
(늙은이 지팡이는 방 구석에 세워 두고 간다)
- 큰 일 처난 집 저녁ㄱ심 싯곡, 큰 곳해난 집 저녁ㄱ심 웃나.  
(큰 일 처던 집 저녁거리 있고, 큰 곳해던 집 저녁거리 없다)
- 혼 자리가 펜안 ㅎ민 백 자리가 펜안 ㅎ다.  
(한 자리가 편안하면 백 자리가 편안하다)

## (2) 肅行(97편)

언행에 관한 속담들은 말과 행동거지에 있어서 예의와 도리에 어긋나거나 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제동장치의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말보다도 행동에 대한 규제력을 더 강화시키

고 있는데, 善行에 대한 찬양은 없고 비행과 非禮의 부당한 몸가짐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 양적인 면에서도 말에 대한 것이 22편인데 비해 행동에 대한 것은 75편에 이르고 있다. 이들로 미루어 보아서 인간생활에서의 몸가짐, 곧 사리에 바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었나를 알 수 있다.

## 〔例示〕

## — 말(言)에 관한 속담 —

- 나 홀 말 사돈집 강생이가 먼저 혼다.  
(내 할 말 사돈집 강아지가 먼저 한다)
- 본 말 본 디 버리꼭, 들은 말 들은 디 버리라.  
(본 말 본 데 버리고, 들은 말 들은 데 버리라)
- 좁은 입으로 7 큰 말 넓은 치메각으로 못 막나.  
(좁은 입으로 한 말 넓은 치마자락으로 못 막는다)
- 서울놈 글꼭지사 몰르므로 말꼭지사 몰르랴.  
(서울놈 글귀야 모르므로 말귀야 모르랴)
- 밤 세낭 곧 단 보난 어느 마누라 죽어시닌 혼다.  
(밤 새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마누라 죽었느냐고 한다)

## — 행동에 관한 속담 —

- 하룻굿 보젠 코 까끈다.  
(하룻굿 보려고 코 깎는다)
- 글 배우렌 7 난 개 잡는 걸 뺨나.  
(글 배우라고 했더니 개 잡는 것을 배운다)
- 꼭 걷으려 간 놈이 정당벌림 망 돌른다.  
(꼭 걷으려 간 놈이 정당벌림 테 엮는다)

- 새침데기 비곡 불곡, 허위대기 그렇 죽나<sup>135)</sup>.  
 (새침데기는 배고 깔고, 허위대는 그러서 죽는다)  
 ○ 늘근 놈이 절름 첩하면 불 본 나비 납뽀듯 한다.  
 (늘근 놈이 젊은 첩하면 불 본 나비 날뛰듯 한다)

### (3) 人情(45편)

물질적으로는 가난을 면치 못했으나 인정만은 풍요로웠다. 이웃 끼리는 물론 인근 부락들과도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야말로 각박한 생활의辛苦를 이겨내는 자양이 되었다. 그렇다고 생활의 전부가 애정을 갖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만은 없었다. 가정생활을 보더라도 姑婦와 妻妾, 繼父母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반목질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本島俗談에서는 동서지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여자인 경우 시앗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있다. 그 이유는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려는 자기보호의 심리적인 면도 있으나, 보다 더 큰 이유는 시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의 有無와 衡平이 생계 여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활상들이 부지불식간에 의식구조를 형성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반영하는 속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생계관에서 다룬 實利의 속담에도 인정에 관한 것이 많이 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인정을 주제로 한 속담의 편수는 훨씬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생계와 관련된 인정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세관에서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47편에 그치고 있다. 이들 47편을 분류하면 愛情, 隣保, 反目 등으로 집약시킬 수가 있다.

---

135) 새침데기는 몰래 남정네를 많이 상대하고 있지만, 허위대는 그 외형뿐이지 실속 없이 이성을 그리워하게 됨을 뜻한다.

〔例示〕

— 愛情에 관한 속담 —

- 가나귀도 어멍아 훔다.  
(가마귀도 엄마야 한다)
- 태 손 땅 못 버린다.  
(태 사른 땅 못 버린다)
- 씨집강 석 돌 장개강 석 돌 달뜨민 못 살 사름 웃나.  
(씨집가서 석 달 장가가서 석 달 닳으면 못 살 사람 없다)
- 구시월 수가지 먹젠 해도 어멍 생각하민 목 단정 못 먹나.  
(구시월 가지 먹으려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목 막혀 못 먹는다)
- 석상에 심근 낭 옥당에 심경 커도 인정 몰른다.  
(석상에 심은 나무 옥당에 심어서 커도 인정 모른다)

— 隣保에 관한 속담 —

- 중근 문에 통췌.  
(잠근 문에 통쇠)
- 맹지웃은 육춘까지 ㅅ신다.  
(명주웃은 육춘까지 따습다)
- 놈이 새 들러귀는 건 보기 좇나.  
(남의 소 날뛰는 것은 구경하기 좋다)
- 말이 고우민 ㅅ진 항 사례 가땅 형 항 사온다.  
(말이 고우면 새 항아리 사러 갔다가 흰 항아리 사서 온다)
- 이녁 부물 위하젠 ㅎ민, 놈이 부물 위해사 훔다.  
(자기 부모를 위할려면, 남의 부모를 위해야 한다)

— 反目에 관한 속담 —

- 씨앗도 동세보단 낫다.  
(씨앗도 동서보다는 낫다.)
- 씨앗 세에 곧말 웃나.  
(씨앗 새에 고운말 없다.)
- 숭이 웃이민 메뉴리 다리가 히영.  
(흙이 없으면 머느리 다리가 회다.)
- 한 배엿 새끼도 아웅다웅 한다.  
(한 배의 새끼도 아웅다웅 한다.)
- 보리떡을 떡이엔 허멍 다심어멍을 어멍이엔 허랴.  
(보리떡을 떡이라고 하며 계모를 어머니라고 하랴.)

(4) 守分(22편)

인간생활에서 경계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기자신을 가늠하지 못하고 분수를 잃은 채 경거망동을 저지르는 일이다. 자신의 능력에 맞춰 주어진 여건에 대응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할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므로 허황하게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부귀영화를 꿈꾸는 과욕은 화를 불러들이는 것임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射倖心에 끌려 분수에 어긋난 어리석은 행동을 범함으로써 만인의 지탄과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럴 때마다 그들 사례를 일상생활의 거울로 삼고 있으면서도 자기과시를 위한 공명심이 작용되어 엉뚱한 작태를 연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愚行은 실제로 가공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過慾, 威勢, 虛勢를 경계하여 풍자와 해학의 기법으로 처세의 혜안을 열어주고 있다.

例示:

— 過慾에 관한 속담 —

- 사돈 노퍽 거, 신착이 높은 거.  
(사돈 높은 것, 신굽 높은 것)
- 정이서 죽쭈던 솥 모관 와도 죽쭈다.  
(정의서 죽쭈던 솥 모관 와도 죽쭈다)
- 심은 썩 와 땡 는 썩 심젠 혼다.  
(잡은 썩 노아 두고 나는 썩 잡으려 한다)
- 재짜부리 지 가늌 몰르멍 썰레질 혼다.  
(재짜부리 제 가늌 모르면서 싸움질 한다)
- 벨 걸음 호당, 본 걸음 일른다.  
(벨 걸음 하다가, 본 걸음 잃는다)

— 威勢에 관한 속담 —

- 갠 썰 나무레곡, 췌 겔 나무레곡.  
(개는 겨를 나무라고, 겨는 개를 나무라고)
- 남자 드딘 풀은 유울곡, 여자 드딘 풀은 안 유운다.  
(남자 드딘 풀은 이울고, 여자 드딘 풀은 안 이운다)
- 가냐귀 솥라 검서방이엔 혼다.  
(가마귀 솥더러 검서방이라 한다)
- 씨어멍 솥덕에 아자도 호령 혼다.  
(씨어머니 부뚜막에 앉아도 호령한다)

136) 사돈은 서로가 엇비슷해야 부담이 없고, 신굽은 높으면 불편하다. 이것은 곧 분수와 정도에 어긋난 욕심을 경계한 것이다.

137) '정이'와 '모관'은 註·78,79 참조. 여기서 '정이'는 시골에 해당하고 '모관'은 도회지에 해당한다. 그러니, 시골서 죽쭈던 솥이 도회지에 와서도 죽을 쭈수 밖에 없다. 그 이상의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 나라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한다.  
(달아맨 돼지가 그시린 돼지 타령한다)

— 虛勢에 관한 속담 —

- 가나귀 까옥까민, 참새도 조조조.  
(가마귀 까옥하면, 참새도 조조조)
- 칠산바당 조기 튀난, 제주바당 복쟁이 된다.  
(칠산바다 조기 튀니, 제주바다 복어 된다)
- 떡 진 사람 춤추난, 물뚱 진 사람 꺾 춘다.  
(떡 진 사람 춤추니, 말뚱 진 사람 같이 춘다)
- 술 한 잔 먹으면 왜조케 밧 사주켄 한다.  
(술 한 잔 마시면 외조카 밧 사주겠다고 한다)
- 여잔 동산드레 돌아아장 오줌싸도 치매깍 젓는 줄 몰른다.  
(여자는 동산으로 돌아앉아서 소피해도 치마자락 젓는 줄 모른다)

## 2. 生計觀

생계관이라 함은 의식주생활을 전제로 하는 생계해결과 연관된 생활상이나 그에 대한 관념을 총괄한 명제이다. 일차적인 삶의 조건은 식생활의 해결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住居와 의생활이 수반되어야 했다. 序論에 밝힌 바와 같이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이 안겨준 온갖 노고는 사활이 걸린 극한상황 그대로였다. 역경을 딛고 억척같이 本島를 일궈온 선인들의 不敗之像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天災之禍인 三災(風·水·旱)와 겨루는 것도 역겨운데, 정치적 현실의 냉대 속에서 배고픔과 인간애의 목마름을 의연히 극복하고 三無(無大門·無盜賊·無乞人)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아무리 고파도 내일을 위해 절약하고 역경에 부딪쳐도 억척

같이 일어나 구슬땀을 흘리면서 내 것을 만들어내는 슬기와 솜씨를 익혔다. 낭비 없이 실속 있게 근실한 자세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엄청난 고충에 부대끼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을 바탕으로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최상의 호구지책이었다. 그것은 곧 본도속담의 갖는 생계관의 7가지 주제인 實利·儉約·勤實·自立·苦衷·強韌·告知에 그대로 집약된다. 이들 주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속담학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생활상과 향토문화의 형성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濟州精神(耽羅精神)으로 내세우고 있는 本島 고유의 향토정신을 재조명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이다.

#### (1) 實利(84편)

俗談의 사상적 기반은 현실주의적 경향이 현저해서 實利主義와 안전주의가 압도적이라고 했다<sup>138)</sup>. 이 말은 속담의 기능이 실용적 가치관에 의한 효용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實事求是의인 현실치유의 民俗語로서의 본연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本島俗談에서 생계관과 관계된 7가지 주제 중에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實利인데, 206편의 생계속담 가운데 85편으로 그 비중이 큰 것이다.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득실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득이 없는 일은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의 식물소재 〈표 3〉에 대한 검토에서 보았지만 최우선 급무는 식생활 해결이었으므로 85편의 實利의 속담 중에서 28편이 먹는 것과 결부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실속을 차리기 위한 처세의 양상을 담은 57편이 결합되어 실리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

138) 徐石濱, 前掲書, p. 432.

① 주끄는 갠 줄곡, 먹는 갠 솔친다.

(짚는 개는 마르고, 먹는 개는 살찐다.)

② 왜조케 케그니 마농밧디 김질메라.

(외조카 사랑하느니 마늘밭에 김매라.)

①의 속담에서 개는 짚는 것이 본성이고 또 그래야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제 소임에만 무작정 열중하다 보면 실속은 없고 여위게 마련이지만, 먹는 데 신경을 쓰는 개는 살이 찌고 윤기가 흐르게 된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직분만 알고 실속을 못 차리면 궁색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또 ②의 속담인 경우는 외조카는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껴보았자 별로 이득이 없으므로 차라리 마늘밭에 김을 매는 것이 훨씬 소득이 있다는 처세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리의 속담들은 이기주의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는 생계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했다. 철두철미 실리실득을 위해서는 생활의 허점을 노출시킬 수 없다는 생존수단이었다.

〈例示〉

#### — 處世에 관한 속담 —

○ 집 치레 말랑 밧 치레하라.

(집 치레 말고 밧 치레하라.)

○ 낭서두린 불 습곡, 돌서두린 담 답나.

(나무등치는 불 때고, 돌덩어리는 담 쓴다.)

○ 개똥이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곡, 신날 끄너지카부덴 피한다.

(개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신날 꿰길까 보아서 피한다.)

○ 썩병애긴 나민 고망부터 좇나.

(썩새끼는 나면 구멍부터 찾는다.)

- 애비아덜이 들 탕 가면 이녁 물 메여 똥 아방 똥 맨다.
- (애비와 아들이 말 타고 가면 자기 말 매어 두고 아버지의 말 맨다)

— 먹는 것에 관한 속담 —

- 일성은 아이 일, 먹국은 황밭갈래.
- (일숨씨는 아이 일, 먹성은 황소)
- 가시어멍 상 웃인 관에, 사위 국 실픈 관에.
- (장모 상 없는 관에, 사위 국 싫은 관에)
- 여간 오뉴월에 술치곡, 남잔 구시월에 술친다<sup>139)</sup>.
- (여자는 오뉴월에 살지고, 남자는 구시월에 살진다)
- 부지깽이 대여불기만 흥곡 얻어먹진 못한다.
- (부지깽이는 데어버리기만 하고 얻어먹지는 못한다)
- 못 먹나 못 먹나 흥명 거죽까지 다 먹나.
-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하면서 겹질까지 다 먹는다)

(2) 勤實(23편)

勤實은 勤勉과 誠實의 합성어이다. 근면성 없는 성실이 있을 수 없고 성실성 없는 근면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계를 위한 활동이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한 처세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非理이므로 철저히 배격했다. 인과응보적인 순리를 믿고 몸소 노력하고 관심을 쏟은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라 보고 불철주야 말은 바 생업에 신명을 다 쏟았다. 부지런 한 공은 하늘도 못 막는다는 신념으로 밭일과 바닷일에 사활을 걸고 한 톨의 밥알이라고 더 얻으려고 더운 숨을 몰아 쉬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139) 오뉴월에는 개역(미숫가루)을 만들려고 보리를 볶으면서 자주 먹기 때문에 여자가 살지고, 구시월에는 가을 곡식을 주어먹고 자란 영계를 잡아먹게 되므로 남자가 살이 쪼는 것이다.

〈손이 놀면 입도 논다〉고 해서 생산증대를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또 모자란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마의 활용도 컸지만 직접 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심하면 해가 진 후 몇 십리 길을 걸어 일터에서 歸家한 다음 그제야 저녁감을 마련하여 끼니를 때우고나면 子正이 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오직 부지런한 공으로 산다는 것이 생활신조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男女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남자가 무색할 정도로 부녀자의 근실성은 세계적이었다. 그 중에는 알몸으로 바다에 자맥질하여 얻은 해산물을 생계에 보탬으로써 발농사만으로 수급이 팔리는 식량난을 덜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本島의 생업속담 중 근실성의 반영은 필연적인 것이며 농업이 주생업인 일차산업이었던 만큼 이들 농사와 관계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는 근실을 고취하는 관념이거나 漁撈과 致富 등 부분적 생업의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예시는 근실이 생산적인 생업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농업과 潛漁에 관계된 것 15편 중 여성의 근실성이 돋보이는 것들이다.

#### 〈例示〉

- 홀아방은 쉬가 서 말, 홀어명은 께가 서 말.  
(홀애비는 서캐가 서 말, 홀애미는 께가 서 말)
- 봄 해엔 애기 ㄷ랑 흐린조 혼 말 버신다.  
(봄 해에는 애기 데리고 찰조 한 말 번다)
- 좀녀 애긴 사흘이만 굴체에 눕저 텅 물에 든다.  
(해녀 애기는 사흘이만 삼태기에 눕혀 두고 물에 든다)
- 유월 마당질엔 애기 젓 맥이멍 숨 드리운다.  
(유월 타작질에는 애기 젓 먹이면서 숨 들어 쉰다)
- 삼월 보름 물찌엔 하우장각씨 책갑 정 얼른다<sup>140)</sup>.

140) 일년 중 썰물이 가장 많이 빠져 나갈 때의 하나가 음력 삼월 보름날의 무수기이다. 이 때는 비록 선비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을 담기 위하여 책갑(冊匣)까지 걸머지고 드나들 정도로 연인네들이 근신했다.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선비분인 책갑(冊匣) 지고 다닌다」

### (3) 儉約(22편)

검약은 儉素와 節約의 합성어이다. 근실에서 근면과 성실의 관계처럼 검소와 절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고의 고충을 초극하면서 피와 땀의 결정으로 근근히 모아진 재물은 황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호사를 위한 낭비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지만 초가삼간에 하루 세 끼니를 사시사철 이어갈 수 있는 발마지기 두서너 개만 가져도 여간 만족한 생활기반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다가 외양간이 있고 우마 필이나 사육하면 그 마을에서는 몇 번째 안 가는 부자축에 낄 수가 있다. 그러니 결국은 富의 척도는 얼마의 농토에서 수확을 올리고 庫房을 채우느냐에 달렸었다. 그뿐이 아니라 일반서민들의 의생활에서도 무명옷에 미투리를 넘어 설 수가 없었다. 언제부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무명옷에 풋감물을 들인 本島固有의 갈옷<sup>141)</sup>의 등장은 농부들의 최상의 다목적 의복이었다. 타작질을 하거나 어쩌다 주변에 한두 방울 흩어져 있는 곡식알을 일일이 주어야 했고, 밭고랑에 흘린 밥알맹이 하나라도 주어먹지 않았다가는 죄를 짓는다고 호된 나무람을 받았다. 또 내년 농사를 위해 씨앗 망태를 방안의 벽에 걸어놓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있어도 넘보지 않았으므로 〈씨 도둑은 없다〉는 말까지 있고 보면, 대비를 위한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은 참으로 놀라움을 알 수가 있다.

① 한 달에 개역 시 번 주베기 시 번호민 집안 망한다.

(한 달에 개역 세 번 수제비 세 번하면 집안 망한다)

---

141) 무명으로 만든 바지나 저고리에 풋감물을 문치고別に 말린다음 물에 담갔다가 다시 別に 말리기를 되풀이 하는 동안 그 빛이 갈색으로 변한다. 이것을 입고 일을 하면 땀과 때가 덜 묻고 질기므로 농부들이 즐겨 입는다.

- ② 바룩케긴 밥 도독놈.  
(바닷고기는 밥 도독놈)  
③ 보말도 켜기여.  
(고등도 고기이다)

①의 속담은 간식용 음식인 미숫가루나 수제비를 한 달에 세 번 정도만 해서 먹어도 집안이 망한다고 보았다. 보리를 볶아서 만든 미숫가루인 개역과 수제비 정도 해먹었기로서 집안 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 끼니 이외로 사용되는 식량은 낭비로 보았던 것이다. ②의 속담은 밥에는 반찬이 따라야 하겠지만 생선 반찬이 있으면 밥을 많이 먹어버리게 된다. 평상시의 반찬은 푸성귀에 장국으로 족했다.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 굶주릴 때가 허다했다. 『耽羅紀年』에 보면 英祖元年(1725)부터 51年(1775) 사이에 17번의 흉년이 들어서 진휼(賑恤)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sup>142)</sup>, 평균 3년에 한 번 꼴로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3년마다 한 번이지만 그 여파는 해마다 흉년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英祖 35年(1759) 牧使 許 璡는 그가 먹는 반찬을 주려 주린 백성을 돌보았다고 했으니<sup>143)</sup> 당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생활정도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③의 속담에서도 식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바다가에서 나는 고등도 고기 반찬이나 다름없는 귀한 음식이라고 함으로써 하잘 것 없는 식품이지만 귀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검약의 속담 22편 모두 먹는 것인 식생활을 나타낸 것이어서 설움 중에는 배고픈 설움이 제일이라는 말을 되새겨 주고 있다.

142) 金錫翼, 前掲書, pp. 405~416.

143) 金錫翼, 前掲書, p. 413.

“英祖三十五年 牧使許璡 蠲供膳贈 賑飢民”

〔例示〕

- 흰 놈 먹을 거 백 놈은 먹곡, 백 놈 먹을 거 흰 놈은 못 먹나.  
(한 놈 먹을 것 백 놈은 먹고, 백 놈 먹을 것 한 놈은 못 먹는다.)
- 췌기떡<sup>144</sup> 흰 착 방 종달리<sup>145</sup> 간다.  
(췌기떡 반 쪽 보고 종달리 간다.)
- 생이 흰 마리로 굴막<sup>146</sup> 상뒤 다 맥인다.  
(새 한 마리로 굴막 상돛꾼 다 먹인다.)
- 동네집 식개 넘어나민 사흘 불 안 쏜다.  
(동네집 제사 넘고나면 사흘 불 안 지핀다.)
- 조천관<sup>147</sup>만 가면 콩잎도 쓴다.  
(조천관만 가면 콩잎도 달다.)

(4) 苦衷(24편)

苦樂은 상대적이므로 환경여건이나 심적 갈등의 진폭에 따라 그 강도를 의식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實利, 勤實, 儉約에 얽힌 本島先人の 생활상은 한 마디로 ‘苦衷’ 그대로였다. 自活의 터전을 다지는 개척의 고충도 컸지만, 賦役과 貢賦의 시달림은 한과 저주를 낳았고 成年者가 되는 것도 두려웠다. 다음과 같은 古記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耽羅紀年」첫째 권에 보면 고려 文宗 12년(1058) 가을 왕이 탐라에서 재목을 벌채하여 배를 만들어 宋나라와 통하려 함에 內史 門下省이 진언하기를,

144) 보리와 밀의 겨나 그 가루의 하등품을 탁주 찌서기와 섞어서 주물러 만든 떡.

145) 〔註·132〕 참조.

146)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의 속칭

147) 北濟州郡 朝天邑 朝天里, 옛날에는 濟州市에서 한나절 가까이 걸어야 도착하는 곳이었다.

“탐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빈곤하여 오직 해산물과 木道를 이용하여 생활을 도모하는 데, 지난해 가을에 재목을 벌채하여 바다를 건너 새로 佛寺를 창건하느라고 이미 노고와 폐가 많은데, 지금 또 괴로움을 더하면 다른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sup>148)</sup>

또 濟州島察訪 金爲民의 狀啓에

“이 땅은 바다 멀리 떨어져 있어 守令이 기강은 허물어지고 土豪마저 양민을 멋대로 강점하여 奉足이라 일컫고 노예처럼 부렸다. 그러므로 양민의 자식은 8, 9세가 되면 이미 빼앗긴 바가 되니 부모는 자식이라 할 수 없었다.”<sup>149)</sup>

위 기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시달리는 생활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위해 육신을 불태웠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순탄치 못해 반목질사와 비정한 사태를 낳기도 했다.

① 여자로 나느니 췌로 나주.

(여자로 낳을 바에 소로 낳지)

② 비 온 날 왜상제.

(비 온 날 외상제)

①의 속담과 같이 여자라고 해서 집안에 안주하면서 남정네의 내조자로 있기에는 너무나 호사스럽고 분에 넘친 생활이었다. 그러니 어린애를 돌보면서도 집 안팎의 일을 소처럼 감당해 내어야 하니, 그 고충

148) 金錫翼, 前掲書, p. 350.

“毛羅 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勸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王從之遂寢.”

149) 「世宗實錄」, 卷三十六 九年 六月條

“……此地邈在海外 守令紀綱陵夷 土豪恣行 自占良民稱爲奉足 使之如奴隸 故良民之子 年纔八九 已爲所占 而父不得爲之子.”

은 극에 달했다. 이것은 곧 여인의 항변으로서의 저주와 자학의 한을 토로해 낸 것이다. ②는 三年喪을 치뤄야 하는 외상제의 고독과 고충을 드러냈다. 날씨가 맑아도 혼자서 부담이 많은데, 비가 내리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니 독자의 괴로움을 되씹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독자의 고충도 있는 반면 너무 자식이 많아도 괴로왔으니, 〈애기 많은 거지, 말(馬) 많은 부자〉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고충은 자아발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생활자체의 곤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例示〉

— 經濟的인 苦衷 —

- 셔도 걱정, 웃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 노리케기 혼 점 먹젠 허당 지 케기 열 점 일른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 제 고기 열 점 잃는다)
- 준 새 파리 꺾다<sup>150)</sup>.  
(마른 소 파리 꿔는다)
- 선 술 할망 배 분다<sup>151)</sup>.  
(선 술 할머니 배 분다)
- 놈이 집광 관장살인 캐던 밥도 두엇 간다.  
(남의 집과 벼슬살인 꿔던 밥도 두고 간다)

150) 마른 소가 유난히 파리가 들끓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곧 궁한 처지에 있을 때 걱정거리와 부담되는 일이 많아져 곤혹을 치르는 것을 비유한다.

151) 주모는 술이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자주 맛을 봐야 하는데, 덜 익은 술은 헛배만 부르게 만든다. 그만큼 돈을 벌기가 쉬운 것이 아님을 풍유하고 있다.

## — 對人關係의 苦衷 —

- 살췌보리 거죽채 먹어도 씨앗이랑 상대 말라.  
(꺼끄라깃보리 껍질 채 먹어도 시앗은 상대 말라)
- 여간 남자 잘못 만나면 죽 삼시 메 삼시.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면 죽 세 끼니 메 세 끼니)
- 잘ㅎ여도 혼 구승, 못ㅎ여도 혼 구승.  
(잘해도 한 가지 혼, 못해도 한 가지 혼)
- 질이 옷이난 혼길을 걷꼭, 물이 옷이난 혼 물을 먹나.  
(길이 없으니 한길을 걷고, 물이 없으니 한물을 먹는다)
- 어린 각씨 달레젠 ㅎ민 두리중치에 사슬돈 담앙 생글생글 혼들멍 달렌다.  
(어린 아내 달래려면 주머니에 동전 담고 생글생글 혼들면서 달렌다)

## (5) 自立(14편)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력 가운데 선행조건의 하나가 自立의 의지와 그 실천이다.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 줄 수 없는 이상, 자기 앞길은 자기가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계의 한계를 긋고, 자식이 적령이 되어 혼인을 시키고 나면 따로 살림을 냈다. 철저히 자립자활의 생활방식을 습관화시켰다. 오늘날 새 살림을 마련하는 자녀들에게 고급아파트와 생활용구를 제공하는 과잉보호현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물론 당시와는 비교할 바 못되는 생활수준의 향상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本島先人들은 설령 그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생활의 필수품인 술, 그릇, 숯갈, 향아리 정도가 생활밀천으로 건네준 재산목록이다. 거기에 발마지기와 우마필이 언치면 대유산의 복록을 타고난 것으로 여겼다. 그 후에 생활형편이 펴지고 주그러드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여하에 달렸으므로 자립에 의한 자수성가의 생계관을 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통적 생계의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7·8旬이 넘는 노인들도

舉動不能이 아닌 한 독립생활을 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의존하여 누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 갱이 보말도 집은 샘나.

(개와 고등도 집은 있다)

○ 짐 진 놈이 광<sup>152)</sup>을 좇주.

(짐 진 놈이 광을 찾는다)

이 두 속담만 놓고 보더라도 바다에 사는 개와 고등도 다 제 각각 살집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집이 없을까 自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명을 띠고 있으면 그 소임을 맡고 있는 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자율적인 자립의식도 고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활기반과 여건이 처음부터 갖춰진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급자족으로 윤택한 의식주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강한 집념과 욕망이 자립의 속담을 형성하고 있다.

# 〈例示〉

○ 나 것 웃언 놈이 거 먹젠 허민 말이 한다.

(내 것 없어 남의 것 먹으려면 말이 많다)

○ 누운 남에 으름 안 온다.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

○ 웃인 활럼광 이신 조그람은 맛사지 못한다.

(없는 활달과 있는 웅졸은 맛서지 못한다)

○ 나드는 개가 핏을 묻다.

(드나드는 개가 핏을 묻다)

---

152)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때 대가 되게끔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놓은 것.

- 삼월 보름 물찌에 도독질 생각나면 집이 든다.  
(삼월 보름 무수기에 도독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 (6) 强靱(12편)

강인은 실리, 근실, 검약, 고충, 자립 등을 응집시킨 本島先人の 기질의 총화라고 볼 수 있다. 本島精神의 기저를 근면, 검소, 자립, 강인[不敗]으로 잡고 있듯이<sup>153</sup>, 그 가운데서도 불우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생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저력의 원천은 강인성에 있었다고 본다. 만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강인성이며 좌절하지 않고 역척 같이 생의 심지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인성이었다. 바늘 끝으로 찢어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야무진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 파를 헤쳐 나올 수가 있었다.

- 제물에 준 놈 거시기 말라.  
(제물에 마른 놈 건드리지 말라)  
○ 먹들도 팔람시민 고망 난다.  
(차들도 뚫고 있노라면 구멍 난다)

얼핏 보기에는 말라빠져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氣力은 우람한 체력이 못 당할 끈기와 강박함이 다져져 있어, 감히 깔보았다가는 봉변당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결심한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끈덕진 집념을 갖고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력은 놀라운 것이다. 근실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인들에게서 드러난 강인한 생활력도 다른 고장의 여인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것이 되고 있다.

153) 玄平孝의, 「耽羅精神探求」, 「濟州大學論文集」第11輯, 1980, pp. 23~48.

〈例示〉

- 장항광 어린아인 실려야 좇나.  
(장독과 어린애는 시려야 좋다)
- 물 아래 삼년, 물 위에 삼년.  
(물 아래 삼년, 물 위에 삼년)
- 뉘이 보징아지면 애기 나지 말앙 일해사 혼다.  
(남의 보증았으면 애기 낳지 말고 일해야 한다)
- 줍년 애기 나뉘 사올이민 물에 든다.  
(해녀는 애기 낳고 사올이면 물에 든다)
- 봄잠은 가시자왈에 걸어져도 잔다.  
(봄잠은 가시덤불에 누어도 잔다)

(7) 告知(23편)

고지는 생계관의 속담 중 위에 열거한 6가지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23편의 속담을 통합한 것으로 생계에 관한 俗說과 사례를 提報해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 귀숨이 9마사 시절 좇나.  
(섬게가 여물어야 시절 좋다)
- 밥도 쉬면 못 먹나.  
(밥도 쉬면 못 먹는다)

바닷속 돌 틈에 서식하는 棘皮動物인 섬게류는 그 속이 누렇게 여물이 꼭 차 있어야 그 해에 곡식도 여물어서 풍년이 든다고 보았다. 이것은 다분히 俗信性을 띠고 있는 俗說인 동시에 비과학적이기는 하지만 農事豫報인 것이다. 또 아무리 귀중한 밥이지만 상하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근한 상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사례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스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계에 대한 사례와 속설을 매개로 하여 상식과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삶의 슬기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例示〉

- 서물<sup>154</sup> 날은 물 알로도 뉘름 분다.  
(서물 날은 물 아래로도 바람 분다)
- 뉘재기 사을 일긴 안다.  
(어부 사흘 날씨는 안다)
- 관덕청 사탕국(설렁탕)도 먹어난 놈이 먹나.  
(관덕정 설탕국(설렁탕)도 먹어난 놈이 먹나)
- 병이 도둑.  
(病이 두둑)
- 것 먹을 땐 개도 안 다돌린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쫓는다)

### 3. 運命觀

인간의 운명은 타고 날 때부터 정해진 것으로 보고 그 운명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은 萬古의 천리로 여겼던 古來의 운명관을 그대로 지켰다. 운명에 항거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요, 길흉화복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인 天賦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잘되면 내 운이 닿은 것으로 보았고 못되면 내 운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보니,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자기 운명을 탓하는 자위의 수단도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내 운명은 내가 만들고 개척한다는 도전적 자세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자로서의 實存을 의식한다는 것은 초인적 사고에 해당했다. 亨망성쇠를 順天者는 흥하고 逆天者는 망한다는 고

154) 〈莊·112〉참조.

정관님 속에 붙들어 매고 자기가 할 도리를 묵묵히 다하는 것만이 만사형통의 비결이라고 믿었다. 그러면서도 因緣이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因果觀과 來世에 대한 일말의 불안과 呪願도 있었고 보면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킬려고 하는 死後의 관심도 눈에 띈다. 그렇다고 이들 운명관에 관한 속담들이 경세관이나 생계관에서 보여줬던 절박감에는 못 미쳤고, 지극히 원초적인 敎條主義의 性向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을 압축시키면 運數와 來世로 줄일 수도 있지만 검토의 구체성을 위해 運數, 吉凶, 因緣, 來世 등 4부분으로 구분했다.

### (1) 運數(12편)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과 氣數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운수이다. 그날 운수가 나쁘면 누웠어도 코가 깨진다고 했듯이 운수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명으로 생각했고 정해진 四柱八字로 인식했다.

○ 정이서 죽썩던 솥 모관 와도 죽썩다.

(정이서 죽썩던 솥 모관 와도 죽 썩다)

○ 팔자가 굷이민 식전에 씨어멍이 아은아읍.

(팔자가 굷으면 식전에 시어머니가 아흔아홉)

앞의 〈註 137〉를 통해 풀이된 바 있지만, 외곽지에서 죽을 썩던 솥이 官中으로 옮겨진다고 그 죽썩던 역할을 모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환경을 바꾼다고 한 평생 주어진 직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비유하고 있다. 또 팔자가 사납고 운수가 기박하면 아침 식전에 짓궂은 시어머니가 하나는 아닌 아흔아홉이나 된다고 과장시킴으로써 운수의 무상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운수가 좋으면 저절로 橫財數의 이변도 있었다.

- 먹곡 쓰렌 ㅎ민 가지낭에 모람 온다.  
(먹고 쓰라고 하면 가지나무에 모람 연다)

여기서 ‘먹고 쓰렌 ㅎ민’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의 모티브를 일컬음이고, ‘가지낭’은 운수의 주체인 인간이며 ‘모람 온다’는 이번적 황제의 天惠를 뜻한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각기 제 나름의 운수를 타고 나게 마련이므로 天不生無祿之人的 의미를 되뇌이게 했다.

#### 〈例示〉

-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 추드는 사름은 산지물<sup>155</sup>에 가도 궁근광<sup>156</sup>에 안나.  
(걱정하는 사람은 산지물에 가도 흔들거리는 광에 앉는다)
- 버들 장신 버들 물영 죽나.  
(버들 장수는 버들 물고 죽는다)
- ㄱ서른에 ㄹ든 난 영감을 만나난 두 불 시 불 물 던 밥도 씹어달렌 앙얼 혼다.  
(갓설흔에 ㄹ든 난 영감을 만나니 두 번 세 번 물 던 밥도 씹어달라고 앙탈한다)
- 지서어멍광 오름엿들은 궁글당도 사름에 난다.  
(본처와 산엿들은 굴르다가도 살도리가 있다)

#### (2) 吉凶(10편)

길흉은 운수에 직결되면서도 운명예의 귀의가 아닌 실생활에서 일어

155) 濟州市 健入洞에 있는 샘(泉)

156) 〈註·152〉참조.

나는 길흉의 징후를 말하고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幸과 不幸, 福과 禍는 天來의 것만 아니라 인위적인 作爲性도 개재되고 있다.

- 집안 망하젠 ㅎ민 서당공중이 난다.  
(집안 망하려면 무당이 난다)
- 즈들 일 웃이난 눈 개 발 밟나.  
(걱정할 일 없으니 누운 개 발 밟는다)

이들 속담에서 전자는 무당의 출현에 따른 가운을 말함인데, 무당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이 지펴야 한다. 그와 같은 奇人 이 배출된다는 것은 한 가문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禍根인 동시에 凶兆인 것이다. 왜냐하면, 무당집은 종말이 좋지 않았던 先例와 俗信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인 경우는 의도적으로 누운 개의 발을 밟는 것은 아니지만 밟힘을 당한 개의 입장에서는 자기방어의 본능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물 수밖에 없다. 안 끌어 들여도 될 화를 인위적으로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吉凶의 속담들은 대부분이 吉보다 凶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은 韓本土의 속담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과도 일치하고 있다<sup>157)</sup>.

#### 〈例示〉

- 게와시 떡 처 먹젠 ㅎ난 시리가 벌러진다.  
(거지 떡 찌 먹으려 하니 시루가 깨진다)
- 빈복 ㅎ눔 나시 독새기 속엔 ㅂ 들어영 못 먹나.  
(빈복한 놈 똥의 달걀 속에는 ㅂ 들어서 못 먹는다)

157) 金善豐, 前掲「韓國民俗大觀 6」, p. 591.

“眞·善·美의 소재보다는 사악한 소재, 吉보다는 凶을 들어 表출함으로써 표현을 두드러지게 하려는, 거기에다가 남을 비꼴어 주고 헐뜯고서야 만족해 하는 조선조 속담은 객관적 사함을 달리하는 현대에 와서는 빛이 흐려지고 있는 형편이다.”

○ 집안에 송사 들리면 호민 틀은 독이 고기약 호곡, 기시린 뭇이 보름을 못  
나.

(집안에 송사 들려면 뜰은 닭이 꼬끼요 하고, 기시린 돼지가 뽕박질 한다)

○ 귀 존 동녕바친 셔도, 코 존 동녕바친 옷다.

(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코 좋은 거지는 없다)

○ 나치 꽃인 애기 킵가도 이럽나.

(남기 꽃은 애기 키우기도 어렵다)

### (3) 因緣(9편)

운명에는 인과응보의 機緣이 따르는 것으로 보고 인연을 생활에 결  
부시켰는데, 生滅과 운행의 순리로 받아들였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  
처럼 聚散과 적응의 한계성을 보여주면서도 극복의 방편으로 導用할  
줄 알았다.

○ 들빛물에 손 덴 머누리.

(두붓물에 손 덴 머느리)

○ 싸는 물 시민 드는 물 씻나.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다)

여기서 두붓물에 손을 덴 머느리는 事緣型의 속담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시부모와 굳게 맺어진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머느리를 맞기 위  
해서 두부를 만들다가 덴 손은 그 머느리를 맞는 인연의 상징이었다.  
그러니 그 머느리는 평생 그 가문에 떳떳한 식구로서의 우대 받는 응  
보의 실체로 그 지위가 공공했다. 또 자연현상의 하나인 썰물은 반드  
시 밀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생활에서도 고통이 교체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인과응보의 機緣을 중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例示〉

- 질엿돌도 연분이 서사 찬다.  
(질엿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 조는 집에 사는 메누리 온다.  
(조는 집에 사는 며느리 온다)
- 제주산은 악산이란 악한 사름 잘 된다.  
(제주산은 악산이니 악한 사름 잘 된다)
- 서방 못 들령 울곡, 각씨 못 들령 울곡.  
(남편 못 만나서 울고, 아내 못 만나서 울고)
- 망홀 놈 나면, 흥홀 놈 난다.  
(망할 놈 나면, 흥할 놈 난다)

(4) 來世(5편)

한국속담에는 現世主義의 사상만 있을 뿐 내세관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했다<sup>158)</sup>. 그것은 기존 속담집에 의한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내려진 단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本島의 속담에는 인과응보적 업고를 드러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亡人의 명복을 위해서 致誠을 드리고 축원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俗信的 來世觀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신앙과의 관련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유교와 불교, 도교, 무속 등이 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굳이 단안을 내린다면 韓本土의 속담을 汎神論的 무속사상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처럼<sup>159)</sup>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염라대왕의 사후단판을 받는 불교적 성향이 짙다고 하겠다.

158) 金道煥, 前掲書, p. 270.

159) 金善豐, 前掲書, pp. 592~593.

○ 죽은 사람 질 처사 존 고단 간다.

(죽은 사람 길 닦아야 좋은 곳 간다)

俗信型의 속담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사후에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귀가 후 무속신앙의 일환으로 민간의식인 귀양풀이를 하고 亡人의 명복을 기원하는 풍습은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내세관의 대부분이 生時에 비행을 저질렀을 때 사후의 업보가 더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例示〉

○ 산 때 안 문 빗 죽엄 가도 물어사 혼다.

(살았을 때 안 문 빗 죽어서 가더라도 갇아야 한다)

○ ㄴ 씻을 때 물 하염 쓰민 저승 강 다 먹어사 혼다.

(낮 씻을 때 물 많이 쓰면 저승 가서 다 먹어야 한다)

○ 먹는 물에 돌 대끼민 저승 가민 눈썹으로 다 건져사 혼다.

(먹는 물에 돌 던지면 저승 가면 눈썹으로 다 건져야 한다)

○ 뉘 속영 풀앗당 저승 가민 대코쟁이로 눈 찢렁 췌다.

(되 속여서 팔았다가 저승 가면 대코쟁이로 눈 찢려서 췌다)

## VI. 濟州島俗談의 性向

俗談은 못 사람을 감동시키는 구비문학으로서 생활상과 시대상을 되 비쳐 주는 거울이다. 그 고장의 풍토성과 민속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거기서 빚어진 고유문화의 전통이 향토정신으로 이어져 오늘의 기틀을 다진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제 이들 속담이 갖는 향토성 가운데 韓本土의 속담에서 쉬 찾아보기 힘든 本島固有의 것을 4분야로 묶어 그들 성향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 1. 言語의 特性

本島를 일컫는 특성 가운데 〈三寶〉가 있음을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의 하나가 方言인데, 그 보전과 연구가치는 국어학계에 서 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本島方言은 학문적 가치와 비중이 큰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도 15세기 중세국어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그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古語와 宮中用語까지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으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양한 本島方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라, 오직 속담에 나타난 언어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는 한정된 몇 가지 사실에 머물 수밖에 없다.

#### (1) 古語의 사용

○ 물도 <sup>㉠</sup>칠팔춘을 굴린다.

(말도 <sup>㉡</sup>칠팔춘을 가린다)

○ 무음(슴) <sup>㉢</sup>이 고와사 옷압십이 아문다.

(마음이 고와야 옷앞섭이 아문다)

○ 사름광 족박은 신 대로 쓴다.

(사람과 족박은 있는 대로 쓴다)

○ 하늘 올엇 날 존 날 시명, 브름 불엇 절 잘 날 시랴(카).

(하늘 올어서 날씨 좋은 날 있으며, 바람 불어서 물결 잔잔할 날 있을까)

위의 ㉔~㉗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㉔: 물>말(馬) ㉕: ㅁ슴>ㅁ음>ㅁ음>마음(心) ㉖: 사름>사름>사람(人) ㉗: 브름>브름>바람(風) 등과 같이 15세기 국어인 古語를 그대로 쓰고 있거나, 16세기를 지나면서 변천과정에 있는 古語를 쓰고 있다. 특히 17세기 이후에도 ‘ㅁ’음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연구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 하던 광질도 명석 꺾아 노민 못한다.

(하던 광질도 덕석 꺾아 놓으면 못한다)

○ 애기 한 개와시 물 한 장재.

(애기 많은 거지, 말 많은 부자)

○ 오뉴월 췌낭마엔 듣는 돌 한 착 권 짓 곡 한 착 권 안 짓나.

(오뉴월 소나기에는 듣는 말 한 쪽 귀는 짓고 한 쪽 귀는 안 짓는다)

○ 셔도 걱정, 웃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㉔~㉗의 변천양상도 ㉔: 하던>하던 ㉕: 한>많은 ㉖: 한>한 등은 15세기 국어의 語形 그대로이다. ㉗: 셔(이시+어)>있어 즉 ‘이시다(有)’의 語幹 ‘이시’의 준꼴에 제1부사형어미 ‘어’가 첨가된 것으로 경제적 어법을 드러내고 있다.

○ 짓 구송 호로자식, 글 구송 양반자식.

(밥 타박 호로자식, 글 타박 양반자식)

○ 영들돌 서답에 풀하민 구데기 켜다.

(2월달 빨래에 풀하면 노래기 끓는다)

- 정채 옷인 כות이 칙간에 강 끌린다.  
(정채없는 כות이 변소에 가서 일어선다)

①~k를 검토해 보면 ①의 ‘것’은 本島에서는 밥이다. 음식을 지칭하는 속된 말인 卑俗語로 쓰고 있지만 본래는 宮中用語로 쓰였다. 그 예로 李朝 때 純祖의 맏딸인 明溫公主가 그 오라버니 翼宗에 보낸 內簡에 “낫것 잡스오시고 안녕이 디내오시옵느니잇가.”<sup>160)</sup> 라는 문안 인사가 있다. 여기서 ‘낫것’은 낮에 잡수는 음식을 두고 하는 말이므로 ‘것’은 본디 상류사회인 宮中에서 쓰는 용어임을 알 수가 있다. ①의 ‘서답’은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에서도 方言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지만 한자어 ‘洗踏’의 音轉으로 볼 수 있다. 궁중에서 임금님의 의복을 세탁하던 곳을 洗踏房이라고 하였던 것과 상통한다. 또 k의 ‘칙간’도 ‘廁間’의 音轉인데 대궐에서 임금님의 專用化粧室을 일컫던 궁중용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口蓋音化現象

한국방언에서 전국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현재도 보전사용되고 있다는 데 유념하여 추출했다.

- 지름 줄 씨앗 웃나.  
(기름 줄 씨앗 없다)
- 미운놈 보권 질 나는 밧 버실라.  
(미운놈 보려면 길 나는 밧 경작하라)
- 상뒤편 가온 비바리 설 넘은 질치.  
(상뒤편에 가온 처녀, 시기 넘긴 김치)
- 송년에 밧 폴젠 말앙 입 호나 덜레라.

160) 鄭炳昱, 「표준고전」, 신구문화사, 1970, p. 139.

- (흉년에 밭 팔려 말고 입 하나 덜어라)
- 새아린 일 주멍기에 다 안 든다.  
(해아린 일 주머니에 다 안 든다)
- 아시로 나느니 성 좇으로 남만도 못한다.  
(아우로 태어날 바에 형 좇으로 태어나는 것만도 못하다)

㉠~㉢는 ㄱ이 ㅈ으로, ㉡ ㉢는 ㅎ이 ㅅ으로 소리나는 구개음화현상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 (3) 語尾의 樣相

本島俗談에 드러난 어미는 終結語尾에 서술형, 명령형, 의문형 어미만 쓰이고 있고, 연결어미로는 병렬형, 구속형, 방입형, 설명형, 나열형, 중단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1) 終結語尾

명령형을 제외한 서술형과 의문형 어미가 특이한 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 두 불 ㅈ손 더 아갑나.  
(두 번째 자손 더 아갑다)
- 놈이 간장 ㅅ킨 얼굴 ㄴ은 들에 ㅅ 간질귀여.  
(남의 간장 ㅅ킨 얼굴 ㄴ은 들에 ㅅ 개똥참외이다)
- 짐 ㅈ인 놈이 ㅍ을 쫓주.  
(짐 ㅈ인 놈이 ㅍ을 찾는다)
- 개가 ㅍ을 참주.  
(개가 ㅍ을 참을까)

- 이녁 집 식개 모르멍 놈이 식개 알까.  
(자기 집 제사 모르면서 남의 제사 알까)

㉔ ㉕ ㉖ 의 ‘~나, ~여, ~추’는 현대어 ‘이다’에 해당하는 서술형 종결어미이다. 이 중에도 ㉔ 와 같은 ‘~나’가 제일 많이 쓰고 있다. ㉔ ㉖ 의 ‘~추, ~까’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현대어 ‘~까’에 해당한다. 눈여겨 볼 것은 ㉖ 와 ㉔ 인데, 둘 다 같은 꼴로 되고 있지만 話用論에 의한 用處에 따라 同形異役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 2) 連結語尾

연결어미도 이채로운데 특히 ‘ㅎ다(爲)’를 중심으로 드러난 활용이 돋보인다.

- 아들 못난 건 훈 집 망<sup>㉔</sup>하곡, 딸 못난 건 양집 망<sup>㉔</sup>한다.  
(아들 못난 것은 한 집 망하고, 딸 못난 것은 양집 망한다)
- 나 거 웃언 놈이 거 먹젠 훈<sup>㉔</sup>민 말이 한다.  
(내 것 없어 남의 것 먹으려면 말이 많다)
- 고운년 잡아들이렌 훈<sup>㉔</sup>난 술친년 잡아들이다.  
(고운년 잡아들이라 하니 살친년 잡아들이다)
- 예펜 글<sup>㉔</sup>훈영 도원수 받아온 디 웃다.  
(여자 공부해서 도원수 받아온 데 없다)
- 큰 새 큰 새 훈<sup>㉔</sup>명 출도 안 준다.  
(큰 소 큰 소 하면서 꼴도 안 준다)
- 노리깨기 훈 점 먹젠 훈<sup>㉔</sup>달 지 깨기 열 점 일른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 자기 고기 열 점 잃는다)

㉔~㉔를 검토해 보면, ㉔ 의 하곡하고 : 병렬형, ㉔ 의 민하면 : 구속형, ㉔ 의 난하니 : 방임형, ㉔ 의 명하여서 : 설명형,

㉔의 ㅎ명)하면서 : 나열형, ㉕의 ㅎ당)하다가 : 중단형 등으로 특이한 어형구조를 이루고 있다.

## 2. 謠詞과의 交流

本島의 口碑文學 중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俗談과 民謠이다. 謠詞를 살펴보면 속담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導用되었거나, 유사 또는 변형된 것이 여러 편이 눈에 띈다. 그것은 속담과 민요는 그 기능을 제외한 형성배경과 형태가 유사한 점이 많은 데 있다.

속담이 당대의 생활상을 조망시킨 생활훈인 것과 같이 민요 역시 당시의 생활의 애환을 반영시킨 구비문학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이상 불가피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 양자가 동시적이나 아니면 선후관계가 있느냐인데, 이것은 마치 敘事文學이 먼저냐 敘情文學이 먼저냐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쉬 단정할 수 없다. 속담이 謠詞로 활용될 수도 있고, 요사가 속담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상호교류의 편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요사는 기존어구를 엮어서 짠 모음집의 성격을 띤 것이고 보면 그 속에는 당시의 慣用語句를 수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요사는 既存談을 形成素로 導用할 확률이 높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金榮敦은 이 문제를 상호교류로 보고 그 교류의 실상을

첫째 : 속담이 그대로 민요 한 편으로 불리어지는 경우

둘째 : 속담이 민요의 일부분으로 끼여드는 경우

셋째 : 속담이 민요 속에 용해되면서 같은 뜻이나마 그 표현이 개변되어 나타나는 경우 등 3개의 형태로 보고 있다<sup>160)</sup>.

필자도 550편의 속담을 요사와 대비시켜 보았더니 그 중 38편이 다음 3가지 형태로 드러났다.

160) 金榮敦,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濟州大學論文集」第10輯, 濟州大學, 1978, p. 5.

(1) 同一型(20편)

한 편의 속담이 그대로 謠詞化되었거나, 그 일부가 요사화된 것으로서 ‘멀치 후리는 노래’ 1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19편은 ‘맷돌·방아 노래’의 요사로 되어 있다. 단 표기면에서 語尾와 단어가 한두 개 정도 相異할 경우라도 그 성격과 뜻이 같을 때는 동일형으로 다뤘다.

〈例示 1〉

○ 俗談 : 늙은 놈이 젊은 첩하민 불 본 나비 납뜨듯 한다.  
(늙은 놈이 젊은 첩하면 불 본 나비 날뛰듯 한다)

○ 謠詞 : 늙은 놈이 젊은 첩하난  
불 본 나비 납뜨듯 한다.  
(金·563, 맷돌·방아 노래)<sup>161</sup>

〈例示 2〉

○ 俗談 : 밍 짝른 무덤은 서도 설쌍 죽은 무덤은 웃나.  
(명 짝른 무덤은 있어도 설위 죽은 무덤은 없다)

○ 謠詞 : 밍이 짝른 무덤은 서도  
설쌍 죽은 무덤은 웃나.  
죽은 일랑 허위여 묻엉  
산 이덜은 근심이라라.  
(金·237, 맷돌·바아 노래)

16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金은 著者, 563은 민요번호를 표시한 것이다. 이하 같음.

(2) 類似型(16편)

속담이 요사에 導用되었지만 일부어휘가 달리 나타날 경우인데, '김매는 노래'에 2편, '맷돌·방아 노래'에 14편이다.

〈例示 1〉

- 俗談：다심어멍 죽언 묻은 딘 소왕이가 소왕소왕 놀을 들런 케젠 ㅎ난 옷  
임 제완 못 케곡, 원어멍 죽언 묻은 딘 반짓ㄴ 물이 반질반질 고와도  
놀을 들런 케젠 물난 눈물 제완 못 켜다.

(계모 죽어서 묻은 데는 영정퀴가 까칠까칠 날을 들고 켈러고 하니  
옷을 겨워서 못 캐고, 생모 죽어서 묻은 데는 반짓나물이 반질반질  
고와도 날을 들고 켈러고 하니 눈물 겨워서 못 켜다)

- 諺詞：원어멍 죽언 보난 당배치가 어랑어랑 칼을 들언 케젠 ㅎ난 눈물 제  
완 못 케여라  
다심어멍 죽언 보난 갯나말이 어랑어랑 칼을 들언 케젠 하나난 눈  
웃음 제완 못 케여라.

(金·549, 맷돌·방아 노래)

〈例示 2〉

- 俗談：검질 짓곡 굴 늦인 밧던 소리로 우경 간다.  
(풀이 우겨지고 굽이 긴 밭은 노래로 우겨서 간다)

- 諺詞：검질 짓곡 굴너른 밧되  
사데로나 우경 매게  
압 명애랑 들어오곡

뒷 멩애랑 물러가라  
사대 불렁 검질 매게.  
(金・1017, 김매는 노래)

(3) 變異型(2편)

동일형과 유사형은 속담과 요사의 상호비교에서 같으나 다르냐에 따른 구분이므로 엇비슷하지만, 이 변이형은 그 내용의 골격은 같으면서도 어휘의 변조가 유사형에 비해 많다. 또한 言述형태가 덜 정제되고 리듬을 위한 통사구조의 배열을 달리함으로써 口演機能의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例示 1〉

○ 俗談: 오뉴월 마당질엔 애기 젓 맥이멍 숨 드리운다.  
(오뉴월 타작질에는 애기 젓 먹이면서 숨 들어선다)

○ 謠詞: 아기러라 아기러라  
오뉴월 마당질을  
숨쉬우는 아기러라.  
(金・84, 땃들・바아 노래)

〈例示 2〉

○ 俗談: 제서 혼 번 냉기젠 혼민 가지 다섯 왜 다섯 두 병 들이 물 하나 고  
사리 다섯 쿨 들어서 혼다.  
(제사 한 번 넘길려면 가지 다섯 외 다섯 두 병 들이 물 하나 고사  
리 다섯 포기 들어야 한다)

○ 謠詞: 가난하곡 서난흔 집이

빙은 드난 더 서난하다

서난흔 집이 식계하젠 하난

가지 다섯 두 뽕 들이 물 하나

정살 하나로 식계하연 먹어라

(金・106, 땃돌・방아 노래)

### 3. 女人의 自尊性

拙稿 ‘濟州島의 女性俗談’<sup>162)</sup>에서 本島女性의 존재나 역할이 한국여성속담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 드러난 남존여비사상에만 추종할 수 없는 女性自尊의 팔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本島는 유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야만 했던 입지성과 賦役・外侵에 따른 역사적 현실을 숙명으로 지니고 살았다. 그러니 여자라고 가정생활에만 안주할 수 없는 노동의 멍에를 걸머져야 했다. 불우한 환경여건에 도전하여 온갖 고충을 극복하고 생계해결을 위해 발농사는 물론 바닷속에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해야 살아나갈 수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노고와 강인한 활동력은 남자가 무색할 정도였다. 家運을 좌우하는 중추적 존재로서 막중한 大役을 수행했다. 바로 이와 같은 생활상들이 本島 여성속담의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른 고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여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남존여비사상에 의한 여자경멸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自尊的 여인상을 부각시킨 속담들이 自卑의 것과 맞섬으로써 韓本土의 여성속담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104편의 여성속담 중 45편이 본도여인상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주된 논의의 대상은 自尊에 관한 것이지만 本島여성속담에 드러난 女人像을 총괄해 본다는 의미에서 自卑의 속담도 언급하기로 한다.

162) 〈註・91〉참조.

## (1) 自卑(22편)

여자를 卑下하고 얹잡아 무시했던 데서 自卑란 용어를 썼다. 한국속담학에서 봉건사상인 남존여비의 여자경멸의 속담이 절대적임을 강조했다<sup>163)</sup>. 본도인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실제 속담을 통해서 볼 때는 自卑에 맞서고도 남는 自尊의 속담이 상당수 전래되고 있다. 이들 自尊에 관한 것은 항목을 달리해 논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自卑의 속담을 蔑視, 誹謗, 薄待 등 三分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1) 蔑視

여자는 멸시와 우롱의 대상으로 무시되고 있다.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딸인 경우 남자인 아들보다 격하된 出嫁外人으로 탐탁한 존재가 아니었다.

① 예쁜 글썽영 도원수 받아온 디 웃다.

(여자 공부해서 도원수 받아온 데 없다)

② 딸 가진 사람 아랫길로 걸나.

(딸 가진 사람 아랫길로 걷는다)

① 의 속담은 남녀간의 신분적 차별을 대변하는 여자무시의 표본이다. 여자는 가정생활만 하면 그만이지 공부해서 유식해보았자 별볼 일 없다는 것이다. ② 인 경우만 보더라도 딸만 가진 부모는 기를 못 펴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길을 가는 데도 주눅이 들어 아랫길을 택해서 걷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자멸시에서 오는 자격지심이다.

163) 張德順의, 前掲書, p. 201.

李乙煥, 前掲『韓國女性俗談에 關한 研究』, pp. 108~109.

金善豐, 前掲『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pp. 14~15.

金仁子, 『韓國俗談에서 본 女性』, 『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 제15집, 효성여자대학, 1964, pp. 50~57.

〈例示〉

- 미운놈 보킨 딸 하영 나라.  
(미운놈 보려면 딸 많이 나라)
- 여잔 몬저 뉘 나중 일어난다.  
(여자는 먼저 누워서 나중에 일어난다)
- 딸은 놈이 집 산천에 난다.  
(딸은 남의 집 운에 낳는다)
- 여잔 동산드레 돌아야장 오줌싸도 치메깍 젖는 줄 몰른다.  
(여자는 동산으로 돌아와서 소피해도 치마자락 젖는 줄 모른다)
- 여잔 익은 음식  
(여잔 익은 음식)

## 2) 誹謗

蔑視와 다를 바 없게 보이지만 야유적이고 비난의 색채가 짙다. 따라서 약점을 꼬집고 공격함으로써 치부를 들춰내고 있다.

- ① 놈이 첩광 소낭게 브름은 소린 나도 사를매 웃다.  
(남의 첩과 소나무의 바람은 소리는 나지만 보잘 것 없다)
- ② 상뒤 가온 비바리, 설 념은 짐치.  
(상뚝군에 가온 처녀, 시기 지난 김치)

①의 속담은 첩 살이 여인이 영구성 없이 일시적인 好期를 누리는데 끝나버림을 드러낸 것이다. ②의 속담은 여인의 사회참여에서 오는 오만성을 경계시키기 위한 비방이다. 여자는 집안에서 조용하게 생활하는 것이 도리로 알았고 밖에 나가서 못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되면 거만기가 붙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인 상뚝군에 갔다 온 처녀는 마치 시기가 지난 김치가 시어지는 것처럼 달가운 존재일 수 없었다.

〈例示〉

- 비바린 물뚱만 꺾어도 웃나.  
(처녀는 말 방구만 해도 웃는다)
- 비바리 늘거가민 물허벅 정 산드레 올른다.  
(처녀 늙어가면 물허벅 지고 산으로 오른다)
- 비바리 웃음은 뱃말촉 튀는 것 담나.  
(처녀 웃음은 여치 튀는 것 담다)
- 예펜 싯만 모다 아지민 사기접시에 고망 쫄룬다.  
(여치 싯만 모여 앉으면 사기접시에 구멍 뚫는다)
- 비바리 늘거가민 ㄱ래착 지영 산드레 올른다.  
(처녀 늙어가면 뱃돌짝 지고 산으로 오른다)

3) 薄待

불우한 환경여건을 극복하고 생계해결을 위해서는 여인의 강인한 생활력이 요망되었다. 이에 본의 아닌 酷使와 薄待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 ① 나 어명은 그리는 애기 놈은 주난 종으로 본다.  
(내 어머니는 그리는 애기 남을 주니 종으로 본다)
- ② 여자로 나느니 썩로 나주.  
(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낳지)

①의 속담에서 生母는 아끼는 딸을 출가시켰더니 시집에서는 종이 나 다름없이 부리고 있다고 한 것이나, 苦役의 고충을 소에 비유한 ②의 속담은 여인박대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대는 家計가 넉넉치 못한 생계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현실이었다.

## 〈例示〉

- 아방다심 놀래로 웨곡, 어멍다심 눈물로 웬다.  
(계뭇티 노래로 달래고, 계뭇티 눈물로 달랜다)
- 궂이나망정 나 어멍 시민 고운 어멍 웃어도 산다.  
(궂으나마 내 어머니 있으면 새 어머니 없어도 산다)
- 숭이 웃이민 매누리 다리가 히영.  
(흥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희다)
- 서방 못 들령 울곡, 각씨 못 들령 울곡.  
(남편 잘못 만나 울고, 아내 잘못 만나 울고)
- 홀어멍 씨로 안 난다 훈다니 말라.  
(과부 씨앗으로 안 난다 야단치지 말라)

## (2) 自尊(23편)

自尊이라 함은 여자의 귀중성과 장점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서 自卑와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다. 本島俗談에 드러난 이들 自尊의 女人像은 유별난 데가 있다. 자주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한국여성속담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의 골격은 여자 무시관을 일변도로 앞세웠고, 장점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거나 氷上一角의 寸評에 그쳤다.

여성자존의 일면을 밝힌 기존론을 더듬어 보면 金思燁은 제주도 여자는 남성적이며 진취적이어서 자활능력이 있고 자립적이어서 남자의 지배를 탐탁히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sup>164)</sup>, 李乙煥은 母子간에 관계된 속담 넷을 한데 묶어 자식에 대한 희생적인 모성애를 들었다<sup>165)</sup>. 또 金仁子인 경우는 여성속담 157편을 분류하고 그 중에 內助

164) 金思燁, 前掲書, pp. 144~146.

165) 李乙煥, 前掲書, p. 116.

의 역량을 보인 8편만을 제시하였을 뿐, 봉건제도의 억압에 귀결시킴으로써 남존여비성을 강조했다<sup>166)</sup>.

그러나 本島여성속담에서는 남자를 앞지르는 勤儉·強靱·貴重 등 여자의 장점과 소중함을 드러낸 것이 104편의 여성속담 중 23편으로서 自卑의 22편에 맞서고도 남는 것을 보면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 1) 勤儉

勤儉은 勤實과 儉約을 포괄한 개념으로서 本島女人의 장점 가운데 첫 번째 꼽힌다.

① 봄 해엔 애기 ㄷ랑 흐린조 혼 말 버신다.

(봄 해에는 애기 데리고 차조 한 말 벌어들인다)

② 어명은 빌어온 장 아방은 뭇똥만씩 먹나.

(어머니가 얻어온 장 아버지는 말똥만큼씩 먹는다)

③ 홀아방은 왜문에 왜들쳐귀, 홀어명은 청동화리가 아옴.

(홀애비는 외문에 외들쳐귀, 홀어미는 청동화리가 아옴)

①의 속담을 통해 본 一人二役의 근실성도 돋보이지만, ②와 ③의 속담에서 드러난 남자와 여자는 대조적이다. 남자가 여자의 부지런함을 못 따른다. 오히려 남자는 소비벽을 지녔거나 나태성만 부각될 뿐이다. 이와 같은 본도여인의 근검은 다음의 強靱과 합치되어 개척·자활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헌했다.

---

166) 金仁子, 前掲書, p. 51.

〈例示〉

- 홀아방 삼년에 쉬가 시 말, 홀어멍 삼년에 께가 시 말.  
(홀애비 삼년에 서캐가 서 말, 홀어미 삼년에 께가 서 말)
- 시 번째 딸랑 보지 말앙 돌아오라<sup>167)</sup>.  
(세 번째 딸은 보지 말고 데려오라)
- 삼월 보름 물찌엔 하우장각씨 책갑(冊匣)정 알른다<sup>168)</sup>.  
(삼월 보름 수기에는 선비부인 책갑 지고 다닌다)
- 질삼밭 늘그닌 죽언 보난 미녕소중이가 아웁이고, 줍녀 늘그닌 죽언 보난  
일곱 애비 아덜이 들르는 도곰수견이 하나이다.  
(길삼밭 늙은이는 죽고 보니 미녕소중이가 아웁이고, 해녀 늙은이는 죽고  
보니 七父子가 드는 도곰수견이 하나이다)

2) 強韌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야무진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참고 견디면서 생업현장에 부딪치는 억척스러움이 본도여인의 기상이  
자 특질이다.

- ① 노 허끈 하르방은 아장 울곡, 실 허끈 할망은 아장 푼다.  
(노 형크러뜨린 할아버지는 앉아서 울고, 실 형크러뜨린 할머니는 앉아  
푼다)
- ② 줍녀 애기 나뉘 사웁이민 물에 든다.  
(해녀는 애기 낳고 사웁이면 바다에 든다)
- ③ 줍녀 애긴 일뉘만에 것 맥인다.  
(해녀 애기는 이레만에 밥 먹인다)

167) 세계 딸쭉 되고 보면 동기간의 좋고 나쁜 일을 도맡아 뒷치다거리를 해야 하므로 자연히 그 사람됨이나 근실성이 몸에 배게 된다. 그러니, 머느리로 데려오는 데는 적격이다.

168) 〈註·140〉참조.

①의 속담을 통해서 본 여인의 끈기와 인내력은 남자를 능가하고 있는가 하면 ②의 속담에서는 出産後 삼일이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억척스럽고 忍苦의 정신을 가탄하지 않을 수 없다. ③의 속담은 二重性을 띠고 있다. 모성의 강인한 생활력은 二世인 자식에게 이양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생후 이로부터 밥을 먹으며 단련되었으니, 人性이 강인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강인성은 근검과 함께 本島를 일궈온 원동력으로서의 自立의 의지와 克己心의 기저가 되고 있다.

#### 〈例示〉

- 삼스월엔 애기 어멍 둘이라도 니 아니 들엉 못 먹나.  
(삼스월에는 애기 어머니 둘맹이라도 이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 줍녀 애긴 사흘이민 굴체에 눅져 똥 물질혼다.  
(해녀 애기는 사흘이면 삼태기에 눅혀 두고 자맥질한다)
- 줍녀 애긴 사흘만에 아귀젓 맥인다.  
(해녀 애기는 사흘만에 깨문밥 먹인다)
- 귀 막앙 삼년, 말 몰랑 삼년, 눈 어두영 삼년 살아사 가렌오렌 말이 웃나.  
(귀 막아서 삼년, 말 몰라서 삼년, 눈 어두어서 삼년 살아야 가라오라는 말이 없다)

### 3) 貴重

여자는 家運을 좌우하는 막중한 소임자였다. 出稼外人이라는 데서 탐탁한 존재로 보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혈육의 정을 중히 여겨 남자와 相殺되기도 했다.

- ① 뽕 놔 똥 양제 안 돌곡, 피 놔 똥 장예 안 비짚다.

(딸 노아 두고 양자 안 들이고, 피 노아 두고 양식 안 빚진다)

② 혼 사람 트라지민 으섯 갓세(가시)가 트라진다.

(한 사람 비틀어지면 여섯 사이가 비틀어진다)

①의 속담과 같이 딸이 있으면 굶이 양자를 들이지 않는 것은 남의 피를 받은 남자보다 제 혈육인 딸이 훨씬 귀중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②의 속담에서는 가운을 좌우하는 중추적 존재로 보았다. 여인네 한 사람이 잘못 처신하면 兩家가 모두 낭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으섯 갓세(가시)'라 함은 本人夫婦와 兩家父母를 합친 여섯 사람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이처럼 여자의 책무가 막중함은 곧 自尊을 의미한다.

#### 〈例示〉

○ 아들 못난 건 혼 집 망궂곡, 딸 못난 것은 양집 망혼다.

(아들 못된 것은 한 집 망하고, 딸 못된 것은 양집 망한다)

○ 각씨 아까우민 처갓집 이꼴도 아깝나.

(아내 아까우면 처갓집 섬들도 아깝다)

○ 나서 화목은 남자가 궂곡, 들어 화목은 여자가 혼다.

(나가서 화목은 남자가 하고, 들어서 화목은 여자가 한다)

○ 나 집 가운은 놈이 집 처녀에 멘다.

(내 집 가운은 남의 집 처녀에 달렸다)

○ 뚝뚝물에 손 덴 매누리.

(두붓물에 손 덴 머느리)

#### 4. 島民의 意識

속담은 실생활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만큼, 당대인의 의식의 반영은 필연적이다. 누차 本島의 불우한 생활여건을 언급한 바 있지만, 그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그 나름의 사고방식과 생활신조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곧 自立心과 克己心인데, 이 둘은 本島俗談을 통해서 추출된 도민의식의 정수이다.

本島의 구비문학 중 가장 속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요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통해 본 도민의식으로 忍苦・不屈의 정신과 自強・力行의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sup>169)</sup>. 이것은 속담에서 본 도민의식과도 상통하는 것인데, 주로 노동과 관계된 생계관을 주축으로 추출되고 있다. 그러나, 속담에는 이들 생계관 외에도 경세관과 운명관에 따른 도민의 자제력과 俗信的 내세성에 의한 현실극복의 의지인 克己心이 발양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自立心과 克己心은 本島俗談에 나타난 전통의식을 포괄하는 유개념으로서의 二大耽羅精神의 표상이다.

### (1) 自立心

本島俗談의 직능과 주제에서 구체적 항목으로 분류시켜 논급했던 대로 인간생활의 최대급무는 생계유지에 있다. 자기 스스로 삶의 방도를 모색하고 개척해 나가지 않고서는 연명할 수 없는 극한상황에 부딪친다. 일거일동이 糊口之策과 직결되어야 했고, 자급자족과 實利實得을 위한 자활능력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다. 또한 노고의 대가로 얻은 재물은 아끼고 비축하는 습성이 몸에 배이지 않아서는 언제 三災之變이 닥쳐 기근에 허덕일지 모르므로 내일에의 대비정신을 갖고 이를 악물고 노고의 고충을 이겨내는 강인한 기질의 체득도 필수적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의식구조의 최대공약수의 하나가 자립과 자활의 의지인 자립심이다.

주제분류에서 밝힌 생계관의 속담들은 자립을 전제로 한 구체적 細目을 나열한 데 불과하다. 實利, 勤實, 儉約, 苦衷, 強忍의 주제들은 결국 의식주 해결을 위한 자립생계로 귀결된다. 그 실례로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든다.

169) 金榮敦, 『濟州島民謡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83, pp. 126~137.

- ① 집 치레 말앙 밧 치레하라.  
(집 치레 말고 밧 치레하라)
- ② 삼년 가물어도 할 일 다 못한다.  
(삼년 가물어도 할 일 다 못한다)
- ③ 생이 혼 브리로 일땡 잔치한다.  
(새 한 마리로 이레 잔치한다)
- ④ 혼물<sup>170)</sup> 아래 칼 받앙 든다.  
(한물 아래 칼 받치고 든다)

①의 속담은 의식주 중 주택보다도 식생활을 위한 최우선을 강조한 것이나, ②의 속담에서 삼년 가물어도 할 일 다 못한다는 근실성의 반영도 농사일을 중심으로 자급자족을 위한 자활의 터전을 다지려는 자립심의 발로이다. 또 ③의 속담을 통한 儉約相의 과장은 허세와 낭비 없이 검소한 생계를 꾸려 빚을 안 짐으로써 자립생활을 공공히 함을 일깨웠다. ④의 속담 역시 매 음력 10일 25일간의 무수기에는 간만의 차가 없어 해녀들의 작업에 어려움을 준다. 깊은 바닷속에 칼을 받쳐 들고 자맥질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의 고충과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의타심을 버리고 자력으로 살아가려는 집념과 자립의지의 표출이다.

이와 같이 만남을 무릅쓰고 생을 개척해 낸 勤儉性과 강인한 생활력은 단순한 자활에의 의지라기보다 부강을 위한 진취적 의욕의 어울어진 역동적 自立更生의 저력인 것이다.

## (2) 克己心

본래 克己란 자기의 사욕을 의지로서 눌러 理智로 자제한다는 뜻으로서 충격, 욕망, 감정 같은 것의 과도한 발동을 억제하는 心意作用이다. 아무리 각박한 현실이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면서 천명을

170) 〈註·111〉참조.

다할 수 있는가를 한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세상사가 의식주 해결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정신적 달등의 해소도 현실극복의 自救策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존경쟁에서 오는 승패의 희비를 鎮撫하고 名利의 욕망에서 야기되는 비리를 견제하고 치유할 良識을 소중히 여김은 물론 死後에 대한 내세관에도 눈을 떴다. 바로 이와 같은 심리현상은 속담에 그대로 이어져 경세관과 운명관을 통해서 克己心을 조장하고 있다. 아무리 생계유지에 급급했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일깨우는 인정미와 분수에 맞고 선하게 제 본분을 다할 때 내세도 밝다는 관념을 불어넣음으로써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① 보음이 풀어져사 하는 일이 개법나.

(마음이 편해야 하는 일이 가볍다)

② 두갯 싸움 개 싸움.

(부부 싸움 개 싸움)

③ 기시린 도새기가 도라멘 도새기 타령한다.

(그시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①의 속담은 마음이 편해야 하는 일에 고충을 느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낼 수 있다는 敎示인데, 그 이면에는 마음 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극복이 이뤄짐을 시사했다. 또 속담 ②는 부부간의 싸움은 쉬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혼례를 치뤘 났어진 인연때문에 필연적으로 화합하지 않을 수 없는 윤리성을 의식한 것이다. 심각한 갈등을 부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극복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③의 속담인 경우도 숨이 끊겨 먼저 불에 그실립을 당한 돼지가 매달은 돼지를 보고 농락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자기의 처지가 더 난감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개는 겨를 나무라고, 겨는 개를 나무란다>는 격으로 분수를 모르고 있음을 힐난한 것이다. 그 만큼 守分할 줄 아는 것은 자제력에 의한 자기성찰과 처세의 이슈로써 극기의 변용임을 알 수 있다.

- ④ 인생은 이웃 집이 불 담으려 온 신세.  
 (인생은 이웃 집에 불 담으려 온 신세)  
 ⑤ 제주 산은 악산이난 악한 사람 잘 된다.  
 (제주 산은 악산이니 악한 사람 잘 된다)  
 ⑥ 산 때 안 문 빛 죽영 가도 물어사 혼다.  
 (살았을 때 안 문 빛 죽어서 가도 갇아야 한다)

④의 속담은 인생의 짧음을 잠시 이웃집에 불씨 얻으려 온 나그네 신세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 짧은 인생이나마 敦睦과 우의로써 보람을 쌓고 사리사욕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각의식을 부추겼다. ⑤의 속담도 역경과의 대결을 숙명적 인연으로 체압하려는 극기심의 발양이다. ‘악산(惡山)’과 ‘악한 사람(惡人)’은 표면적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전자는 ‘험산(險山)’, 후자는 ‘야무진 사람’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험난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의 거치른 생업환경을 개척하여 자수성가할 수 있는 克勤克險한 勤勞人像을 역설적으로 토로함으로써 생의 활력을 돋구었다. 또 ⑥의 속담에서는 현세에서의 독실한 삶을 위한 내세관을 적용시키고 있다. 생시에 진 빛은 설령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안 갇고 넘어가더라도 그것은 결코 요행이 아니라, 사후인 저승에 가서도 기필코 갇아야 한다는 인과응보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곧 눈 앞의 현실적 편익만 생각하는 危害요인을 극복하려는 속신적 관념을 내세로 접맥시켜 놓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克己心은 自立心과 함께 本島先人들에게 삶의 활력과 소신을 제공해 준 정신적 지주이자 자산이었다.

## VII. 結 論

本島俗談은 環海天險의 불우한 입지적 풍토성과 내우외환의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생을 영위해 온 선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속담들은 本島고유의 方言을 통해 습속과 島民意識을 수사적 기교와 골계미를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口碑文學으로서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言衆의 무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언어의 보배인 이들 속담들이 잊혀지고 살아져버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전하기 위한 자료의 채록과 연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채록된 자료 중 本島俗談일 것으로 추정되는 550편을 선별하고 그 배경과 속성을 形態・表現・素材・職能・主題・性向別로 나눠 추적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간추려 진다.

1) 形態：上位型으로 一般型和 特殊型을 설정하고 각 유형의 명칭을 통용어로 명명하여 유형설정에 임하였다.

一般型이란 형성내력이나 형태구조에 관계 없이 두루 통하는 통속성을 지닌 속담을 한데 묶은 것으로서, 기능면에서는 그표현상 ①直叙型, ②迂廻型으로 분류되고, 구조면에서는 ①單一型, ②主從型, ③並列型, ④重疊型으로 분류된다. 特殊型은 그 형태가 사실적 장형이거나, 그 형성내력과 토속성을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①辭說型, ②事緣型, ③俗信型으로 분류된다. 특히 사실형 중에는 한국 最長인 63음절의 것이 있다.

2) 表現：표면의 기교적 측면에서의 修辭, 표현의 형태적 측면에서의 律格, 표현의 미학적 측면에서의 滑稽가 주축을 이룬다.

修辭法은 경구법을 중심으로 풍유법, 은유법, 대조법, 대구법, 과장법, 직유법, 설의법, 역설법, 점층법 등 10개의 수사태로 되어 있다. 여기서 경구법과 풍유법은 사실상 속담에서 따지고 보면 강약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경구이거나 풍유가 아닌 것이 없지만, 분류의 편의상 그 특성이 두드러지다고 생각되는 것은 분류의 대상으로 삼았다.

律格에는 한국시가의 압운율 부당성의 이론을 수용하고 音步律의 불투명한 점을 고려하여 音數律만을 과감히 적용시켰다. 그 결과 10편 이상 동일음수율군으로 묶을 수 있는 12개調가 70%를 운들고 있다. 그 중에도 5·5調가 으뜸이고, 다음으로 古詩歌의 전통적 율조로 알려진 4·4調를 비롯한 신문학기에 성행했던 7·5調가 상위권을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격면에서 고시가와 무관할 수 없는 상관성을 보여준 것이다.

滑稽에서는 풍자, 해학, 아이러니, 위트에 의한 미학적 표현의 묘미와 재미를 드러냈다. 투박한 향토적 정감과 기질을 바탕으로 言行的 취약점을 익살스럽게 꼬집고 自嘲와 自嘆 속에 자기극복의 체념과 향거의 불씨를 기묘한 발상을 통해 짜릿한 자극을 가하고 있다.

3) 素材：名詞로 된 具象語를 대상으로 人物, 生物, 衣食住別로 검토했다.

人物素材에서는 친족과 여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특히 여자가 남자의 감정을 넘고 있어 女多의 고장임을 입증했다. 또 身體素材에 陰部가 많음은 생리적 흥미와 感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재로서의 활용일 뿐이다.

生物素材에서는 農畜에 관계된 동식물들을 주축으로 전부 本島에서만 자생하거나 서식하는 것들이다. 가축에서 말이 많음은 몽고군이 三別抄軍을 정복한 후 牧馬場開設의 여혼을 그대로 들어낸 것이다.

衣食住의 素材는 거의 식생활을 정점으로 한 食物類가 절대다수이다.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구분해 보면 동물성의 肉類는 거의 없고 魚類가 고작이며 식물성 일변도로서 동물성의 7배에 가깝다. 用具만

보더라도 식생활과 관련된 民具類가 대부분이다. 住生活 소재는 주거의 최우선인 집이 압도적이고, 衣生活 소재는 신과 옷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철두철미 실용성에 입각한 생활기반을 다지려는 데 역점을 뒀던 생활방식의 결과이다.

4) 職能: 농경생활을 위주로 潛漁業 등 노동이 생업수단의 핵을 이룬다.

이들 가운데 潛漁業은 세계적인 생업으로서 海女의 강인한 기질과 근검성을 드러낸 자립의지의 표상이 되고 있다. 그밖에 畜産, 行商을 통해 드러난 습속과 立身揚名을 위한 崇文정신에 얹힌 내력은 선인들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매체가 된다.

5) 主題: 類概念인 警世觀, 生計觀, 運命觀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種概念인 15개의 소주제를 설정했다.

警世觀에서는 ① 敎示, ② 言行, ③ 人情, ④ 守分 등은 비리와 비행, 인간성 상실을 경계하고 인간본연의 자세와 공중성을 강조했다.

生計觀의 ① 實利, ② 勤實, ③ 儉約, ④ 苦衷, ⑤ 自立, ⑥ 強韌, ⑦ 告知 등은 생계해결인 糊口之策에 직결된다. 이들 주제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으로서 불우한 환경여건을 초극하는 생활철학이자 신조로서 오늘날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전통의식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運命觀에서의 ① 運數, ② 吉凶, ③ 因緣, ④ 來世 등은 順天者興하고 逆天者亡이라는 것을 천리로 알고 초인적 천운과 氣數만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宿命론을 믿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來世인데, 한국속담에는 현세주의적 사상만 있을 뿐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本島俗談에는 그와 정반대로 내세관이 반영되고 있다. 아마도 기존연구는 속담사전에 의한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내려진 판단이라고 볼 때, 이런 점은 재조정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6) 性向: 本島俗談을 통해 드러난 4가지 특성인 言語의 特性, 謠詞와의 交流, 女人의 自尊性, 島民의 意識을 집약한 것이다.

言語의 特性을 보면 특이한 方言과 15세기의 국어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현대국어로 변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古語가 많

이 쓰여지고 있다.

謠詞와의 交流에서는 本島民謠의 謠詞가 적지 않게 속담에 전용되고 있다. 요사 한 수가 고스란히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일부부만의 거나, 아니면 변형행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속담과 민요의 선후문제와 상호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난제이다.

女人의 自尊性은 다른 고장의 여인들에게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海女를 중심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부녀자들의 강인한 기질과 근검한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역동적인 생활력을 통해 생계의 대역을 수행함은 물론 가운을 좌우하는 막중한 존재로서 남존여비사상에만 일관시킬 수 없는 自尊性이 돋보인다.

島民의 意識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自立心과 克己心이다. 自立心은 주로 생계관의 주제인 實利・勤實・儉約・苦衷・自立・強靱에서 도출되고, 克己心은 경세관과 운명관을 중심으로 한 運數, 人情, 守分, 來世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들 자립심과 극기심은 本島先人들의 처세과정에 뒤엉킨 본능적 충동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본연으로의 환원을 위한 현실극복의 二大意識이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本島俗談의 속성과 그 형성배경은 모든 속담이 그렇듯이 사실성에 입각하여 당대의 생태와 인간사를 표출시킨 선인들의 남긴 생활훈이라는 데 초점을 모을 수가 있다. 여기서 못다 밝힌 미진한 사항들은 앞으로 더 채록될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 논문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 〈參考文獻〉

## (漢文原典)

- 「高麗史節要」, 민족문화추진회, 1968.  
 「朝鮮王朝實錄」, 探求堂, 影印本, 1968.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69.  
 洪萬宗, 「旬五志」, 『洪萬宗全集』, 太學堂, 1980.  
 丁若鏞, 「耳談續纂」, 『增補與猶堂全集』, 景仁文化社, 1970.  
 申光洙, 「石北文集」, 木活字本, 1906.  
 李衡祥, 「南宦博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學問閣, 影印本, 1968.  
 金 淨,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金尚憲, 「南槎錄」, 上 同  
 李 健, 「濟州風土記」, 上 同  
 李元鎮, 「耽羅志」, 上 同  
 金錫翼, 「耽羅紀年」, 上 同

## (單行本)

- 姜在哲, 「韓國俗談의 根源說話」, 白鹿出版社, 1980.  
 「國文學新講」, 國文學新講編纂委員會, 새문社, 1985.  
 金思燁, 「俗談論」, 大建出版社, 1953.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3.  
 金烈圭의, 「우리 民俗文學의 이해」, 開文社, 1980.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紀文化社, 1982.  
 「農事俗談集」, 全羅南道農村振興院, 1980.  
 方鍾鉉의, 「俗談大辭典」, 朝光社, 1940  
 石宙明, 「濟州島資料集」, 寶晉齋刊, 1950.  
 「漁村俗談集」, 全羅南道, 1979.  
 李基文, 「俗談辭典」, 民衆書館, 1962.  
 李基文, 「韓國의 俗談」, 三星美術文化財團, 1976.

- 李商燮, 「文學批評用語辭典」, 民音社, 1976.
- 張德順 외,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 鄭炳昱,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 「濟州道誌」, 濟州道, 1982.
-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乙酉文化社, 1957.
- 趙健相, 「韓國現代滑稽小說研究」, 文學藝術社, 1985.
- 秦聖猷, 「濟州島俗談」, 第 1, 2 輯, 프린트版, 1959.
- 「耽羅星主遺事」,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 1979.
- 「韓國思想大系 I」——文學·藝術篇——,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1973.
- 「韓國民俗大觀 6」——口碑傳承——,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第 1 輯 資料集——精研社, 1962.

#### 〈論文〉

- 高在奐, 「濟州島의 女性俗談」, 「국어국문학」 제86호, 국어국문학회, 1981.
- 高昌錫, 「元·明 交替期の 濟州島」, 「耽羅文化」第 4 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金思燁, 「多島海住民의 俚諺」, 「朝光」第一号, 朝光社, 1937.
- 金仁子, 「韓國俗談에서 본 女性」, 「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 제15집, 효성여자대학, 1964.
- 金宗澤, 「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 研究」, 「국어국문학」 제34·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 “ ”, 「俗諺의 性格과 類型」, 「清溪金思燁博士頌壽紀念論叢」, 學文社, 1973.
- 金善豐, 「諺語素材의 分析」, 「韓國民俗學」創刊号, 韓國民俗學研究會, 1969.

-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韓國民俗學」第5号，韓國民俗學研究會，1972.
- 金榮敦，‘濟州島海女の 出稼’，「石宙善教授回甲紀念論叢」，同刊行會，1971.
- “，‘民謡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濟州大學論文集」第11輯，濟州大學，1978.
- “，‘濟州島民謡研究’，博士學位論文，東國大學校 大學院，1983.
- “，‘海女調査研究’，「耽羅文化」第五號，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1986.
- 金聖培，‘禁忌俗信의 現代的 考察’，「清溪金思燁博士頌壽紀念論叢」，學文社，1973.
- 金道煥，‘한국속담의 심리적 분석연구’，「師大論文集」第2輯，釜山師範大學，1975.
- 金文昌，‘俗談論序說’，「研究論文集」第13輯，江原大學校，1979.
- 金宗業，‘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耽羅精神세미나 主題發表要旨」，濟州道文化財課，1979.
- 金學成，‘燕巖小説의 諷刺性’，「燕巖研究」，啓明大學校出版部，1984.
- 徐石演，‘俗談學研究’，「朴仁守博士華甲紀念論叢」同刊行會，1974.
- “，‘独逸俗談管見’，上 同
- 沈在箕，‘俗談의 意味機能에 대하여’，「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塔出版社，1977.
-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冠嶽語文研究」第七輯，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1982.
- 芮昌海，‘韓國詩歌 韻律研究의 通時的 考察’，「韓國學報」第11輯，韓國學研究會，1978.
- 尹敬洙，‘申石北의 「耽羅錄」考’，「石溪李明九博士回甲紀念論叢」，同刊行會，1984.
- 李殷相，‘俚諺의 意義 및 그 形成에 關하여’，「東光」第十号，東光社，1927.
- “，‘特殊俚諺과 共通俚諺’，「東光」第十三号，東光社，1927.

- 李御寧, '諧謔의 美的 範疇', 「思想界」第64号, 思想界社, 1958.
- 李乙煥, '韓國女性俗談에 關한 研究', 「亞細亞女性研究 2」,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3.
- “ , '韓國俗談의 語·句·節 類型研究', 「한글학회50돌기념논문집」, 한글학회, 1971.
- 林語堂, '東西洋의 諧謔', 「東西文學의 諧謔」,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1980.
- 趙東一, '시조율격과 변형규칙', 「국어국문학」, 제17집, 영남대학교, 1978.
- 崔來沃, '俗信語의 性格研究', 「崔正如博頌壽紀念民俗語文論叢」, 同刊行會, 1983.
- 玄容駿, '濟州島民謡의 俗談의 表現', 「詩作業」 濟州友生出版社, 1960.
- 玄平孝의, '耽羅精神研究', 「濟州大學論文集」第11輯, 濟州大學, 1970.

#### 〈外 国 書〉

- Arewa, E. Ojo, and Alan Dundes. "Proverbs and the Ethnography of Speaking." *American Anthropologist* 66, 1964.
  - Friedrich Seiler, "Deutsche Sprichwörterkunde." München, 1922.
  - Krappe, Alexander H. "Proverbs." *The Science of Folklore*. New York: W. W. Norton, 1964.
  - Roger D. Abrahams. "Proverbs and Proverbial Express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72.
  - Taylor, Arcker, and B. J. Whiting. "Proverb." *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Mythology and Legend*. Edited by Maria Leach. 2 Vols.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50.
  - Whiting, B. J. "The Nature of the Proverb." *Harvard University Studies and Notes in Philology and Literature* 14, 1932.
- 大島達彦, 'ことおぎ', 「日本民俗大系10」, 平凡社, 1959.
- 費潔心, 「中國農諺」, 天一出版社, 民國三十年.
- 朱介凡, 「中國風土諺語釋說」, 天一出版社, 民國五十一年.

## SUMMARY

## A STUDY ON CHEJU-DO PROVERBS

by Jae-hwan Ko

The proverbs of Cheju-Do reflect the vital phenomena of ancestors who had made a miserable live in the ocean-bound island in spite of troubles both at home and abroad. Because these proverbs reflect the customs and consciousness of the islanders in Cheju-Do rhetorically and comically by means of dialects peculiar to Cheju-Do, these proverbs functions conspicuously as a legendary literature. But as the years go on, the ignorance of them have plunged proverbs into a crisis not only to pass out of public memory but also to become extinct. In order to conserve and hand down the proverbs to posterity, study on the proverbs and recording in books are required today. For this purpose, I selected 550 proverbs presumed to belong to Cheju-Do from recorded data, and divided their background and property according to form, expression, material, function, subject and disposition. The result is the follows

1) Form : The form is divided into a general form and special one. A general form is also divided into a direct descriptive one and a periphrastic one according to its functions, while special one is divided into a unitary form, a principal-subordinate one, paratactic one and overlaped one according to its structures. Special form is

divided into descriptive one, historical one and folk-belief one.

2) Expression: Expression consists of 10 rhetorical expressions based on epigram, 13 syllabic rhythms based on 5-5 tune and subjective comicality called satire, joke, irony or wit.

3) Material: Material aims at attracting concrete nouns, the main current of which consists not only of relatives and females in characters, but also of animals relevant to agriculture and stockraising in living things. Especially living things grow naturally live only in Cheju-Do district. In case food, clothes and shelter are materials of proverbs, the kinds of food are the first in number, the kinds of clothes are the second and the kinds of shelters are the last. Goods relevant to public eating habits enjoy an absolute majority among the living instruments.

4) Function: Labor is an important as means to make a living in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The proverbs on diving women, which stand without a peer as proverbs on women, reflect a strong outlook on a living means.

5) Subject: The view on awakening the public, the view on making a living and the view on destiny are important parts as subjects of the proverbs in Cheju-Do. The view on awakening public refers to instruction, speech and behavior, sympathy and duty fulfilment. The view on living means refers to diligence, frugality, utility, mental suffering, independence, exhortation and announcement. The view on destiny refers to destiny, fortune, cause and occasion, and future life. That is to say, the abovementioned 15 small subjects play a role as important parts of Cheju-Do proverbs.

6) Disposition: The 4 features peculiar to Cheju-Do proverbs are

an intensive language, exchange with folk songs, women's self-respect and the consciousness of Cheju islanders. First of all, the feature of the language used in proverbs is to use not only dialects peculiar to Cheju-Do inhabitants but also an older language from Middle Korean Language in 15c to transition into Modern Korean Language. The exchange between proverbs and folksongs shows that a piece of folk songs is diverted either wholly or partially into a proverb. In some cases, this diversion causes us to face a problem to solve precedent or subordinative relation between proverbs and folk songs. The proverbs based on a mode of women's life in Cheju-Do, obtain unique position among the proverbs on Korean women.

The strong temper and thrifty living spirit of Cheju-Do women are the symbol of their independent spirit. Women played an important role not only to control their family destiny, but also to fulfil their obligation through strong capacity for living. Confronted with troubles both at home and abroad, Cheju-Do inhabitants cultivated self-independent consciousness and self-denying spirit, which are based on diligence, frugality, independence and toughness.

Such independent consciousness and self-denying spirit are both a motive force and a moral support to create folk literature in Cheju-Do. They are also the great traditions Cheju-Do inhabitants should uphold and develop infinitely.